

경계의 집

The House on the Borderland

윌리엄 호프 호지슨 (William Hope Hodgson) (1877-1918)

1908년 발표 · 한국어 번역 · 2026-06-12

vLLM Qwen3.6-35B-A3B AI 번역

책 정보

원전

윌리엄 호프 호지슨 (William Hope Hodgson), "The House on the Borderland" (Chapman & Hall 1908)

저자

윌리엄 호프 호지슨 (William Hope Hodgson) (1877-1918)

원전 출처

Project Gutenberg #10002 (퍼블릭 도메인)

번역

vLLM Qwen3.6-35B-A3B FP8 (GB10 로컬)

발행

sosig.shop/book · 2026-06-12

번역 정책

가독성을 우선해 옮기되 코스믹 호러 특유의 음산한 격조를 살렸습니다. 고유명사·핵심 표현은 작품 내내 일관되게 옮겼습니다.

AI 번역의 한계상 어조 흔들림·세부 오역 가능성이 있으니, 정식 번역본의 대체가 아닌 "쉽게 읽는 한 편"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윌리엄 호프 호지슨

1877년, 아일랜드 서부 크라이튼 마을 남쪽의 폐허에서 토니슨과 베레그노그 두 사람이 발견한 필사본. 여기에 각주를 달아 실음.

내 아버지께 _[잃어버린 영원들을 밟고 다니시는 그분께)]_

문을 열어라, 그리고 들어라! 오직 바람의 잣아든 울부짖음과 달 주위에 어린 눈물의 반짝임뿐. 그리고 환상 속에서는, 사라져 가는 신발의 발걸음 소리-- 죽은 자들과 함께 바깥 밤 속으로.

"고요! 그리고 귀 기울이라 어둠 속 바람의 슬픈 울음소리에. 고요히 귀 기울이라, 중얼거림도 한숨도 없이, 잃어버린 영원들을 밟는 신발 소리에, 너에게 죽으라 명하는 그 소리에. 고요! 그리고 귀 기울이라! 고요! 그리고 귀 기울이라!"

죽은 자의 신발

필자가 이 원고를 세상에 내놓는 이유

이 원고는 필자가 직접 수집한 것이 아니다. 필자는 이 원고가 세상에 존재한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했다. 필자는 이 원고가 필자의 손에 들어오게 된 경위와 그 출처에 대해, 독자들이 궁금해할 만한 사실을 조금이라도 밝히고자 이 서문을 덧붙인다.

필자는 몇 해 전, 런던의 한 구두쇠 서점 주인을 우연히 만나게 되었다. 그 노인은 필자에게, 필자가 그토록 오랫동안 찾아다녔던 희귀한

고문서 한 권을 발견했다고 말했다. 그 문서는 19세기 초에 작성된 것으로 보였으며, 필자의 전문 분야인 괴기 소설과 관련된 흥미로운 내용을 담고 있었다.

노인은 그 문서가 필자에게 꼭 필요한 것일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는 필자에게 그 문서를 읽어보라고 권했고, 필자는 그 제안을 받아들였다.

문서를 읽던 중, 필자는 그 내용이 단순한 허구가 아님을 깨달았다. 그것은 필자가 지금까지 읽은 어떤 괴기 소설보다도 생생하고, 더 나아가 현실과 경계가 모호할 정도로 사실적으로 느껴졌다. 필자는 그 문서의 저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그 문서가 어떻게 하여 노인의 서점에 있게 되었는지 궁금해졌다.

노인은 그 문서가 한 노신사의 유물 중 하나였다고 설명했다. 그 노신사는 평생 동안 괴이한 사건들과 미스터리한 인물들에 대한 기록을 수집해 왔으며, 그 문서도 그 중 하나였다. 노신사는 세상을 떠나기 전, 그 문서를 노인에게 건네주었고, 노인은 그것을 오랫동안 방치해 두었다가 필자에게 발견하게 된 것이다.

필자는 그 문서의 내용을 독자들에게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그것은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선,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세계에 대한 통찰을 제공해 줄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필자는 이 원고를 번역하여 세상에 내놓기로 결정했다. 그것은 필자의 개인적인 취향을 넘어서, 더 큰 의미를 지닌 작업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필자는 이 원고가 독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 수 없다. 하지만 필자는 그것이 독자들에게 잊지 못할 경험을 제공해 줄 것이라고 믿는다. 그것은 필자가 지금까지 경험한 가장 강렬하고, 가장 신비로운 경험 중 하나였기 때문이다.

필자는 이 원고가 독자들에게 새로운 시각을 제공해 줄 것이라고 기대한다. 그것은 필자가 지금까지 경험한 가장 독특하고, 가장 흥미로운 작품 중 하나였기 때문이다.

필자는 이 원고가 독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길 것이라고 믿는다. 그것은 필자가 지금까지 경험한 가장 강렬하고, 가장 신비로운 경험 중 하나였기 때문이다.

필자는 이 원고가 독자들에게 새로운 시각을 제공해 줄 것이라고 기대한다. 그것은 필자가 지금까지 경험한 가장 독특하고, 가장 흥미로운 작품 중 하나였기 때문이다.

나는 다음 페이지에 담긴 이야기를 오랫동안 깊이 생각했다. 내가 받은 그대로, 있는 그대로 이 이야기를 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내 직감이 틀리지 않았기를 바란다.

원고 자체 말이다. 처음 내 손에 들어왔을 때, 나는 그것을 호기심 어린 눈으로 뒤적이며 짧고 경직된 동작으로 빠르게 살펴보았다. 작은

책이지만 두껍다. 마지막 몇 페이지를 제외하고는 모두 기이하지만 읽을 수 있는 필체로, 매우 뽀뽀하게 적혀 있었다. 내가 이 글을 쓰는 지금도 코끝에는 특이하고 희미한 구덩이 물 냄새가 남아 있고, 손가락에는 오래도록 습기에 젖었던 종이의 부드럽고 축축한 감촉이 무의식적으로 각인되어 있다.

나는 읽었다. 그리고 읽는 동안, 마음을 가리는 '불가능의 장막'을 걷어내고 미지의 세계를 들여다보았다.

딱딱하고 불쑥 끊기는 문장들 사이를 헤매던 나는, 이내 그 단호한 서술에 더는 불만을 품지 않게 되었다. 내 야심 찬 문장 다듬기보다는, 이 토막난 이야기 쪽이 사라진 집의 늙은 은둔자가 전하려 애썼던 모든 것을 훨씬 더 잘 마음에 와닿게 전하기 때문이다.

이 기이하고 특이한 사건들에 대한, 단순하고 딱딱하게 적힌 기록에 대해서는 내가 덧붙일 말이 많지 않다. 이 기록은 이미 너의 앞에 놓여 있다.

그 안의 깊은 진상은 각자의 능력과 욕구에 따라, 독자가 스스로 파헤쳐야 한다.

지금 내가 보듯, 하늘과 지옥이라는 통상적인 이름으로 불릴 만한 것들의, 그림자 같은 형상과 관념을 보지 못하는 이가 있을지라도 말이다. 그럼에도 나는 약속한다. 이 이야기를 단순히 하나의 이야기로만 받아들인다면, 분명히 어떤 전율과 긴장감을 느낄 수 있으리라고.

윌리엄 호프 호지슨 1907년 12월 17일

나

원고의 발견

아일랜드 서쪽 끝에는 크라이튼이라는 작은 마을이 있다. 이 마을은 외롭게 낮은 언덕 기슭에 자리 잡고 있다. 주변은 척박하고 완전히 사람이 살 수 없는 황량한 땅이 끝없이 펼쳐져 있다. 드문드문 먼 거리에 고립된 오두막의 폐허가 서 있다. 지붕은 이미 사라지고 뼈대만 드러난 채로.

이 땅은 온통 황폐하고 사람이 없다. 그 아래 깔린 바위를 흙이 겨우 덮고 있을 뿐이며, 그 바위는 이 지방 어디에나 가득하여, 어떤 곳에서는 파도 모양의 능선을 이루며 땅 위로 솟아오른다.

그곳은 황량하기 그지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친구 토니슨과 함께 그곳에서 휴가를 보내기로 결정했다.

그는 전년도에 장거리 도보 여행을 하던 중 우연히 이 곳을 발견했다. 그리고 작은 마을 외곽을 흐르는 이름 없는 작은 강에서 낚시꾼으로서의 가능성을 발견했던 것이다.

나는 그 강에 이름이 없다는 말을 이미 했다. 덧붙이자면, 내가 지금까지 참고한 어떤 지도에도 이 마을이나 시내가 표시되어 있지 않았다. 이들은 완전히 관찰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듯했다. 사실, 평범한 안내 책자만 보아서는 아예 존재하지 않는 것이나 다름없었다. 아마도 가장 가까운 철도역인 아드라한이 이곳에서 약 40마일이나 떨어져 있다는 사실이 부분적인 이유일 것이다.

따뜻한 어느 저녁 일찍, 친구와 나는 크라이튼에 도착했다. 우리는 전날 밤 아드라한에 도착해, 마을 우체국에서 빌린 방에서 잠을 잤고, 이튿날 아침 일찌감치 출발해 그 지방의 전형적인 경마차(jaunting car) 한 대에 위태롭게 매달려 길을 갔다.

우리는 상상할 수 있는 가장 험준한 길들을 온 종일 걸었다. 그 결과 우리는 완전히 지쳐 있었고, 기분도 몹시 상해 있었다. 하지만 우리는 음식이나 휴식에 대해 생각하기 전에, 텐트를 치고 짐을 정리해야만 했다. 그래서 우리는 운전자의 도움을 받아 작업을 시작했고, 곧 작은 마을 바로 바깥에 있는 작은 땅 위에 텐트를 세웠다. 그리고 그 곳은 강과 매우 가까웠다.

우리는 모든 짐을 치른 뒤, 운전수를 보내주었다. 그는 가능한 한 빨리 돌아가야 했기 때문이다. 대신 2주 후, 우리 곁으로 다시 오라고 일렀다.

우리는 그 기간 동안 버틸 만큼 충분한 식량을 가져왔다. 물은 근처 시냇물에서 구할 수 있었다. 연료는 필요하지 않았다. 장비에 작은 석유 버너를 포함시켰고, 날씨는 맑고 따뜻했기 때문이다.

캠핑을 하자는 것은 토니슨의 생각이었다. 그가 말하기를, 한쪽 구석에는 우글거리는 건강한 아일랜드 대가족이, 다른 구석에는 돼지우리가 있고, 머리 위에서는 누추하게 모여 앉은 닭들이 그 '축복'을 사방에 공평하게 나눠 주는 데다, 방 안은 온통 이탄 연기로 가득해 문 안에 머리만 들이밀어도 재채기로 머리가 떨어져 나갈 지경인 방에서 자는 건 도무지 농담이 아니라는 것이었다.

토니슨은 이미 난로를 붙여 놓았고, 베이컨을 잘라 프라이팬에 넣고 있었다. 나는 주전자를 들고 강물로 물을 떠러 내려갔다.

가는 길에 나는 마을 사람들 몇 명이 모인 작은 무리 옆을 지나야 했다. 그들은 나를 호기심 어린 눈초리로 바라보았지만, 적대적인 태도는 아니었다. 다만 아무도 말을 건네지는 않았다.

주전자를 가득 채워 들고 돌아오는 길이었다. 나는 그들 곁으로 다가가 친근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같은 방식으로 답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나는 태연하게 물고기에 대해 물었다. 하지만 그들은 대답 대신 고개를 저으며 조용히 나를 응시할 뿐이었다.

나는 다시 한번 물었다. 특히 내 팔꿈치 옆에 서 있는 키 크고 마른 사내에게 더 집중하여 말이다. 그러나 이번에도 대답은 없었다.

그 사내는 옆에 있던 동료에게 돌아서서,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언어로 무언가를 빠르게 말했다. 그러자 그 무리 전체가 재빨리 수다를 떨기 시작했다. 잠시 후, 나는 그들이 순수한 아일랜드어로 말하고 있다고 추측했다.

동시에 그들은 나를 향해 여러 번 시선을 던졌다. 약 일 분간, 그들은 서로 이런 식으로 수군거렸다. 그러자 내가 말걸었던 사내가 나를 향해 돌아서서 무언가 말했다.

그의 표정을 보고, 나도 모르게 그가 나를 묻고 있다고 추측했다. 하지만 이제 나는 고개를 저어야 했다. 그들이 알고 싶은 것을 내가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을 손짓으로 보여준 것이다.

그리하여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서 있었다. 그때 토니슨이 주전자를 빨리 가져오라고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미소와 함께 고개를 끄덕이며 그들을 떠났다. 작은 무리 전체도 미소와 함께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다. 하지만 그들의 얼굴에는 여전히 당혹감이 역력했다.

텐트 쪽으로 걸어가며 나는 생각했다. 황야에 있는 이 작은 오두막 몇 채의 주민들은 영어를 단 한 마디도 모른다는 사실이 분명했다.

나는 그 사실을 토니슨에게 알렸다. 그는 이미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더구나 그곳 지역에서는 매우 흔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그곳 사람들은 고립된 마을에서 살다 죽으며, 외부 세계와 접촉하는 일이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운전수가 떠나기 전에 통역을 부탁해 둘걸 그랬어." 식사 자리에 앉으며 내가 말했다. "이곳 사람들이 우리가 왜 왔는지조차 모른다는 게 정말 이상하단 말이야."

토니슨이 코웃음을 치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고는 잠시 동안 말없이 있었다.

잠시 후, 배고픔을 어느 정도 달랜 우리는 내일을 위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담배 한 대를 피운 뒤, 우리는 텐트 입구를 닫고 잠자리에 들 준비를 했다.

"바깥에 있는 저 친구들이 뭔가 슬쩍해 갈 가능성은 없겠지?" 담요에 몸을 말며 내가 물었다.

토니슨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적어도 우리가 있는 동안은 말이야. 그가 덧붙여 설명하기를, 우리는 식량을 넣으러 가져온 큰 궤짝에 모든 것을 잠글 수 있다고 했다. 단, 텐트만 제외하고는.

나는 그 제안에 동의했다. 그리고 곧 우리는 둘 다 잠들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났다. 우리는 강가로 가서 수영을 즐겼다. 그 후 옷을 입고 아침을 먹었다.

그리고 낚시 도구를 꺼내 점검했다. 아침 식사가 어느 정도 내려앉은 때였다. 우리는 천막 안의 모든 것을 단단히 고정했다. 그리고 친구가 이전에 탐험했던 방향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낮 동안 우리는 즐겁게 낚시를 했다. 강을 거슬러 꾸준히 상류 쪽으로 올라가며 낚시를 이어갔고, 저녁이 될 무렵 우리는 내가 오랫동안 보지 못했을 만큼 아름다운 어획 바구니 가운데 하나를 손에 넣었다. 마을로 돌아온 우리는 그날의 수확으로 든든히 한 끼를 챙겨 먹은 뒤, 다음 날 아침거리로 쓸 좋은 물고기 몇 마리만 따로 골라두고 나머지는 우리 모습을 구경하려고 공손하게 거리를 두고 모여 있던 마을 사람들을

에게 나누어 주었다. 그들은 놀라울 만큼 고마워하며, 내가 보기엔 아일랜드식 축복인 듯한 말을 산더미처럼 우리 머리 위에 쏟아부었다.

그렇게 우리는 며칠을 보냈다. 낚시는 더할 나위 없이 즐거웠고, 잡은 물고기를 마음껏 해치울 만한 왕성한 식욕도 갖추고 있었다. 우리는 마을 사람들이 꽤 우호적이라는 사실, 그리고 우리가 자리를 비운 동안 우리 집에 손을 댄 흔적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며 흡족해했다.

우리가 크라이튼에 도착한 것은 화요일이었다. 그리고 그로부터 일주일 후, 바로 다음 주일 날 우리는 위대한 발견을 하게 된다.

그동안 우리는 늘 강을 거슬러 올라갔다. 하지만 그날만은 낚싯대를 내려놓고, 간식을 챙겨 반대 방향으로 긴 산책을 떠났다. 날은 무더웠고, 우리는 여유롭게 발걸음을 옮겼다. 정오쯤 강가 근처의 넓은 평평한 바위 위에 앉아 점심을 먹었다.

그 후 잠시 담배를 피우며 쉬었다. 지루함이 밀려올 때쯤이 되어서야 다시 걷기를 시작했다.

우리는 다시 한 시간쯤 더 발걸음을 옮기며, 이런저런 화제를 두고 조용하고 편안하게 잡담을 나누었다. 몇 차례는 걸음을 멈추기도 했는데, 예술가 기질이 다소 있는 내 동료가 거친 풍광 가운데 특히 인상적인 장면을 거칠게 스케치하기 위해서였다.

그리고 아무런 경고도 없이, 우리가 확신에 차 따라왔던 강은 갑자기 끝을 맺었다. 강물은 땅속으로 사라졌다.

“주여!” 내가 말했다. “누가 이런 것을 생각했겠는가?”

나는 놀라움에 얼어붙은 듯 그 광경을 응시했다. 그리고는 토니슨을 돌아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공허한 표정이 서려 있었고, 강이 사라진 지점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잠시 후, 그가 입을 열었다.

조금 더 가보자. 다시 나타날지도 모른다. 어쨌든 조사해 볼 가치는 있다.

나는 동의했고, 우리는 다시 앞으로 나아갔다. 하지만 방향을 잡지 못한 채 막연하게 걸었다. 우리가 어디를 향해 수색을 계속해야 할지 전혀 확신이 서지 않았기 때문이다.

약 1마일을 더 이동한 후,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주변을 두리번거리던 토니슨이 멈춰 섰다. 그는 눈을 가리며 앞을 응시했다.

“봐!” 그가 잠시 후 말했다. “저기 오른쪽으로, 저 큰 바위와 일직선 상에 있는 안개 같은 거, 아니 뭐 그런 것, 안 보이니?” 그는 손을 들어 그쪽을 가리켰다.

나는 멍하니 바라보았다. 1분이 지나서야 무언가 보인 것 같았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다. 그래서 그 사실을 말했다.

“어쨌든,” 친구가 대답했다. “우리는 그냥 건너가서 살짝 들여다보기로 하지.”

그는 자신이 제안했던 방향으로 발을 떼었다. 나는 그 뒤를 따랐다.

잠시 후, 우리는 덤불 속으로 들어섰다. 잠시 더 걸으니, 거대한 바위들이 흩어진 높은 언덕 꼭대기에 올랐다. 그곳에서 우리는 아래로 내려다보았다. 덤불과 나무들로 뒤덮인 황야가 눈앞에 펼쳐져 있었다.

"이 돌의 사막에서 오아시스라도 발견한 것 같군." 토니슨이 흥미진진한 눈빛으로 광경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그러더니 그는 입을 다물었고, 시선이 한 점에 고정된 채 움직이지 않았다. 나도 그를 따라 바라보았다. 수목이 우거진 저지대 한가운데쯤에서 거대한 안개 같은 물보라 기둥이 고요한 공기 속으로 높이 치솟고 있었고, 햇살이 그 위로 비치자 무수한 무지개가 떠올랐다.

“정말 아름답군!” 내가 외쳤다.

“네.” 토니슨이 생각에 잠긴 듯 대답했다. “저쪽에 폭포라도 있을 거야. 아니면 뭔가. 아마 우리 강이 다시 모습을 드러낸 게 아닐까. 가서 확인해 보자.”

우리는 경사면을 내려가 나무와 관목 숲 사이로 들어섰다. 관목들은 엉키고 나무들은 우리를 덮어, 이곳은 불쾌할 정도로 음울했다. 어둠이 충분히 깊지는 않아서, 많은 나무가 과수나무라는 사실과, 여기서 오래전에 사라진 경작의 흔적을 희미하게나마 찾을 수 있었지만. 그래서 나는 우리가 거대하고 오래된 정원의 무성함 속을 지나가고 있다고 생각했다. 나는 그렇게 토니슨에게 말했고, 그는 내 믿음을 뒷받침할 합리적인 근거가 분명히 있다고 동의했다.

그곳은 얼마나 황량하고 음울한 곳이었는가.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수록, 낡은 정원의 고요한 외로움과 버려진 적막함이 내 마음에 짙게 내려앉았다. 소름이 끼칠 지경이었다. 엉킨 덩불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숨어 있을 것 같았다. 공기 자체에 묘한 기운이 감돌았다. 토니슨도 그 기운을 느꼈을 것이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갑자기 우리는 멈춰 섰다. 나무들 너머에서 들려오는 어떤 먼 소리가 우리 귀에 점차 또렷이 자리 잡기 시작한 것이다. 토니슨이 몸을 앞으로 숙이고 귀를 기울였다. 이제 나는 그 소리를 더 또렷이 들을 수 있었다. 그 소리는 끊이지 않고 거칠었으며, 멀리서 들려오는 일종의 웅웅거리는 포효 같았다. 나는 묘하고 형언할 수 없는, 조금은 신경이 곤두서는 느낌을 받았다. 우리가 도대체 어떤 곳에 들어선 것일까? 나는 동료ja 어떻게 생각하는지 보려고 그를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오로지 당혹감만 떠올라 있었다. 그런데 그 표정을 지켜보는 사이, 깨달음의 빛이 그의 얼굴 위로 서서히 번졌고,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폭포군.” 그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외쳤다. “이제 그 소리를 알겠어.”

그는 소리가 나는 쪽으로 몸을 기울이며, 덩불을 헤치고 힘차게 앞으로 나아가기 시작했다.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수록 그 소리는 점점 또렷해졌다. 우리가 정확히 그 방향을 향해 가고 있다는 증거였다. 우렁찬 굉음은 일정한 속도로 점점 더 크고 가까워졌다. 내가 토니슨에게 말했듯이, 그 소리는 마

치 우리 발 밑에서 울려 퍼지는 것 같았다.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나무와 관목들에 둘러싸여 있었다.

“조심해!” 토니슨이 내게 소리쳤다. “발걸음을 잘 봐.”

그 순간, 우리는 나무들 사이를 빠져나와 거대한 벌판으로 나왔다. 우리로부터 여섯 발자국도 떨어지지 않은 앞쪽에, 거대한 심연의 입구가 입을 벌리고 있었다. 깊은 곳에서는 우리가 멀리서 언덕 꼭대기에서 목격했던 안개 같은 분무와 함께, 끊임없는 소음이 들려오고 있었다.

우리는 한참 동안 말없이 서서, 어찌 된 영문인지 알 수 없는 광경을 멍하니 응시하고 있었다. 그러더니 친구가 조심스럽게 심연의 가장자리로 다가갔다. 나도 뒤를 따랐고, 우리는 함께 끌어오르는 물보라 너머로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거의 100피트 아래, 협곡 옆면에서 거품을 일으키며 솟구치는 거대한 폭포수가 분출하듯 터져 나오고 있었다.

“세상에!” 토니슨이 외쳤다.

나는 말문이 막혔다. 경외심이 밀려온 것이다. 그 광경은 너무나도 거대하고 기이했다. 비록 그 기이함은 나중에 더 강하게 밀려왔지만.

잠시 후, 나는 고개를 들어 협곡 너머 저편을 바라보았다. 분무 사이로 거대한 무언가가 우뚝 솟아 있었다. 그것은 거대한 폐허의 일부처럼 보였다. 나는 토니슨의 어깨를 툭 치며 그의 주의를 끌었다. 그는 깜짝 놀라 고개를 돌렸고, 나는 그쪽을 향해 손가락을 가리켰다. 그의 시선이 내 손가락을 따라가자, 대상이 시야에 들어오는 순간 그의 눈이 갑자기 흥분으로 빛났다.

"이리 와 봐." 그가 소음을 뚫고 소리쳤다. "한번 살펴보자고. 이 곳엔 뭔가 이상한 게 있어. 뿔속 깊이 그런 예감이 들어." 그러면서 그는 크레이터 같은 심연의 가장자리를 빙 돌아 걷기 시작했다. 그 새로운 것에 가까이 다가가자, 나의 첫인상이 틀리지 않았음을 알 수 있었다. 그것은 분명히 어떤 무너진 건물의 일부였다. 다만 자세히 보니, 내가 처음 짐작했던 것처럼 심연 가장자리 그 자체 위에 세워져 있는 것이 아니라, 심연 위로 오십에서 육십 피트가량 뻗어 나온 거대한 암반의 거의 끝자락에 얹혀 있었다. 사실상 그 들쭉날쭉한 폐허 덩어리는 말 그대로 허공에 매달려 있었다.

우리는 그 정면까지 다다랐다. 그리고 돌출된 암반의 팔처럼 튀어나온 곳으로 걸어 나갔다.

그곳에서 아래를 내려다보았을 때, 나는 참을 수 없는 공포에 사로잡혔다. 눈이 휘둥그레질 만큼 높은 곳이었다.

아래는 알 수 없는 심연이었다. 그곳에서는 끊임없이 떨어지는 물의 천둥소리, 그리고 솟구치는 안개 같은 물보라가 들려왔다.

우리는 폐허에 다다라 조심스럽게 그 둘레를 돌았다. 그리고 반대편에서는 무너진 돌들과 잔해 더미가 드러나 있었다. 내가 폐허를 자세히 살펴보니, 그것은 거대한 구조물의 외벽 일부처럼 보였다. 벽이 그렇게 두껍고 견고하게 쌓여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것이 왜 그런 자리에 있는지, 나는 도무지 짐작할 수 없었다. 나머지 집이나 성, 혹은 그곳에 존재했던 다른 것들은 어디에 있었을까?

나는 벽 바깥쪽으로 돌아갔고, 거기서 절벽 가장자리로 향했다. 토니슨은 바깥쪽 돌더미와 잔해 더미 속에서 체계적으로 무언가를 파헤치고 있었다.

그런 뒤 나는 심연 가장자리 근처 지면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이 폐허의 조각이 분명히 속한 건물의 다른 흔적이 남아 있거나 없는지 확인하려 했다. 하지만 나는 흙을 최대한 주의 깊게 살폈다. 그러나 그곳에 건물이 세워졌던 적이 있음을 보여주는 흔적은 전혀 보이지 않았다. 나는 오히려 더 혼란스러워졌다.

그때 토니슨이 외치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는 흥분한 목소리로 내 이름을 부르고 있었고, 나는 지체 없이 바위 곳을 따라 폐허 쪽으로 서둘러 달려갔다. 그가 다친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곧이어 어쩌면 그가 무언가를 발견한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떠올랐다.

나는 무너진 벽에 다다라 그 주변을 돌아 올라갔다. 그곳에서 토니슨이 잔해 사이를 파낸 작은 구덩이 안에 서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는 책처럼 보이는 무언가에서 흙을 털어내고 있었다. 그 책은 심하게 구겨지고 남아 있었다. 그는 일이 초마다 입을 벌려 내 이름을 큰 소리로 외쳐 부르고 있었다.

내가 도착했음을 보자마자 그는 자신이 건진 것을 나에게 건넸다. 습기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가방에 넣어두라고 말한 뒤, 그는 계속 탐색을 이어갔다. 나는 그 말대로 했지만, 먼저 손가락으로 책장을 훑어 넘기며 살펴보았다. 책장은 갈끔한 옛 필체로 빼곡히 채워져 있었고, 대체로 또렷이 읽혔다. 다만 한 부분만은 달랐다. 그곳의 많은 페이지가

거의 망가져 있었다. 진흙이 묻고 구겨져 있었다. 마치 책이 그 부분에서 접혀 있었던 것 같았다.

토니슨에게 들으니, 그가 발견했을 때 실제로 이미 그 상태였다고 했다. 손상은 아마도 펼쳐진 부분 위로 석재가 떨어지면서 생긴 것일 터였다. 이상하게도 책은 꽤 건조했다. 나는 그것이 폐허 사이에 단단히 묻혀 있었기 때문이라고 여겼다.

책을 안전하게 치워 둔 뒤, 나는 토니슨이 스스로에게 부과한 굴착 작업을 돕기 위해 다시 그에게로 돌아섰다. 우리는 한 시간 이상 땀을 흘리며 고된 노동을 했지만, 쌓여 있는 돌들과 쓰레기들을 모두 뒤져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책상이나 탁자의 일부였을지도 모르는 깨진 나무 조각들 몇 개 이상은 발견하지 못했다. 결국 우리는 검색을 포기하고, 바위를 따라 다시 육지의 안전지대로 돌아갔다.

우리가 다음으로 한 일은 그 거대한 협곡을 완전히 한 바퀴 도는 것이었다. 우리는 그 협곡이 거의 완벽한 원형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폐허가 었힌 바위 돌출부가 튀어나와 그 대칭을 깨뜨리고 있는 부분만 예외였다.

토니슨이 말하길, 그 심연은 거대한 우물이나 구덩이와도 같았다. 땅속 깊은 곳으로 수직으로 떨어지는, 그런 곳이었다.

우리는 잠시 더 주변을 둘러보았다. 그러다 구덩이 북쪽에 넓은 빈 공간이 있다는 것을 눈치챈 우리는, 그곳으로 발걸음을 돌렸다.

우리는 거대한 구덩이 입구에서 수백 야드 떨어진 곳에 멈춰 섰다. 그곳에는 고요한 물이 가득한 거대한 호수가 있었다. 호수 전체는 죽은 듯이 조용했지만, 한 곳만큼은 예외였다. 그곳에서는 끊임없이 거품이 끓어오르며 구르는 소리가 들렸다.

우리는 분수처럼 분출하는 폭포의 소음에서 벗어났기에, 이제 서로의 목소리를 크게 지르지 않아도 들을 수 있었다. 나는 토니슨에게 이 장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다. 나는 그에게 내가 이곳을 좋아하지 않으며, 우리가 여기서 빨리 벗어나는 것이 더 좋겠다고 말했다.

그가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다. 그리고는 뒤쪽 숲을 슬쩍 돌아보았다. 내가 그에게 무언가 보았거나 들었는지 물었다.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귀를 기울이는 듯 고요히 서 있을 뿐이었다. 나도 말없이 조용히 있었다.

그가 갑자기 입을 열었다.

“들으라!” 그가 날카롭게 말했다.

나는 그를 바라보았다. 그리고는 숨을 죽인 채 나무와 덤불 사이를 응시했다. 긴장감 넘침 침묵이 일 분 동안 이어졌다. 하지만 나는 아무 소리도 들을 수 없었다.

나는 토니슨에게 그 사실을 말하려 돌아섰다. 그런데 입술을 벌려 말을 시작하려는 순간, 왼쪽 숲에서 기이한 울부짖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 소리는 마치 나무 사이를 부유하듯 스쳐 지나갔다. 나뭇잎이 흔들리는 소리가 났다. 그러고는 다시 고요함이 찾아왔다.

갑자기 토니슨이 말을 건넸다. 내 어깨에 손을 올렸다.

“이곳을 빠져나갑시다.”

그가 말했다. 그리고 주변 나무와 관목이 가장 드문드문한 쪽으로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내가 그를 따라가자, 문득 해가 이미 기울었다는 사실이 떠올랐다. 공기는 차갑고 날카로운 기운으로 가득했다.

토니슨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묵묵히 걸음을 계속했다. 우리는 이제 숲속으로 들어섰다. 나는 신경질적으로 주변을 둘러보았지만, 보이는 것은 고요한 가지와 나무줄기, 그리고 얽힌 덩굴뿐이었다. 우리는 계속 전진했고, 침묵을 깨는 소리는 우리 발아래에서 가끔씩 꺾이는 나뭇가지 소리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요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끔찍한 느낌을 받았다. 나는 토니슨에게 너무 가까이 붙어 있어 두 번이나 그의 발꿈치를 어설프게 차버렸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일 분이 지나고, 또 일 분이 지나자, 우리는 숲의 끝자락에 다다랐고, 마침내 들판의 햇빛은 바위투성이 풍경에 나뒹اخت다. 오직 그때서야 나는 숲속에서 나를 따라다니던 그 괴로운 공포감을 떨쳐낼 수 있었다.

우리가 물러서던 그때, 다시금 먼 곳에서 울부짖는 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그것이 바람 소리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 저녁은 숨조차 멈춘 듯 고요했다.

곧 토니슨이 말을 시작했다.

"듣게나," 그가 단호하게 말했다. "세상 그 어떤 부귀영화를 다 주더라도, 나는 저곳에서 하룻밤을 보내지 않겠노라. 그곳에는 뭔가 신성하지 않은, 악마적인 것이 서려 있다. 그것은 자네가 말한 직후, 순식간에 내게 밀려왔다. 숲 안에 추잡한 것들이 가득 차 있는 것 같았다. 자네도 알잖나!"

"네." 내가 대답하며 그쪽을 돌아보았지만, 지면의 경사로 인해 그곳은 우리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져 있었다.

"책이 여기 있소." 내가 말하며 가방 안으로 손을 넣었다.

"안전히 가져왔는가?" 그가 갑자기 불안에 사로잡혀 물었다.

"네," 내가 대답했다.

"아마도," 그가 계속 말했다. "우리 텐트에 돌아와서 그걸로 뭔가를 배우게 될지도 모른다. 서둘러야 해. 아직 멀리 떨어져 있고, 이제 어둠 속에서 여기 묶이는 건 원치 않으니까."

두 시간 뒤, 우리는 텐트에 도착했다. 점심때 이후로 아무것도 먹지 않았기에, 지체 없이 저녁 준비에 착수했다.

저녁 식사를 끝내고 우리는 치워둘 것들을 정리한 뒤 파이프에 불을 붙였다. 그러자 토니슨이 내 가방에서 원고를 꺼내달라고 했다. 나는 그대로 실행했고, 두 사람이 동시에 원고를 읽을 수 없자 그가 제안했다. 내가 그 글을 큰 소리로 읽어보라는 것이었다.

“그리고 조심해,” 그가 주의를 주었다. 나의 성향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책의 절반을 날리지 말고.”

하지만 그가 그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 알았더라면, 그런 충고가 얼마나 필요 없는 것인지 깨달았을 것이다. 적어도 한 번은 그랬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 작은 텐트 입구에 앉아, 나는 이상한 이야기를 시작했다. 『경계의 집(The House on the Borderland)』이라는 제목의 원고에 실린 이야기였다. 이 이야기는 이어지는 페이지들에 담겨 있다.

II

침묵의 평원

나는 늙은이요. 나는 이 오래된 집, 거대하고 손질되지 않은 정원에 둘러싸여 산다.

저 너머 황야에 사는 농민들은 내가 미쳤다고 말한다. 그들이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내가 그들과 아무런 관계를 맺으려 하지 않기 때문이다

다. 나는 이곳에서 늙은 누이와 함께 홀로 산다. 그녀는 내 가정부도 겸한다. 우리는 하인을 두지 않는다. 나는 하인을 싫어한다.

나에게는 친구가 한 명 있다. 개다. 그렇다, 나는 온 세상의 피조물을 다 합친 것보다 늙은 페퍼를 더 좋아한다. 적어도 그는 나를 이해한다. 그리고 내가 어두운 기분에 빠졌을 때는 충분히 분별력을 발휘해 나를 혼자 내버려둔다.

나는 일종의 일기를 쓰기 시작했다. 누군가에게 말하지 못하는 생각과 감정을 기록할 수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것뿐만이 아니다. 이 기이한 낡은 건물에서 오랜 세월 고독을 보내며 들었고 보았던 이상한 일들을 기록으로 남기고 싶다.

이 집은 수세기 동안 나쁜 평판을 안고 살아왔다. 내가 이 집을 사기 전까지, 무려 팔십 년이 넘는 세월 동안 아무도 여기서 살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이 낡은 집을 터무니없이 싼 값에 손에 넣을 수 있었다.

나는 미신이 없다. 하지만 이 오래된 집에서는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더 이상 부인하지 않는다. 그래서 가능한 한 성실히 그 일들을 기록해 마음을 가라앉히려 한다. 비록 이 일기가 내가 떠난 뒤 누군가에게 읽히더라도, 사람들은 고개만 저을 뿐 내가 미쳤다고 더 확신할 것이다.

이 집은 얼마나 고대적인가! 비록 그 나이가 덜 강렬하게 다가올지 모르지만, 그 구조의 기이함은 더욱 돋보인다. 건물은 끝까지 신비롭고 기묘하다. 작은 굽은 탑과 첨탑들이 우세하게 자리 잡고 있으며, 그

윤곽은 도약하는 불꽃을 연상시킨다. 건물의 본체는 원형으로 설계되어 있다.

시골 사람들은 이 집에 악마가 지었다는 옛이야기를 해왔다.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나는 알지도, 신경도 쓰지 않는다. 다만 내가 오기 전에 그 이야기가 집값을 깎아주는 데 도움이 되었을 뿐이다.

이 집에 온 지 십 년쯤 지났을 때야 비로소, 이 집 주변에서 돌던 소문들을 믿을 만한 근거를 얻었다. 사실 그전에도 열두 번은 넘게, 희미하게 나를 당황스럽게 만드는 것들을 목격했다. 어쩌면 본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느꼈을지도 모른다. 세월이 흘러 나를 늙게 할수록, 빈 방들과 복도에서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무언가를 자주 의식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말했듯이, 이른바 초자연적인 것들의 진정한 현상이 드러나기까지 수년이 더 지나야 했다.

할로윈 날이 아니었다. 만약 내가 그저 재미를 위해 이야기를 풀어 나가고 있다면, 아마도 그 특별한 밤에 사건을 배치했을 것이다. 하지만 이는 나의 실제 경험을 기록한 것이다. 누구를 즐겁게 하기 위해 필경을 들일 생각은 없다.

그때는 1월 21일 자정 이후였다. 나는 평소처럼 책상 앞에 앉아 독서에 몰두하고 있었다. 페퍼는 내 의자 근처에서 잠들어 있었다.

경고 없이 두 촛불의 불빛이 낮아졌다. 그러자 형언할 수 없이 기괴한 녹색 빛이 방 안을 뒤덮었다.

나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다. 그 순간, 빛은 다시 흐릿하고 붉은빛으로 가라앉았다. 방은 이상하고 무거운 자줏빛 황혼에 잠겼다. 의자와 책상 뒤의 그림자는 두 배로 짙은 검은색으로 변했다.

빛이 닿는 곳마다, 마치 형광을 띤 피가 방 안으로 튀겨진 듯했다.

바닥에서, 나는 희미하고 겁에 질린 킁킁거리는 소리를 들었다. 그리고 무언가가 내 두 발 사이에 몸을 밀어 넣었다. 페퍼였다. 내 드레싱가운 아래 웅크리고 있는 페퍼가. 페퍼는 평소 사자처럼 용감한 녀석이었는데!

개이 그 움직임이, 내 생각엔, 나에게 진정한 공포의 첫 번째 찌름을 안겨준 것 같았다. 불빛이 처음에는 초록색으로, 이어 빨간색으로 변했을 때 나는 크게 놀랐다. 하지만 그 변화가 방 안으로 유독 가스가 유입된 탓이라고 잠시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았다. 촛불은 일정한 불꽃으로 타오르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꺼질 기미도 보이지 않았다. 만약 대기 중의 연기가 원인이었다면, 촛불은 분명히 꺼졌을 것이다.

나는 움직이지 않았다. 분명히 무서웠지만, 기다리는 것 외에는 더 나은 방법이 없다는 생각뿐이었다.

잠시 동안, 나는 신경질적으로 방 안을 두리번거렸다. 그러다 불빛들이 아주 천천히 내려가기 시작하는 것을 발견했다. 이내 불꽃은 어둠속 루비처럼 붉은 빛의 작은 점들로 변했다.

나는 여전히 앉아 지켜보았다. 그러자 꿈결 같은 무관심이 나를 덮쳤고, 처음 나를 잡았던 공포는 완전히 사라졌다.

거대한 옛 양식의 방 한쪽 끝에서, 나는 희미한 빛의 기운을 느꼈다. 그 빛은 점증하여 방 안을 떠는 초록빛 반사들로 채워 나갔다. 그러자 곧 그 빛들은 순식간에 가라앉았다. 그리고 바뀌었다. 촛불이 그랬던 것처럼 말이다. 빛은 짙고 음울한 진홍빛으로 변해 강해졌고, 끔찍한 영광의 홍수처럼 방을 가득 채워 비쳤다.

빛은 끝쪽 벽에서 나왔다. 빛은 점점 더 밝아졌고, 결국 참을 수 없을 정도로 눈부셨다. 그 빛 때문에 내 눈은 극심한 고통을 느꼈고, 나는 어쩔 수 없이 눈을 감았다. 눈을 뜰 수 있을 때까지 몇 초가 지났을 것이다.

내가 먼저 알아차린 것은 빛이 크게 약해졌다는 것이었다. 이제 더 이상 내 눈을 찌르지 않았다. 그리고 빛이 더 흐려지자, 나는 문득 깨달았다. 나는 붉은 빛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 아니었다. 그 붉은 빛을 뚫어, 그리고 그 너머의 벽까지도 응시하고 있었던 것이다.

점점 그 광경에 익숙해지면서, 나는 거대한 평원이 펼쳐져 있음을 깨달았다. 방 안을 감돌던 그 음울한 황혼빛이 평원 전체를 비추고 있었다.

이 평원의 광활함은 도저히 상상하기 힘들 정도였다. 어디를 봐도 끝자락을 찾을 수 없었다. 눈앞의 경계는 점점 더 넓게, 더 멀리 퍼져 나갔다. 시야는 아무런 한계도 포착하지 못했다.

차츰, 가까운 부분의 디테일이 선명해지기 시작했다. 그러다 순식간에 빛이 꺼졌다. 그리고 그 광경은—그것을 광경이라 부를 수 있다면—흐릿해지더니 사라져 버렸다.

순간, 나는 더 이상 의자에 앉아 있지 않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대신 나는 의자 위에 공중부양하는 듯했고,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그곳에는 흐릿한 무언가가 웅크린 채 고요히 앉아 있었다.

잠시 후, 찬 바람이 불어닥쳤다. 나는 밤바깥으로 내던져진 듯했다. 거품처럼 어둠 속을 떠올랐다. 움직일수록 얼음장 같은 추위가 나를 감싸 안았다. 나는 오싹 떨었다.

잠시 후, 나는 좌우를 둘러보았다. 밤의 건널 수 없는 검은 빛이 시야를 가득 메웠고, 그 어둠 속에서는 멀리서 타오르는 불빛들이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다. 나는 전진했다. 더 멀리, 더 바깥쪽으로.

한 번은 뒤를 돌아보았다. 지구는 작은 초승달 모양의 푸른 빛으로, 내 왼쪽으로 서서히 멀어져 가고 있었다. 더 멀리서, 태양은 흰 불꽃이 튀겨진 듯한 모습으로, 어둠 속에서 선명하게 타오르고 있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알 수 없었다. 그러다 마침내, 나는 지구를 마지막으로 바라보았다. 그것은 영원한 에테르의 바다를 헤엄치는, 빛나는 푸른 구슬이었다.

그리고 나는, 영혼의 먼지 한 점 같은 연약한 존재로서, 고요히 공허를 가로질렀다. 먼 푸른빛에서부터, 알 수 없는 광활함 속으로.

세월이 무척이나 흘렀다. 이제 나는 사방 어디를 봐도 아무것도 볼 수 없었다. 나는 정해진 별들을 지나쳐, 그 너머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대한 어둠 속으로 깊이 빠져들었다. 그 오랜 시간 동안 내가 느낀 것은 거의 없었다. 가벼운 느낌과 추위에서 오는 불편함, 그것뿐이었다.

하지만 이제 그 끔찍한 어둠이 내 영혼 속으로 기어 들어오는 것 같았다. 공포와 절망이 나를 가득 채웠다.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 나는 어디로 향하고 있는 것인가?

생각이 머리 속에 떠오르던 찰나, 나를 감싸고 있던 무형의 어둠에 희미한 붉은 기운이 스며들기 시작했다. 그것은 매우 멀리 떨어져 있는 듯, 안개처럼 희미했다. 그러나 동시에, 나를 짓누르던 압박감이 사라졌다. 나는 더 이상 절망하지 않았다.

천천히, 멀리서 보던 붉은 기운이 또렷해지고 거대해졌다. 더 가까이 다가갈수록 그 빛은 넓은 범위로 퍼져나갔다. 어둡고도 장엄한 광채였다.

나는 여전히 달렸다. 얼마 지나지 않아 나는 그 빛에 매우 가까워졌다. 그것은 마치 어둡고 붉은 거대한 바다처럼 내 아래로 펼쳐져 보였다. 나는 거의 아무것도 볼 수 없었다. 다만 그 빛이 모든 방향으로 끝없이 퍼져 나가는 것뿐이었다.

또 다른 공간에서 나는 그곳으로 내려가고 있었다. 곧, 나는 거대한 적색 구름의 바다로 가라앉았다. 천천히 구름을 빠져나온 뒤, 나는 아

래를 내려다보았다. 그곳에는 내가 이 집에서, 침묵의 경계에서 바라보았던 그 장엄한 평원이 펼쳐져 있었다.

곤장 발을 디뎠다. 고독이 가득한 광활한 땅 한가운데 서 있었다. 그곳은 어스름한 황혼빛에 잠겨 있었다. 그 빛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황폐함을 안겨주었다.

오른편 멀리, 하늘 속에서 거대한 둔한 붉은 불꽃 고리가 타오르고 있었다. 그 바깥 가장자리에서는 굵고 뒤틀린 불기둥이 치솟아, 날카롭게 찢르고 갈라지며 꿈틀거렸다. 고리 안쪽은 새까맣게 타들어 갔다. 바깥 밤의 어둠보다 더 깊은 검은색이었다. 나는 즉시 깨달았다. 이 기이한 태양이 이곳에 비추는 처량한 빛의 근원임을.

그 기이한 빛의 근원을 바라보던 나는 다시 주변을 둘러보았다. 어디를 봐도 끝없이 펼쳐진 평원의 지루한 광경뿐이었다. 생명체의 흔적은커녕, 고대 주거지의 폐허조차 찾아볼 수 없었다.

천천히, 나는 앞으로 밀려나고 있음을 깨달았다. 평평한 황무지 위를 부유하듯 이동하고 있었다. 영원히 이어질 것 같은 시간이 흐른 뒤에, 나는 계속 전진했다.

나는 조급함을 크게 느끼지 못했다. 다만 호기심과 거대한 경외감이 늘 함께했을 뿐이다.

항상 내 주변에는 그 거대한 평원의 광활함이 펼쳐져 있었다. 나는 그 단조로움을 깨뜨릴 새로운 무언가를 찾기 위해 항상 둘러보았지만, 변화는 없었다. 오직 고독과 침묵, 그리고 황량함만이 있을 뿐이었다.

얼마 후, 반쯤 의식이 흐려진 상태에서 나는 그 표면 위에 붉은빛을 띤 희미한 안개가 끼어 있는 것을 알아챘다. 그러나 더 자세히 들여다 봐도, 그것이 진짜 안개라고 단정할 수는 없었다. 오히려 그것은 평원과 섞여 있어 특이한 비현실감을 자아냈고, 오감에는 실체가 없는 허망한 느낌으로 다가왔다.

점점 그 단조로움에 지쳐갔다. 그러나 내가 실려 가고 있던 그 장소의 흔적을 알아채기까지는 아주 오랜 시간이 걸렸다.

처음에는 멀리서 그것을 보았다. 침묵의 평원 위에 길게 늘어진 언덕처럼 보였다.

더 가까이 다가갈수록, 내가 잘못 보았음을 깨달았다. 낮은 언덕이 아니었다. 거대한 산맥이 이어져 있었다. 멀리 떨어진 봉우리들은 붉은 어둠 속으로 우뚝 솟아올랐고, 시야에서 거의 사라져 버렸다.

III

아레나의 집

그리하여 시간이 흐른 뒤, 나는 산맥에 도착했다. 그러자 나의 여정 방향이 바뀌었고, 나는 산기슭을 따라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러다 어느 순간, 나는 거대한 균열이 산맥 속으로 열려 있는 것을 보았다. 나는 그 틈새를 통과해, 그리 빠르지 않은 속도로 이동했다. 내 양쪽에는 거대한 절벽이 수직으로 솟아올라 있었다. 바위와 같은 질감의 벽들이었다. 머리 위 멀리, 협곡 입구가 접근 불가능한 봉우리들 사이로 열려 있는 곳에는 얇은 붉은 띠가 보였다. 안쪽은 짙고 어두운 어둠과 차가운

침묵으로 가득했다. 나는 잠시 동안 꾸준히 앞으로 나아갔다. 그리고 마침내, 앞쪽에 깊은 붉은 빛이 비치는 것을 보았다. 그 빛은 내가 협곡의 반대쪽 출구에 가까워졌음을 알려주었다.

잠시가 지나고, 나는 협곡의 출구에 서서, 거대한 산들이 둘러싼 원형 극장 같은 풍경을 응시하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그 산들과 그곳의 끔찍할 정도로 장엄한 광경에는 눈길을 주지 않았다. 오히려 나는 몇 마일 떨어진 곳, 그 원형 극장 한가운데에 서 있는 놀라운 구조물을 발견하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그것은 녹색 옥으로 지어진 듯한 어마어마한 건축물이었다. 그러나 그 건물 자체의 발견이 나를 그토록 놀라게 한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점점 더 분명해지던 사실, 즉 이 외로운 구조물이 색깔과 거대한 크기 외에는 그 어떤 점에서도 내가 살고 있는 이 집과 다르지 않다는 사실이 나를 충격에 빠뜨렸다.

잠시 동안 나는 그 곳을 응시했다. 시선을 떼지 못한 채, 꿈쩍도 하지 않았다. 그때에도 나는 내가 제대로 보고 있다는 것을 믿기 어려웠다. 머릿속에서 한 가지 질문이 끊임없이 되풀이되었다. ‘이게 대체 무슨 뜻인가?’ ‘이게 무슨 뜻인가?’ 나는 답을 찾을 수 없었다. 상상력의 깊은 곳에서도 마찬가지였다. 나는 그저 경이로움과 두려움만 느끼고 있었다. 잠시 더 오래 그 곳을 바라보았다. 나를 끌어당기는 새로운 유사점이 계속 눈에 들어왔다. 마침내 지치고 혼란스러워진 나는 그 곳을 떠나, 내가 침입한 이상한 곳의 나머지 부분을 바라보았다.

지금까지 나는 그 집을 면밀히 살피는 데 너무 몰두해 있었기에, 주변은 그저 대충 훑어본 것뿐이었다. 이제야 비로소 나는 내가 어떤 곳

에 발을 들였는지 깨닫기 시작했다. 내가 ‘경기장’이라 이름 붙인 그 공간은 지름 약 10마일에서 12마일가량의 완벽한 원형이었으며, 앞서 말했듯 그 집은 정중앙에 자리 잡고 있었다. 그곳의 표면은 평원의 표면과 마찬가지로, 안개 같으면서도 안개는 아닌 묘한 모습을 띠고 있었다.

빠른 시선으로 주변을 둘러보며, 나는 시선을 돌려 빙 둘러선 산들의 경사면을 따라 위로 올려보았다. 그곳은 너무도 고요했다. 지금까지 내가 보거나 상상했던 어떤 것보다도, 이 끔찍할 정도로 정적인 침묵이 나에게 더 큰 고통을 안겨주었다 생각했다. 지금 나는 우뚝 솟은 거대한 암벽들을 올려다보고 있었다. 저 위에서는 희미한 붉은 기운이 모든 사물을 흐릿하게 만들어버렸다.

그러다 호기심에 가만히 응시하던 내게, 새로운 공포가 엄습해왔다. 오른편 위쪽 희미한 봉우리들 사이에서, 거인처럼 거대한 검은 형체가 보였기 때문이다. 그것은 점차 내 시야 속에서 또렷해졌다. 거대한 말머리에 장대한 귀를 지니고 있었고, 경기장을 한결같이 내려다보고 있는 듯했다. 그 자세에는 영원한 경계심이 서려 있었다. 알 수 없는 영겁의 세월 동안 그 음울한 장소를 지켜온 듯한 인상을 주었다. 천천히 그 괴물의 모습이 내 눈에 또렷이 들어왔다. 그러다 갑자기 내 시선은 그것에서 벗어나, 더 멀고 더 높은 절벽 위의 무언가로 튀어 올랐다. 한참 동안, 나는 두려움에 떨며 응시했다. 낯설지 않은 무언가를 묘하게 의식하게 되었다. 마치 마음 한구석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리는 듯했다. 그것은 검은색이었고, 네 개의 기괴한 팔을 가지고 있었다. 얼굴은 희미하게 보였고, 목 둘레에는 여러 개의 밝은색 물체가 보였다. 천천히

세부가 드러나자, 나는 차갑게 그것이 해골임을 깨달았다. 몸통 더 아래로는 또 다른 띠가 둘러져 있었는데, 검은 몸통에 비해 덜 어두워 보였다. 그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어 고민하던 순간, 한 가지 기억이 내 머릿속으로 스며들었고, 곧바로 나는 내가 힌두교의 죽음의 여신 칼리의 거대한 형상을 보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옛 학생 시절의 다른 기억들이 어렴풋이 머릿속을 스쳤다. 시선이 다시 그 거대한 짐승의 머리를 한 존재로 떨어졌다. 동시에 나는 그것이 고대 이집트의 신 세트, 혹은 세스, 즉 ‘영혼을 파괴하는 자’임을 알아차렸다. 그 깨달음과 함께 거대한 의문의 파도가 몰려왔다. ‘그중 둘이—!’ 나는 말을 멈추고 생각해보려 애썼다. 상상을 초월하는 것들이 내 공포에 질린 마음속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나는 흐릿하게나마 알아차렸다. ‘신화 속의 옛 신들이로구나!’ 나는 이 모든 것이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지 이해하려 애썼다. 시선은 두 존재 사이를 떨리며 오갔다. ‘만약—’

한 가지 생각이 번뜩 떠올랐고, 나는 몸을 돌려 왼쪽 멀리 어두운 절벽들을 빠르게 훑어보았다. 거대한 봉우리 아래에 무언가가 어렴풋이 모습을 드러냈다. 회색빛의 형체였다. 왜 진작 보지 못했을까 의아했지만, 곧 그쪽 부분을 아직 살펴본 적이 없었음을 떠올렸다. 이제 그것이 더 또렷이 보였다. 앞서 말했듯 그것은 회색이었다. 거대한 머리를 지니고 있었지만, 눈은 없었다. 얼굴의 그 부분은 텅 비어 있었다.

그제야 나는 산맥 너머에 다른 무언가가 있음을 보았다. 더 멀리, 높은 절벽 위에 누워 있는 것은 창백하고 불규칙한 괴물 같은 덩어리였

다. 그것은 형태를 갖추지 않은 듯했지만, 중간쯤에서 더러운 짐승의 얼굴이 끔찍하게 드러나 있었다.

그리고 나는 또 다른 것들을 보았다. 수백 마리가 넘었다. 그들은 그림자 속에서 자라나듯 나타났다. 몇몇은 거의 즉시 신화 속의 신들이라는 것을 알아챘다. 나머지는 낯설었다. 완전히 낯설었다. 인간의 정신으로는 상상할 수조차 없는 기이함이었다.

양옆을 둘러보았다. 볼수록 더 많은 것들이 보였다. 산들은 기이한 것들로 가득 차 있었다. 짐승의 신들이 있었고, 더럽고 야만적인 공포들이 산재해 있었다. 그것들은 너무도 추악해서, 가능성과 예의라는 관점에서는 더 이상 묘사하는 시도를 거부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나. 나는 압도적인 공포와 두려움, 그리고 혐오감으로 가득 찼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놀라움으로 가득 찼다. 정말로, 옛 이교도 숭배에는 어떤 진실이 있었던 것인가? 단순히 인간, 동물, 자연 요소를 신으로 격상시키는 것 이상의 무언가가?

그 생각은 나를 사로잡았다. 정말로 그런 것이 있었을까?

나중에는 한 가지 의문이 끊임없이 되풀이되었다. 저 ‘괴신(Beast-gods)’들과 그 밖의 존재들은 대체 무엇이였을까? 처음에는 그들이 그 저 주위 산맥의 접근 불가능한 봉우리들과 절벽 사이에 무작위로 배치된 조각상 같은 괴물들로 보였다. 그러나 더 집요하게 그들을 관찰하자, 나의 생각은 새로운 결론으로 뻗어 나가기 시작했다. 그들에게는 묘한 무언가가 있었다. 설명할 수 없는 고요한 생명력 같은 것이었다. 그것

은 넓어지는 나의 의식에 ‘죽음 속의 생명’이라는 상태를 시사했다. 그것은 우리가 이해하는 의미의 ‘생명’이 결코 아니었다. 오히려 비인간적인 형태의 존재 방식이었고, 죽지 않는 무아의 상태에 비유할 만한, 그들이 영원토록 그 상태로 지속될 수 있다고 상상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었다. ‘불멸!’이라는 단어가 내 생각 속에 억누를 수 없이 솟아올랐다. 그리고 곧이어, 이것이 바로 신들의 불멸성인지 궁금해졌다.

그때였다. 나는 여전히 신기함과 사색의 한가운데에 있었는데, 갑자기 어떤 일이 벌어졌다.

그때까지 나는 거대한 균열의 출구 그림자 가장자리에 머물러 있었다. 그러나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나는 반쯤 어두운 곳을 벗어나 서서히 경기장 안으로 밀려나기 시작했다. 그리고 집 쪽으로 이동하고 있었다.

그 순간, 나는 저 위에 있는 거대한 형체들에 대한 모든 생각을 내려놓았다. 오직 두려움에 떨며, 나를 무자비하게 끌고 가는 그 거대한 구조물만 응시했다.

하지만 나는 진지하게 그 집을 살폈다. 이미 본 것 외에는 아무것도 찾을 수 없었다. 그래서 나는 서서히 진정되기 시작했다.

그때 나는 집과 협곡 사이의 거리를 절반 이상 지나 온 뒤였다. 사방에는 그 곳 특유의 삭막한 고독과 끊이지 않는 침묵이 퍼져 있었다. 나는 꾸준히 그 거대한 건물 쪽으로 다가가고 있었다.

그러자 갑자기 시야에 무언가 들어왔다. 집의 거대한 받침벽 중 하나 너머로 모습을 드러내, 이내 온전히 시야에 들어온 것이다. 그것은 거대한 것이었고, 기묘한 뛰는 걸음으로 움직였다. 거의 인간처럼 두 발로 서서 걷는 듯한 자세였다.

그것은 전혀 옷을 입지 않았고, 특이하게도 빛을 발하는 듯한 모습을 하고 있었다. 하지만 나를 가장 끌어당기고 동시에 놀라게 한 것은 얼굴이었다. 그것은 돼지의 얼굴이었다.

나는 그 끔찍한 생물을 조용히, 그러나 집요하게 지켜보았고, 그 움직임에 대한 흥미에 잠시 동안 공포를 잊었다. 그것은 굼뜨게 건물 주위를 돌아다녔다. 각 창가에 다다를 때마다 멈추어 안을 들여다보거나, 창문을 보호하는 철창을 흔들었다. 이 집의 창문들처럼 그 창들도 철창으로 보호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문 앞에 다다를 때마다 문을 밀어보며, 손가락으로 잠금장치를 은밀하게 더듬어보곤 했다. 분명히 그것은 이 집 안으로 들어갈 입구를 찾고 있었다.

이제 나는 그 거대한 구조물에서 4분의 1마일도 채 떨어지지 않은 곳에 있었지만, 여전히 어쩔 수 없이 앞으로 끌려가고 있었다. 갑자기 그 존재가 방향을 틀어, 흥측한 눈길로 내 쪽을 응시했다. 입을 벌리자, 그 가증스러운 장소의 정적이 처음으로 깨졌다. 깊고 울림 있는 소리가 터져 나와, 내게 한층 더한 두려움의 전율을 안겼다. 그리고 즉시, 그것이 빠르고 조용히 나를 향해 다가오고 있음을 깨달았다. 순식간에 그것은 우리 사이 거리의 절반을 좁혔다. 그럼에도 나는 여전히 무력하게 그것과 마주치도록 끌려갔다. 단 백 야드만이 남았을 때, 그

거대한 얼굴의 야수적인 흥포함이 가차 없는 공포의 감각으로 나를 마비시켰다. 극에 달한 공포 속에서 나는 비명을 지를 수도 있었으리라. 그리고 바로 그 극한과 절망의 순간, 나는 빠르게 높아지는 고도에서 경기장을 내려다보고 있음을 깨달았다. 나는 상승하고 있었다, 상승하고 있었다.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짧은 시간 만에, 나는 수백 피트의 고도에 도달해 있었다. 아래쪽, 내가 방금 떠나온 자리에는 그 더러운 돼지 같은 존재가 있었다. 그것은 네 발로 엎드려, 진짜 돼지처럼 경기장 표면에서 코로 냄새를 맡으며 땅을 파헤치고 있었다. 잠시 후 그것은 일어서서 위를 향해 손을 뻗었다. 그 얼굴에는 이 세상에서 본 적 없는 갈망의 표정이 서려 있었다.

나는 끊임없이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갔다. 몇 분 정도 지나자, 나는 거대한 산맥들을 초월한 듯했다. 나는 홀로, 붉은 빛이 가득한 먼 곳으로 부유하고 있었다.

엄청나게 먼 아래쪽, 경기장은 희미하게 보였다. 거대한 집은 마치 작은 녹색 반점처럼 보였다. 돼지것은 더 이상 보이지 않았다.

곧 나는 산맥을 넘어, 광활한 평원 위를 지나갔다. 멀리 평원의 표면, 고리 모양의 태양이 있는 방향에서 흐릿한 형체 하나가 보였다. 나는 그쪽을 무심히 바라보았다. 그것은 내가 처음 그 산악 원형극장을 보았을 때의 모습을 어렴풋이 떠올리게 했다.

피로가 밀려올 때, 나는 거대한 불의 고리를 향해 고개를 들었다. 정말 기이한 광경이었다.

그때, 어둠의 중심에서 뜻밖에도 극도로 선명한 불꽃이 솟구쳤다. 검은 중심부에 비하면 그 불꽃은 아무것도 아니었지만, 그 자체로는 경이로울 만큼 위대했다. 흥미가 깨어난 나는 그 불꽃을 주의 깊게 지켜보았다. 기묘하게 끓어오르고 빛나는 모습을 관찰하며.

그러자 순식간에 전체가 흐릿해지고 허무한 것이 되었다. 이내 시야에서 사라졌다.

놀라움을 감추지 못한 채, 나는 아직 상승 중인 아래쪽 평원으로 시선을 내렸다. 또 다른 놀라움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평원은 사라져 있었다. 모든 것이 자취를 감췄고, 내 아래로는 붉은 안개의 바다만이 광활하게 펼쳐져 있었다.

그저 응시하고 있자, 그 붉은 안개는 점차 멀어졌다. 끝없는 밤하늘을 배경으로, 먼 곳의 흐릿한 붉은 신비 속으로 서서히 사그라졌다.

잠시 후, 그 붉은 안개조차도 사라졌다. 나는 감촉도, 빛도 없는 어둠에 휩싸였다.

IV

지구의 이야기

그때 나는 오직 한 가지 기억, 즉 과거에 한 번 어둠을 헤쳐나왔던 경험으로만 정신을 지킬 수 있었다. 긴 시간이 흘렀다. 세기들이 지나갔다.

그리고 마침내 한 개의 별이 어둠을 뚫고 모습을 드러냈다. 이 우주의 외곽 군집 중 하나에서 태어난 첫 별이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 별은 내 뒤로 멀리 사라졌고, 내 주변은 수없이 많은 별들의 광채로 가득 찼다.

수년 후, 나는 해를 보았다. 그것은 타오르는 불덩이처럼 보였다. 그 주변에는 몇 개의 희미한 빛점들이 보였다. 태양계의 행성들이었다.

그렇게 나는 다시 지구를 보았다. 푸르고 믿기 어려울 정도로 작았다. 지구는 점점 커졌고, 형태가 뚜렷해졌다.

오랜 시간이 흘러갔다. 그리고 마침내 나는 세계의 그림자 속으로 들어섰다. 어둡고 신성한 지구의 밤 속으로 머리를 먼저 내밀고 추락했다.

머리 위에는 옛 별자리들이 있었다. 초승달도 보였다.

그리고 지구의 표면에 가까워지자, 흐릿한 안개가 나를 덮쳤다. 나는 검은 안개 속으로 가라앉는 것 같았다.

잠시 동안 나는 아무것도 알지 못했다. 의식을 잃고 있었다. 점차 희미하고 먼 곳에서 우는 소리가 들려왔다. 소리는 점점 또렷해졌다. 절박한 고통이 나를 집어삼켰다. 나는 숨을 쉴 수 있게 안간힘을 썼고, 외치려 했다. 잠시 후, 숨이 좀 더 쉬워졌다. 무언가가 내 손을 잡고 있다는 것을 의식했다. 축축한 것이 내 얼굴을 스쳤다. 혈떡이는 소리가 들렸고, 다시 그 우는 소리가 들렸다. 그 소리는 이제 익숙한 느낌으로 내 귀에 다가왔다. 나는 눈을 떴다. 모든 것이 어두웠지만, 압박감은 사라

져 있었다. 나는 앉아 있었고, 무언가가 비통하게 울며 나를 핥고 있었다. 나는 이상하게 혼란스러웠고, 본능적으로 그 핥는 것을 막으려 했다. 내 머리는 묘하게 텅 비어 있었고, 잠시 동안 나는 행동하거나 생각할 능력이 없는 듯했다. 그러자 기억들이 돌아왔고, 나는 '폐퍼'라고 희미하게 불렀다. 기쁜 짓음과 다시 시작된 격렬한 애정 어린 반응으로 답을 들었다.

잠시 후, 나는 힘이 돌아오는 것을 느꼈다. 성냥을 찾기 위해 손을 뻗었다. 몇 초간 나는 맹목적으로 어둠을 더듬었다. 그러다 손끝이 성냥에 닿았고, 나는 불을 붙여 어리둥절하게 주변을 둘러보았다.

내 주변에는 낯익은 옛 물건들이 그대로 놓여 있었다. 나는 멍한 경이로움에 잠겨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성냥불이 손가락을 태우자 성냥을 떨어뜨렸다. 그때, 나는 본능적으로 고통과 분노를 담은 짧은 탄식을 내뿜었다. 그 소리가 내 목소리라는 사실에 나도 놀랐다.

잠시 후, 나는 또 다른 성냥을 켜 방 안을 더듬거리며 이동해 촛불을 켰다. 그 순간, 나는 이상한 사실을 깨달았다. 촛불은 타 없어지지 않았던 것이다. 오히려 일부러 꺼져 있었던 것이다.

불꽃이 치솟자, 나는 몸을 돌려 서재 안을 둘러보았다. 하지만 이상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갑자기 짜증이 치밀어 올랐다.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 나는 양손으로 머리를 감싸 쥐고, 기억을 더듬어 보려 했다. 아, 그 광활하고 고요한 평원과, 붉은 불꽃으로 된 고리 모양의 태양. 그들은 어디에 있었나? 나는 그곳을 어디서 본 적이 있었나? 얼마나 전의 일인가? 나는 현기증이 나서 머리가 혼란스러웠다. 한두 번,

나는 불안정한 걸음으로 방 안을 오갔다. 내 기억은 흐려져 있었고, 이미 내가 목격한 광경은 애써야만 다시 떠오르고 있었다.

나는 어이없어하며, 성내듯 저주를 내뱉었던 기억이 있다.

순간, 현기증과 어지러움이 몰려왔다. 나는 의지할 곳 없이 쓰러질 뻔했고, 간신히 식탁에 매달려 몸을 지탱했다. 몇 초 동안, 나는 약한 힘으로 그 식탁을 붙잡고 서 있었다. 그러다 옆으로 비틀거리며 의자까지 간신히 도달했다.

조금 시간이 흐른 뒤, 나는 조금 나아진 기분이 들었다. 그리고 평소 브랜디와 비스킷을 보관하던 찬장까지 도달하는 데 성공했다. 나는 자극이 되는 술을 잔에 조금 따라 마셨다. 그 후, 한 줌의 비스킷을 집어 들고 의자로 돌아갔다. 그리고 나는 굶주린 자처럼 그것들을 삼켰다.

나는 자신의 배고픔에 대해, 희미하게 놀랐다. 나는 수없이 긴 시간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은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먹는 동안 시선은 방 안을 두루 돌아다니며 구석구석을 살폈다. 보이지 않는 신비들, 나를 에워싼 불가해한 것들 속에서 무언가 확실한 것을 찾아내려 했다. 거의 무의식적으로, 손으로 잡을 수 있는 실체를 찾고 있었다.

‘분명히 무언가 있을 거야.’

그때, 시선은 반대편 구석에 걸린 시계 얼굴에 고정되었다. 나는 먹던 것을 멈추고 그저 응시했다. 시침은 자정을 조금 앞당기고 있었기

때문이다. 시계는 여전히 초침을 돌리며 규칙적으로 tick-tick 소리를 내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내가 앞서 묘사한 기이한 사건들을 목격한 때는 이미 자정을 훨씬 지나서였다는 것을.

잠시 동안 나는 놀라움과 의아함에 얼어붙었다. 시계를 마지막으로 봤을 때와 같은 시간이었다면, 시침과 분침이 제자리에 고정된 채 내부 기계장치만 돌아가고 있다고 결론 내렸을 것이다. 하지만 그렇다면 시계가 거꾸로 돌아간 현상은 전혀 설명되지 않는다.

그때, 지친 머릿속으로 이 문제를 곰곰이 생각하던 찰나, 한 생각이 번뜩였다. 지금이 이미 22일 아침에 다다랐다는 것, 그리고 지난 24시간 동안의 대부분을 나는 가시적인 세계와 단절된 채 의식을 잃고 있었다는 사실 말이다.

그 생각은 내 주의를 한 분 동안이나 사로잡았다. 그리고 나서 나는 다시 식사를 시작했다. 나는 여전히 배가 고팠다.

다음 날 아침, 식사를 하던 중 나는 누나에게 자연스럽게 날짜를 물어보았다. 나의 추측이 맞았다. 나는 정말로, 적어도 정신적으로는, 하루와 밤을 거의 모두 빠져 있었으니 말이다.

누나는 내게 아무 질문도 하지 않았다. 내가 책이나 작업에 몰두할 때면 하루 종일, 심하면 이틀씩이나 서재에 틀어박히는 것은 이미 낯선 일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나날이 흘러갔다. 나는 여전히 그 기억에 남은 밤에 목격한 모든 것의 의미를 알고 싶어 하는 경외감에 사로잡혀 있다. 그러나 나의 호기심이 채워지기 어려울 것임은 잘 알고 있다.

V

구덩이 속의 무언가

이 집은 앞서 말했듯이, 거대한 영지와 거칠고 경작되지 않은 정원에 둘러싸여 있다.

그 너머, 약 300야드 떨어진 뒤쪽에는 어둡고 깊은 협곡이 하나 있다. 농민들은 이를 ‘구덩이’라 부른다. 협곡 바닥에서는 느릿느릿한 시내가 흐르고 있는데, 나무들이 하늘을 가릴 정도로 무성해 위에서 내려다봐도 강물이 거의 보이지 않는다.

덧붙이자면, 이 강은 지하에서 발원하여 협곡 동쪽 끝에서 갑자기 모습을 드러냈다가, 서쪽 끝을 이루는 절벽 아래로 다시 순식간에 사라진다.

거대한 평원의 환영을(그것이 정말 환영이었다면) 본 지 몇 달이 지난 뒤, 나는 구덩이에 특히 주목하게 되었다.

어느 날, 나는 그 남쪽 가장자리를 걷고 있었다. 그러던 중, 내 바로 아래 절벽 면에서 바위와 세일 조각이 몇 개 떨어져 나무 사이를 뚫고 둔중한 굉음과 함께 떨어졌다. 나는 그것들이 바닥의 강에 침범 빠지는 소리를 들었고, 그리고 나서 정적이 찾아왔다. 폐폐가 즉시 사납게 짓

기 시작하지 않았다면, 그리고 내가 조용히 하라고 했을 때에도 침묵하지 않았다면, 나는 이 사건을 그냥 지나치는 일로 여겼을 것이다. 침묵하지 않는 것은 그의 평소 행동과는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다.

구덩이 안에 누군가, 혹은 무언가가 있을 것 같았다. 나는 집으로 돌아가 지팡이를 급히 챙겼다. 돌아왔을 때, 페퍼는 짓음을 멈추고 가장 자리를 따라 불안하게 으르렁거리며 냄새를 맡고 있었다.

그를 부르는 휘파람을 불며 뒤를 따르게 하고, 나는 조심스럽게 강을 시작했다. 구덩이 바닥까지의 깊이는 약 150피트쯤 되었을 것이다. 우리가 무사히 바닥에 닿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렸고, 각별한 주의가 필요했다.

내려온 뒤, 페퍼와 나는 강둑을 따라 탐험을 시작했다. 나무 가지들이 하늘을 덮고 있어 그곳은 매우 어두웠다. 나는 주위를 살피며, 지팡이를 손에 쥔 채 조심조심 발걸음을 옮겼다.

페퍼는 이제 조용했다. 그는 내 곁을 떠나지 않고 계속 내 옆에 붙어 있었다.

우리는 강 한쪽 기슭을 따라 끝까지 수색했다. 하지만 아무것도 듣지 못했고,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

그런 다음 우리는 강을 건넜다. 도약이라는 단순한 방법으로 말이다. 그리고 덤불을 헤치며 되돌아가기 시작했다.

우리가 아마 절반쯤 왔을 때였다. 다시 돌맹이가 떨어지는 소리가 다른 쪽, 우리가 막 지나온 쪽에서 들렸다. 커다란 바위 하나가 나뭇가지 사이를 뚫고 천둥처럼 굴러내려, 맞은편 강둑에 부딪힌 뒤 강물 속으로 튕겨 들어갔다. 거대한 물보라가 우리 위로 쏟아졌다.

페퍼가 깊게 으르렁거렸다. 그러곤 멈추고 귀를 쫓긋 세웠다. 나도 귀를 기울였다.

잠시 뒤, 남쪽 절벽 중간쯤 되는 나무 사이에서 거친 비명 같은 소리가 울려 퍼졌다. 반은 인간, 반은 돼지 같은 그 소리는 구덩이 밑바닥에서 비슷한 울음소리로 답장을 받았다.

페퍼가 짧고 날카로운 짖음소리를 지르더니, 작은 강을 건너가 곧바로 덤불 속으로 사라졌다.

곧이어 페퍼의 짖는 소리가 더 깊고 거칠게, 더 짚게 들려왔고, 그 사이사이로 어수선하게 떠들어대는 듯한 소리가 섞여 나왔다. 그 소리가 멎자, 이어지는 고요 속에서 반쯤 인간적인 고통의 비명이 울려 퍼졌다. 거의 곧바로 페퍼가 길게 늘어지는 고통의 울부짖음을 토했고, 곧이어 수풀이 격렬하게 흔들리더니 그가 꼬리를 내린 채 달려나왔다. 달리면서 그는 어깨 너머로 자꾸 뒤를 돌아보았다. 그가 내 곁에 다다랐을 때, 나는 그의 옆구리에서 큰 발톱 자국으로 보이는 상처에서 피가 흐르는 것을 보았다. 그 상처는 갈비뼈가 거의 드러날 정도로 깊었다.

페퍼가 이토록 찢긴 모습을 보자, 격렬한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나는 지팡이를 휘두르며 강을 뛰어넘어, 페퍼가 뛰쳐나왔던 그 덩굴 속으로 뛰어들었다. 길을 헤치고 나아갈 때, 숨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다음 순간, 나는 작은 빈터로 뛰어들었고, 마침 무언가가—창백한 흰 빛을 띤 무언가가—반대편 덩굴 사이로 사라지는 것을 보았다. 나는 큰 소리로 외치며 그쪽으로 달려갔지만, 지팡이로 덩굴을 치고 더듬어 보아도 더는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았다. 그리하여 나는 페퍼에게 돌아갔다. 강물에 상처를 찢긴 뒤, 젖은 손수건으로 그의 몸에 둘러 묶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협곡을 따라 올라가 다시 햇빛 속으로 돌아왔다.

집에 도착하자, 여동생이 페퍼가 어떻게 됐는지 물었다. 나는 그가 야생 고양이와 싸웠다고 말했다. 근처에 그런 고양이들이 여러 마리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이다.

그녀에게 그 일이 실제로 어떻게 일어났는지 말하지 않는 편이 낫겠다고 생각했다. 솔직히 말해 나 자신도 그것을 정확히 알지 못했다. 하지만 한 가지만은 분명했다. 내가 덩굴 속으로 도망치는 것을 본 그 존재는 야생 고양이가 아니었다. 그것은 너무 컸고, 내가 본 바로는 돼지가죽 같은 피부였다. 다만 색은 죽은 듯한 병적인 흰색이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그것은 뒷발로 곧추서서, 혹은 거의 그런 자세로 달렸으며, 그 움직임은 인간의 그것과 어딘가 닮아 있었다. 그 짧은 순간에 내가 눈으로 확인한 것은 이 정도였다. 하지만 솔직히 말하자면, 그 일을 머릿속에서 되짚어 보며 호기심뿐 아니라 적잖은 불안감도 느꼈다.

위 사건은 아침에 일어났다.

그때는 이미 저녁 식사 후였다. 나는 책에 흠뻑 빠져 있었는데, 문득 고개를 들어 창밖을 보았다. 창틀 너머로 무언가가 엿보고 있었다. 눈과 귀만 살짝 드러난 채로.

"맙소사, 돼지잖아!" 나는 그렇게 말하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제야 나는 그 존재를 좀 더 온전히 볼 수 있었다. 하지만 그것은 돼지가 아니었다—그게 무엇인지는 오직 신만이 아실 일이었다. 그것은 거대한 원형 경기장에 출몰하던 그 끔찍한 존재를 어렴풋이 떠올리게 했다. 입과 턱은 기괴하게도 인간의 그것이었지만, 이렇다 할 턱은 없다시피 했다. 코는 길게 늘어져 주둥이를 이루었고, 작은 눈과 기묘한 귀와 어우러져 그 얼굴에 유난히 돼지 같은 인상을 부여했다. 이마는 거의 없었고, 얼굴 전체가 병적인 흰빛을 띠고 있었다.

나는 약 1분 동안 그 존재를 바라보며 점점 더 커지는 혐오감과 일말의 공포를 느꼈다. 그 입은 멍청하게 끊임없이 지껄었고, 한 번은 반쯤 돼지 같은 꿀꿀거리는 소리를 내기도 했다. 무엇보다 나를 사로잡은 것은 그 눈이었던 것 같다. 그 눈은 때때로 끔찍하리만치 인간적인 지성으로 빛났고, 마치 내 시선이 거슬리는 듯 내 얼굴에서 자꾸 비껴 방 안의 이런저런 사물들을 훑어 댔다.

그것은 두 개의 발톱 같은 손으로 창턱을 짚고 서 있는 듯했다. 얼굴과는 달리, 이 발톱들은 진흙빛 갈색을 띠고 있었다. 네 개의 손가락과 엄지손가락을 지녔다는 점에서 인간과 어렴풋이 닮았지만, 그 손가락들은 첫 마디까지 물갈퀴처럼 이어져 있어 오리 발과 흡사했다. 손톱도

있었으나, 너무 길고 강력해 다른 어떤 것보다 독수리의 발톱에 가까웠다.

내가 말했듯, 나는 일종의 공포를 느꼈다. 비록 그 공포가 아주 추상적인 것이기는 했지만. 이 감정을 더 잘 설명하자면, 그것은 혐오감에 가까웠다. 초자연적으로 더러운 무언가, 신성하지 않은 무언가, 아직까지 꿈에도 생각지 못했던 차원의 존재에 직면했을 때 느끼는 그런 혐오감이었다.

그 야수의 여러 가지 형상을 당시에는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 나중에야 그것들이 마치 내 뇌리에 새겨진 듯 하나둘 떠올랐다. 그 괴물을 바라볼 때, 나는 본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상상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서 물질적인 디테일들이 하나둘 내게 다가왔다.

나는 약 1분 동안 그 괴물을 응시했다. 그러다 신경이 조금 가라앉자, 나를 사로잡았던 막연한 불안을 떨쳐내고 창문 쪽으로 한 발짝 내딛었다. 바로 그 순간, 그 존재는 고개를 숙이며 사라졌다. 나는 문으로 달려가 급히 주변을 둘러보았지만, 내 시야에 들어온 것은 엉킨 덩불과 관목들뿐이었다.

나는 집 안으로 다시 뛰어들어가 총을 챙겨 들고 정원을 뒤져보기로 했다. 걸어가면서 나는 방금 본 것이 아침에 잠깐 보았던 것과 같은 것일까 생각했다. 나는 그것이 같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나는 페퍼를 데려가려 했다. 하지만 그의 상처가 낫기를 기다리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았다. 게다가 내가 방금 목격한 괴물이 아침에 그를

공격한 그 존재와 동일하다면, 그는 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 분명했다.

나는 체계적으로 수색을 시작했다. 만약 가능했다면, 나는 그 돼지 것을 찾아내어 그 존재를 끝장내기로 결심했다. 적어도 그것은 물질적인 공포였다.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수색했다. 페퍼의 상처가 마음속에서 떠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고, 광활하고 적막한 정원에 살아 있는 기척이라곤 조금도 보이지 않자, 나는 점점 덜 초조해졌다. 오히려 그 존재의 모습을 차라리 보고 싶다는 생각마저 들었다. 내가 지나가는 모든 수풀 속에 그 괴물이 숨어 있을지 모른다는 끊임없는 불안 속의 이 침묵보다는, 차라리 무엇이든 나아 보였다. 나중에는 위험 따위에 무신경해져서, 총신으로 더듬으며 아예 덩불 속으로 곧장 뛰어든 정도가 되었다.

때로는 나는 외쳤다. 하지만 답은 오직 메아리뿐이었다. 나는 그 짐승이 모습을 드러내도록 놀라게 하거나 자극할 수 있으리라 생각했다. 하지만 결과는 내 동생 메리가 밖으로 나와 무슨 일인지 묻는 것뿐이었다.

나는 그 고양이와 같은 야수, 즉 페퍼를 다치게 한 짐승을 보았다고 말했다. 그리고 그 짐승을 덩불 속에서 쫓아내려 한다고 했다. 그녀는 반쯤 만족한 듯했지만, 얼굴에는 의구심이 서려 있었다. 그녀는 집 안으로 돌아갔다.

그녀가 무언가를 보았거나, 혹은 짐작이라도 했을까? 나는 의아해했다. 오후의 나머지 시간 동안, 나는 그 짐승을 찾아 나서야 했다. 그 야수 같은 존재가 덩불을 배회하고 있는 한, 나는 잠들 수 없을 것 같았다. 하지만 해가 지자, 나는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

그때, 집으로 돌아가려던 나는 오른쪽 덩불 사이에서 짹고 이해할 수 없는 소리를 들었다. 나는 즉시 몸을 돌렸고, 소리가 난 방향으로 빠르게 조준하여 발사했다. 곧이어, 무언가가 덩불 사이를 빠르게 도망가는 소리가 들렸다. 그것은 빠르게 움직였고, 일 분도 되지 않아 들리지 않을 만큼 멀리 사라졌다.

나는 몇 걸음 더 쫓았지만, 곧 멈췄다. 어둠이 빠르게 내려앉은 상황에서 쫓는 것이 얼마나 무의미한지 깨달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묘한 우울감을 안고 집 안으로 들어섰다.

그날 밤, 여동생이 잠자리에 든 뒤 나는 1층의 모든 창문과 문을 두루 살폈다. 단단히 잠겼는지 확인했다. 이 조치는 창문에는 거의 필요 없었다. 하층의 모든 창문은 이미 튼튼한 창살로 단단히 막혀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문들은 달랐다. 문이 다섯 개 있었는데, 그중 단 하나도 잠겨 있지 않았다. 그래서 문들을 확인한 것은 현명한 판단이었다.

그것들을 챙긴 뒤, 나는 서재로 향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번만큼은 그 공간이 나를 당황스럽게 했다. 그곳이 유난히 거대하고 메아리가 울리는 듯 느껴졌기 때문이다.

나는 잠시 동안 책을 읽으려 애썼다. 하지만 결국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고, 나는 책을 들고 부엌으로 내려갔다. 부엌에는 커다란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었다. 나는 그곳에 앉아 불을 바라보았다.

몇 시간째 책을 읽고 있었을 때였다. 문득, 책을 내려놓고 귀를 기울이게 만드는 소리가 들렸다. 뒷문 너머에서 무언가가 굼히고 더듬거리는 소리였다. 문이 한 번, 크게 삐걱거렸다. 누군가 힘을 주어 문을 밀고 있는 듯한 소리가 났다.

그 짧은 순간들 동안, 나는 설명할 수 없는 공포를 느꼈다. 그런 공포가 존재할 수 있다고는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었다. 손이 떨리기 시작했고, 식은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렀다. 몸이 심하게 떨려 왔다.

점점 마음이 가라앉았다. 밖에서 은밀히 움직이던 소리가 멈췄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는 한 시간 동안 말없이, 경계하며 앉아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공포심이 다시 나를 덮쳤다. 뱀의 눈빛 아래 놓인 동물이 느끼는 그 두려움과도 같은 것이었다.

하지만 지금 내 귀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래도 의심할 여지는 없었다. 어떤 설명할 수 없는 힘이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점점, 거의 눈치챌 수 없을 정도로 무언가 내 귀에 스며들었다. 그 소리는 희미한 웅웅거림으로 정리되었다. 그것은 빠르게 발전하여, 숨 막히는 듯하지만 끔찍한 야수의 비명들의 합창으로 자라났다. 그것은 지구의 내장에서 올라오는 것 같았다.

'쿵' 하는 소리가 났다. 내가 책을 떨어뜨렸다는 사실을 흐릿하고 반쯤 이해된 상태로 깨달았다. 그 후로 나는 그저 앉아 있었다. 그리고 그렇게, 거대한 부엌의 창살 달린 높은 창문 너머로 햇빛이 창백하게 기어들어왔을 때에도, 나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새벽 빛이 비치자, 멍하고 두려웠던 기운이 나에게서 물러갔다. 나는 차츰 정신을 되찾았다.

그리하여 나는 책을 집어 들고, 귀를 기울이며 문가까지 살금살금 다가갔다. 차가운 침묵을 깨는 소리는 아무것도 없었다. 몇 분간 그곳에서 있다가, 매우 천천히 그리고 조심스럽게 빗장을 풀고 문을 열어 살짝 밖을 내다보았다.

내 경계는 불필요한 것이었다. 보이는 것이라곤, 쓸쓸하고 엉킨 덩불과 나무들이 멀리 농장까지 회색빛 풍경으로 이어진 광경뿐이었다.

전율이 일었다. 나는 문을 닫고, 조용히 발걸음을 옮겨 침실로 올라갔다.

여섯

돼지것들

일주일 뒤, 해가 저물 무렵이었다. 자매는 정원에 앉아 뜨개질을 하고 있었다. 나는 거닐며 책을 읽고 있었다. 총은 집 벽에 기대어 놓았다. 정원에 그 기묘한 것이 나타난 이후로, 나는 안전을 위해 경계를 게을리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주일 내내, 눈으로 보거나 귀로 듣는 이상한 일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래서 나는 그 사건을 차분히 되돌아볼 수 있었다. 여전히 해명되지 않는 경외감과 호기심은 남았지만, 마음은 평온했다.

앞서 말했듯, 나는 책에 어느 정도 빠진 채 이리저리 거닐고 있었다.

갑자기 구덩이 쪽에서 굉음이 들렸다.

나는 재빨리 고개를 돌렸다. 저녁 공기로 치솟는 거대한 먼지 기둥이 시야에 들어왔다.

내 여동생이 놀람과 공포를 담은 날카로운 외침과 함께 자리에서 일어섰다.

여동생에게 그 자리에 그대로 있으라고 일러놓고, 나는 총을 집어 들고 구덩이 쪽으로 달렸다. 구덩이에 가까워지자, 둔탁하고 우렁우렁 구르는 소리가 들렸다. 그 소리는 금세 포효로 커졌고, 사이사이 더 깊은 굉음이 끼어들었다. 구덩이에서는 새로운 먼지 더미가 한바탕 치솟아 올랐다.

소음은 그쳤지만, 먼지는 여전히 격렬하게 치솟고 있었다.

나는 가장자리에 다가가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하지만 볼 수 있는 것은 없었다. 먼지 구름이 여기저기 소용돌이치는 것 외에는. 공기는 작은 입자들로 가득 차서, 나를 눈이 멀게 하고 숨이 막히게 했다. 결국, 나는 숨을 쉬기 위해 그 숨 막힘에서 벗어나 달아나야 했다.

서서히 부유하던 물질이 가라앉았다. 그리고 그것은 구덩이 입구를 온통 감싸는 갑옷처럼 매달렸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나는 그저 짐작할 뿐이었다.

어딘가에서 지반이 무너진 것은 분명했다. 나는 그 사실을 거의 의심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원인은 나의 지식 범위를 벗어났다. 그럼에도 그때 이미 내 머릿속에는 반쯤 떠오르는 상상이 있었다. 떨어지는 바위들과 구덩이 바닥에 있던 그 ‘무언가’에 대한 생각이 이미 떠올랐기 때문이다. 하지만 혼란스러운 첫 순간, 나는 그 참사가 가리키는 자연스러운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

먼지가 천천히 가라앉았다. 잠시 후, 나는 가장자리로 다가가 아래를 내려다볼 수 있었다.

잠시 동안 나는 무력하게 그 자욱한 먼지를 뚫고 보려 애썼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분간할 수 없었다. 그러나 응시하는 사이, 내 왼쪽 아래에서 무언가 움직이는 것이 보였다. 나는 그것을 향해 집중해서 바라보았다. 곧이어 또 다른 것이, 그리고 또 다른 것이 드러났다. 세 개의 흐릿한 형체가 구덩이 옆면을 기어 오르는 듯했다. 나는 그것들을 선명하게 볼 수 없었다.

그때, 내 오른쪽 어딘가에서 돌이 굴러떨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고개를 돌려 그쪽을 바라보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나는 몸을 앞으로 기울여, 내가 서 있는 바로 아래 구덩이 안을 내려다보았다. 그러나 내 눈앞에 나타난 것은, 내 발에서 두어 야드 안까지 올라온, 끔찍하고 하얀 돼지 같은 얼굴 하나뿐이었다. 그 아래에는 또 다른 것들이 몇몇 분간되었다.

그 ‘것’이 나를 발견하자, 갑작스럽고 거친 비명을 질렀고, 그 소리에 구덩이 곳곳에서 응답하는 울음이 터져 나왔다. 순간, 공포와 두려움의 돌풍이 나를 덮쳤다. 나는 몸을 굽혀 그 얼굴 한복판에 총을 발사했다. 곧이어 그 생물은 흡과 돌이 우르르 무너져 내리는 소리와 함께 사라졌다.

순간, 침묵이 흘렀다. 그 침묵이 내 목숨을 구해 주었을 것이다. 그 사이, 나는 많은 발이 빠르게 종종거리는 소리를 들었다. 그리고 급히 몸을 돌려 보니, 그 생물 무리가 달음박질치며 내게로 다가오고 있었다. 나는 즉각 총을 들어 가장 앞에 있던 놈에게 발사했다. 그놈은 끔찍한 비명을 지르며 머리부터 거꾸러졌다.

그리고 나는 도망치기 시작했다. 집과 구덩이 사이를 절반 이상 달려왔을 때, 나는 여동생을 보았다. 그녀가 내게로 다가오고 있었다. 어둠이 내려 그녀의 얼굴은 선명하게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왜 총을 쏘느냐고 묻는 그녀의 목소리에는 공포가 담겨 있었다.

‘달려!’ 내가 외쳤다. ‘목숨을 걸고 도망쳐!’

더 이상 망설이지 않고, 그녀는 몸을 돌려 도망쳤다. 두 손으로 치맛자락을 잡은 채였다. 내가 그녀를 따라가며 뒤를 돌아보았다. 그 야수들은 때로는 뒷발로 뛰었고, 때로는 네 발로 내려앉았다.

내 목소리에 담긴 공포가 메리를 그렇게 달리게 만들었을 것이다. 나는 확신한다. 그녀가 아직 그 지옥의 생물들을 보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는 계속 나아갔다. 여동생이 앞장섰다.

발소리는 점점 가까워졌다. 그 짐승들이 우리를 빠르게 따라잡고 있다는 사실을 매 순간 깨닫게 했다. 다행히 나는 어떤 면에서는 활동적인 생활에 익숙한 편이었다. 그렇더라도 이 달리기의 부담이 내게 혹독한 타격을 주기 시작했다.

앞쪽에 뒷문이 보였다. 다행히 문은 열려 있었다. 나는 이제 메리보다 대여섯 야드 뒤처져 있었고, 목구멍에서는 숨소리가 흐느낌처럼 새어 나오고 있었다.

그때, 내 어깨에 무언가가 닿았다. 나는 머리를 재빨리 돌려 보았고, 내 얼굴 바로 곁에 기괴하고 창백한 그 얼굴 하나가 있는 것을 보았다. 생물 가운데 하나가 동료들을 앞질러 거의 나를 따라잡은 것이다.

내가 몸을 돌리는 순간, 그놈은 또다시 덤벼들었다. 나는 순간적인 힘으로 몸을 옆으로 피했고, 충신 부분을 잡고 휘둘러 그 더러운 생물의 머리 위로 내리쳤다. 그것은 거의 인간의 신음 같은 소리를 내며 쓰러졌다.

이 짧은 지연만으로도, 나머지 짐승들이 내게로 달려올 뻔했다. 그래서 나는 시간을 한 순간도 허비하지 않고, 몸을 돌려 문 쪽으로 달리기 시작했다.

그곳에 다다르자, 나는 복도로 뛰어들었다. 곧장 뒤를 돌아보며 문을 닫고 빗장을 걸었다. 첫 번째 괴물이 문에 부딪히는 순간이었다. 거친 충격이 문 너머로 전해졌다.

동생은 의자에 주저앉아 헐떡이고 있었다. 기절할 듯 위태로운 모습이었다. 하지만 그때 내게 그녀를 돌볼 시간은 없었다. 나는 모든 문이 단단히 잠겨 있는지 확인해야 했다. 다행히 문들은 모두 잠겨 있었다.

서재에서 정원으로 통하는 문이 내가 마지막으로 확인한 곳이었다. 그 문이 단단히 고정되어 있음을 눈으로 확인하자마자, 나는 밖에서 소리가 나는 것을 들었다. 나는 움직이지도 숨도 쉬지 않는 듯이 고요히 서서 귀를 기울였다.

맞다. 이제 나는 분명히 속삭임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그리고 무언가가 판자 너머로 기어오르는, 거칠고 거친 긁는 소리가 들렸다. 분명히 저 짐승들이 발톱손으로 문을 더듬으며, 집 안으로 들어올 구멍이 있는지 확인하고 있었다.

그 생물들이 그렇게 빨리 문을 찾아냈다는 사실은, 나에게 있어 그들의 추론 능력을 입증하는 것이었다. 나는 그들을 단순한 동물로 여겨서는 안 된다는 확신을 얻었다. 나는 이미 그 첫 번째 ‘무언가’가 내 창문을 통해 들여다보았을 때, 비슷한 감정을 느낀 바 있었다. 그때 나는

그것에게 초인적인 것이라고 불렀다. 그것은 짐승과는 다른 무엇이라는 직관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 그것은 인간을 초월한 것이었지만, 결코 선한 의미에서가 아니라, 인간이 지닌 ‘위대함’과 ‘선함’에 대해 역겨운 적대감을 가진 존재라는 의미였다. 한마디로, 그것은 지능을 지니고 있었지만, 인간적이지 않았다. 그 생물들에 대한 생각만으로도 나는 혐오감에 사로잡혔다.

그제야 나는 여동생을 떠올렸다. 찬장 쪽으로 가서 브랜디 플라스크와 와인잔을 꺼냈다. 그것들을 들고, 불 켜진 촛불 하나를 손에 든 채 부엌으로 내려갔다.

그녀는 의자에 앉아 있지 않았다. 의자에서 떨어져 바닥에 엎드린 채 누워 있었다.

나는 아주 조심스럽게 그녀의 몸을 뒤집어, 머리를 약간 들어 올렸다. 그리고 브랜디를 몇 방울 입술 사이로 흘려 넣었다. 잠시 후, 그녀가 살짝 떨렸다. 그 뒤로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는 몇 차례 숨을 헐떡이며 눈을 떴다. 몽롱하고 현실감을 잃은 표정으로, 그녀는 나를 바라보았다. 그러자 그녀의 눈꺼풀이 천천히 내려앉았고, 나는 브랜디를 조금 더 주었다. 잠시 더, 그녀는 조용히 누워 숨을 빠르게 쉬었다.

그런데 갑자기, 그녀의 눈이 다시 떴다. 내가 바라본 순간, 동공이 확장되어 있는 것이 보였다. 마치 돌아온 의식과 함께 공포가 찾아온 것처럼 보였다. 그리고는, 나를 깜짝 놀라게 할 만큼 예상치 못한 동작으로, 그녀는 벌떡 일어났다. 그녀가 어지러운 기색이 보이는 것을 보

고, 나는 그녀를 부축하려고 손을 내밀었다. 그러자 그녀는 큰 비명을 지르며, 바닥을 기어 일어서 방을 뛰쳐나갔다.

잠시 동안, 나는 그 자리에 그대로 무릎을 꿇은 채 브랜디 플라스크를 손에 쥐고 있었다. 나는 완전히 당황했고, 놀라움에 사로잡혔다.

그녀가 나를 무서워하는 걸까? 아니, 그럴 리가! 왜 무서워해야 하지? 나는 그녀가 신경이 몹시 흔들려서 잠시 정신이 혼미해진 거라고 결론 내릴 수밖에 없었다.

위층에서 문이 세게 닫히는 소리가 났다. 그녀가 자신의 방으로 피신했다는 뜻이었다.

나는 플라스크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다. 그때 뒷문 쪽에서 들려온 소리가 내 주의를 끌었다. 나는 그쪽으로 다가가 귀를 기울였다.

마치 그 생물 몇 마리가 조용히 문과 씨름하며 흔드는 듯했다. 그러나 문은 매우 튼튼하게 만들어졌고 단단히 달려 있어 쉽게 움직일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

정원에서 끊임없는 소음이 들려왔다. 지나가는 이라면 돼지 떼의 코를 끄는 소리와 돼지들의 비명으로 오해했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그곳에 서서 그 돼지 같은 소음들 속에 의미와 뜻이 담겨 있음을 깨달았다. 나는 그 소리가 인간의 말과 비슷한 형태를 띠고 있음을 점차 파악해 갔다. 각 음절이 힘겹게 발음되는 것처럼 끈적하고

걸쭉했다. 그럼에도 나는 이것이 단순한 소음의 혼돈이 아니며, 빠르게 오가는 아이디어의 교환임을 확신하게 되었다.

하지만 점차 그 소리들은 내 신경을 자극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수준이었다. 비겁한 나를 징벌하듯, 나는 지하실을 한 바퀴 더 돌기로 했다. 만약 무언가 있다면, 그것과 맞서기로 했다.

그리고는 내 서재로 올라갔다. 잠을 청할 수 없음을 알았기 때문이다. 집은 반은 짐승이고, 반은 알 수 없는 무엇인가로 이루어진 존재들에 둘러싸여 있었다. 그들은 완전히 불경한 존재들이었다.

주방 등불을 고리에서 내려 손에 든 나는 지하실을 한 층 한층 내려갔다. 방에서 방으로, 식량 창고와 석탄 구덩이를 지나 복도를 따라 걸었다. 낡은 집 지하실을 이루는 수백 개의 좁은 골목과 숨겨진 구석구석을 모두 훑었다.

내가 충분히 큰 물체 하나라도 숨길 만한 모든 틈새와 구석구석을 다 확인했다고 확신했을 때, 나는 다시 계단 쪽으로 향했다.

발걸음을 첫 계단에 올렸다. 멈칫했다. 소리가 들렸다. 분명히 움직이는 소리였다. 어디선가, 계단 왼쪽에 있는 부엌 창고 쪽에서 나는 소리였다.

나는 그곳을 처음부터 샅샅이 뒤졌었다. 하지만 귀가 속이지 않았다. 는 확신이 들었다. 신경이 날카롭게 긴장되어 있었다. 망설임 없이 문 쪽으로 다가가, 등불을 머리 위로 높이 들었다.

한눈에 훑어보았다. 방은 텅 비어 있었다. 벽돌 기둥 위에 올려진 무거운 석판들만이 있을 뿐이었다. 내가 착각했음을 깨달았다. 돌아서서 떠나려던 찰나, 창문 너머 높은 곳에서 두 개의 빛나는 점이 내 등불을 반사했다.

몇 초 동안 그 자리에 서서 응시했다. 그것들이 움직였다. 천천히 회전하며, 초록빛과 붉은 빛을 번갈아 발산했다. 적어도 내 눈에는 그렇게 보였다. 그제야 알았다. 그것은 눈이라는 것을.

천천히, 나는 그 존재들 중 하나의 흐릿한 윤곽을 더듬어 따라갔다. 그것은 창문의 쇠창살을 붙잡고 있는 듯했고, 자세로 보아 기어오르려는 모양새였다. 나는 창문에 더 가까이 다가가 등불을 더 높이 들어 올렸다. 그 괴물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었다. 쇠창살은 튼튼했고, 그것이 쇠창살을 움직일 수 있을 가능성은 거의 없었다. 그런데도 그 짐승이 나에게 해를 끼칠 수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일주일 전 그 밤에 나를 덮쳤던 끔찍한 공포의 감각이 다시 찾아왔다. 무력하고 전율하는 동일한 공포의 느낌이었다. 나는 흐릿하게 깨달았다—그 괴물의 눈이 나를 향해 흔들림 없이 강요하는 시선으로 응시하고 있다는 것을. 나는 고개를 돌리려 했지만, 할 수 없었다. 이제 나는 안개 너머로 창문을 보는 것 같았다. 그러자 다른 눈들이 와서 엿보고, 또 다른 눈들이 이어졌다. 결국 악의에 찬 수많은 눈동자들의 은하수가 나를 속박하는 것 같았다.

머리가 어지러워졌다. 심하게 쑤셨다. 그러자 왼쪽 손에서 날카로운 통증이 느껴졌다. 아픔은 점점 심해져, 말 그대로 내 주의를 강제로 끌

어당졌다. 간신히 힘을 모아 고개를 숙여 내려다보았다. 그 순간, 나를 사로잡고 있던 마법이 끊어졌다.

허둥대던 마음에 나도 모르게 뜨거운 램프 유리를 쥐고 있었음을 깨달았다. 손은 심하게 화상을 입었다. 다시 창문을 바라보았다. 흐릿하던 형체는 사라져 있었다. 대신 창문에는 수없이 많은 짐승 같은 얼굴들이 뻣뻣이 들어차 있었다.

갑작스러운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나는 램프를 들어 창문을 향해 힘껏 던졌다. 램프는 유리창을 깨뜨리고 두 개의 쇠창살 사이를 통과해 정원으로 날아갔으며, 그 와중에 타는 기름이 사방으로 흩어졌다.

몇몇 생물들이 고통에 찬 큰 비명을 지르는 소리가 들렸다. 시야가 어둠에 익숙해지자, 그 생물들이 창문에서 물러났음을 알 수 있었다.

나는 정신을 가다듬으며 문손잡이를 더듬었다. 문을 찾자마자 계단을 올랐다. 한 걸음 한 걸음마다 발을 헛디뎠다. 머리를 강타당한 듯 어지러웠다. 손바닥은 타올랐다. 그 돼지것들에 대한 신경질적인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나는 서재에 도착해 양초에 불을 붙였다.

촛불이 타오르자, 벽면에 걸린 총기 선반에서 빛이 반사되었다. 그 모습을 본 순간, 나는 그곳에 강력한 무기가 있다는 사실을 떠올렸다. 앞서 실험해 본 바에 따르면, 그 무기는 평범한 동물은 물론, 저 괴물들에게도 치명적인 것으로 보였다. 나는 이제 공격을 결심했다.

우선, 나는 손을 감았다. 통증이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커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 후로는 상황이 좀 나아 보였다. 나는 방을 가로질러 소총 거치대로 향했다. 거기서 나는 목직하고 오래된, 하지만 검증된 신뢰할 만한 소총 하나를 골랐다. 탄약도 챙긴 뒤, 나는 집 꼭대기를 장식하는 작은 탑들 중 하나로 올라갔다.

그곳에서 나는 아무것도 볼 수 없었다. 정원은 그저 그림자들의 흐릿한 얼룩처럼 보였고, 나무들이 서 있는 곳이 아마 조금 더 검게 보일 뿐이었다. 그게 전부였다. 나는 그 어둠 속으로 총을 쏘는 것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알았다. 해야 할 일은 달이 떠오를 때까지 기다리는 것뿐이었다. 그러면 조금이라도 차단해 볼 수 있을지 모를 일이었다.

그사이 나는 꿈쩍도 하지 않고 앉아 귀를 기울였다. 정원은 비교적 고요해져 있었다. 가끔 돼지것들이 내뿜는 코웃음이나 비명 소리만 들려올 뿐이었다. 나는 이 침묵이 싫었다. 저들이 무슨 사악한 짓을 꾀하고 있는지 알 수 없었기 때문이다. 두 번이나 탑을 나와 집 안을 돌아다녔지만, 모든 것은 고요하기만 했다.

한때, 구덩이 방향에서 무언가 소리가 들렸다. 마치 더 많은 흙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소리였다. 그 뒤로, 약 십오 분 동안 정원의 주민들 사이에서 소동이 일어났다. 그 소동은 이내 잦아들었고, 그 후 다시 모든 것이 고요해졌다.

약 한 시간 후, 달빛이 먼 지평선 너머로 모습을 드러냈다. 내가 앉아 있는 곳에서는 나무들 너머로 달을 볼 수 있었지만, 아래 정원의 세부를 식별할 수 있게 된 것은 달이 나무들 위로 완전히 떠오른 뒤였다.

그때조차도 그 짐승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그러다 우연히 몸을 앞으로 내밀자, 몇 마리가 집 벽에 바싹 붙어 엎드려 있는 것이 눈에 들어왔다. 그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었다. 하지만 이는 놓쳐서는 안 될 좋은 기회였다. 나는 바로 아래에 있는 한 마리를 향해 조준하고 발사했다. 날카로운 비명이 울렸고, 연기가 걷히자 그것이 등을 돌려 약하게 몸부림치는 것이 보였다. 그러더니 잠잠해졌다. 나머지 짐승들은 사라져 있었다.

그 직후, 구덩이 방향으로 큰 비명 소리가 들렸다. 그 소리는 정원의 곳곳에서 백 배나 되는 숫자로 화답했다. 나는 그제야 이 생물들의 수가 얼마나 되는지 짐작할 수 있었고, 이 일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상황으로 변해가고 있음을 깨달았다.

나는 그곳에 앉아 침묵을 지키며 경계하고 있었다. 문득 이런 의문이 머릿속에 떠올랐다—이 모든 것은 도대체 왜 이러는가? 이 ‘것들’은 대체 무엇인가?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내 생각은 다시 한 번 그 광경, 즉 침묵의 평원에서 본 그 환상(아직도 그것이 과연 환상이었는지 의심스럽다)으로 돌아갔다. 그것은 무슨 의미였을까? 나는 궁금해졌다—그리고 투기장에서 본 그 ‘것’은 또 무엇이었나? 끔찍하다!

마지막으로, 나는 그 먼 곳에서 본 집을 떠올렸다. 외관의 모든 세부 구조가 이 집과 너무나도 닮아 있어, 저 집이 이 집을 본떠 만든 것인지, 아니면 이 집이 저 집을 본떠 만든 것인지 모를 정도였다. 나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다—

그때, 구덩이에서 또 한 번 길게 비명 같은 소리가 울려 퍼졌다. 1초 뒤, 짧고 날카로운 비명 두 개가 그 뒤를 이었다.

순간, 정원은 맞장구 치듯 울부짖는 소리로 가득 찼다.

나는 재빨리 자리에서 일어나 성벽 너머를 내다보았다.

달빛 아래, 관목 숲이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보였다.

강하고 불규칙한 바람이 몰아치는 듯, 식물들이 사방으로 흔들렸다.

이어지는 바스락거림과 발소리들이 아래로 들려왔다.

몇 번이나 달빛이 관목 사이를 달리는 하얀 형체들에 반사되는 것을 보았다.

두 번, 나는 총을 쏘았다.

두 번째 사격의 총성이 끝나자마자, 고통스러운 짧은 비명이 그 대답으로 돌아왔다.

1분 뒤, 정원은 고요에 잠겼다.

구덩이에서는 깊고 쉼 돼지들의 말소리가 바벨처럼 뒤섞여 울려 퍼졌다. 때때로 분노에 찬 비명이 공기를 찢었고, 거기에 수많은 꿀꿀거리는 소리들이 답하곤 했다.

그들이 무언가 회의를 열고 있는 듯했다—아마도 집 안으로 들어가는 문제에 대해 논의하고 있었을 것이다. 또한, 그들이 몹시 격분해 있는 것처럼 보였는데, 아마도 내 명중한 사격 때문이었으리라.

방어 태세를 최종 점검할 적절한 순간이 찾아왔다고 생각했다. 나는 즉시 그 작업을 시작했다. 다시 지하실 전체를 돌며 각 문을 하나하나 살폈다. 다행히 모든 문은 뒷문처럼 단단한 참나무에 철釘을 박아 만든 견고한 구조였다.

그리고는 1층 서재로 올라갔다. 나는 이 문에 대해 더 큰 불안감을 느꼈다. 다른 문들과 비교해 명백히 현대적인 양식이었다. 튼튼하게 만들어졌기는 했지만, 다른 문들이 지닌 묵직한 힘은 거의 느껴지지 않았다.

이 집 앞마당에는 약간 높게 조성된 잔디밭이 있다. 이 문은 바로 그 잔디밭으로 이어진다. 그래서 서재 창문에는 철창이 설치되어 있다. 이 문이 이쪽을 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른 모든 출입구는 지하실 층에 있다. 다만, 절대 열리지 않는 큰 대문은 제외한다.

일곱

공격

나는 서재 문을 어떻게 보강해야 할지 오랫동안 고민했다. 결국 부엌으로 내려가서 여러 개의 무거운 목재를 가져왔다. 이들을 바닥에서

대각선으로 밀착시켜 고정했고, 위아래로 못을 박아 단단히 고정했다. 약 반 시간 동안 열심히 작업한 끝에, 문이 제법 견고하게 보강되었다고 만족했다.

잠시 마음이 놓이자, 벗어두었던 코트를 다시 입었다. 탑으로 돌아가기 전, 손봐야 할 일들을 조금 처리해야 했다.

그때였다. 문 밖에서 무언가를 더듬는 소리가 들렸다. 문고리가 돌아가는 소리가 이어졌다.

나는 숨을 죽이고 기다렸다. 곧, 문밖에 여러 마리의 괴물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들은 서로에게 부드럽게 꿀꿀거리며 소통하고 있었다.

그리고 잠시 동안, 문밖은 고요해졌다.

순간, 짧고 낮게 꿀꿀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이어 문이 거대한 압력에 의해 빼겨거렸다. 만약 내가 설치해 둔 받침대들이 없었다면, 문은 안쪽으로 터져 나갔을 것이다.

압박은 시작되자마자 곧 사라졌다. 그리고 다시 수다스러운 소리가 들렸다.

곧이어 한 마리가 가느다란 비명을 지르며 울부짖었다. 이어 다른 것들이 다가오는 발소리가 들려왔다. 잠시 수군거림이 오가더니, 다시 고요함이 찾아왔다. 그들은 더 많은 동료를 불러모았다는 사실을 나는 깨달았다.

이제야말로 결정적인 순간이었다. 나는 소총을 겨누고 몸을 굳혔다. 문이 무너진다면, 적어도 가능한 한 많이 죽이리라.

다시 낮은 신호음이 울렸다. 그리고 한 번 더, 거대한 힘이 실린 듯 문이 삐걱거렸다. 아마 1분쯤 그 압력이 유지되었을 것이다. 나는 긴장된 심정으로 기다렸다. 언제든 문이 굉음과 함께 무너져 내릴 것 같았다. 그러나 문은 무너지지 않았다. 지주들이 버텼고, 그들의 시도는 실패로 끝났다. 그러자 다시 그들의 끔찍한, 꿀꿀거리는 듯한 대화 소리가 이어졌다. 그 소리가 이어지는 동안, 나는 새로운 도착자들의 소리가 섞여 들리는 것 같았다.

오랜 논쟁이 이어졌다. 문이 여러 차례 흔들렸다. 그러자 그들은 다시 고요해졌다. 나는 그들이 문을 부수려 세 번째 시도를 할 것임을 알았다. 절망에 가까웠다. 두 번의 공격으로 받침대들이 심하게 손상되었다. 이번에는 그들을 감당하지 못할까 봐 두려웠다.

그 순간, 천재일우의 영감처럼 한 생각이 내 혼란스러운 머리를 스쳤다. 주저할 시간이 없었다. 나는 즉시 방을 뛰쳐나갔고, 계단을 한 층 한 층 뛰어올랐다. 이번에는 탑 중 어느 곳으로 향하는 것이 아니었다. 나는 지붕의 납 덮개가 씌어진 평평한 옥상으로 나갔다. 그곳에 다 다르자, 나는 바로 난간 쪽으로 질주했다. 난간은 지붕을 둘러쌌다. 그리고 나는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그러자 나는 짧게 꿀꿀거리는 신호음을 들었고, 높은 곳에서도 문이 공격받는 소리를 간신히 포착했다.

농칠 틈이 없었다. 나는 몸을 내밀어 빠르게 조준한 뒤 방아쇠를 당겼다. 총성이 날카롭게 울려 퍼졌고, 그 소리와 거의 겹쳐 총알이 표적

을 명중하는 거친 소리가 들렸다. 아래에서는 날카로운 비명이 올라왔고, 문이 울리던 소리는 그쳤다.

그때 나는 난간에서 체중을 빼자, 큰 돌조각 하나가 내 발 밑에서 미끄러지며 굉음과 함께 아래 무질서하게 뭉쳐 있던 무리들 사이로 떨어졌다. 몇몇 끔찍한 비명 소리가 밤공기를 떨며 울려 퍼졌고, 곧 발소리가 바쁘게 달아나는 소리가 들렸다.

조심스럽게 난간 너머를 내려다보았다. 달빛 아래, 큰 돌조각이 문턱을 가로막고 누워 있는 것이 보였다. 그 아래에서 무언가—여러 개의 하얀 무언가를 본 것 같았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다.

그리하여 몇 분의 시간이 흘렀다.

나는 그늘진 집 옆에서 무언가가 모습을 드러내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것은 바로 ‘그것들’ 중 하나였다.

그것은 소리 없이 돌멩이 쪽으로 다가갔다. 그리고 몸을 숙였다. 나는 그것이 무엇을 하는지 볼 수 없었다.

잠시 후, 그것은 다시 일어섰다. 발톱 무언가를 쥐고 있더니, 그것을 입에 가져다 댄 뒤 뜯어 먹기 시작했다.

나는 당장 그 사실을 깨닫지 못했다. 그러다 천천히, 하지만 선명하게 이해했다. 그 무언가가 다시 몸을 굽히고 있었다. 그것은 끔찍했다. 나는 즉시 소총에 총알을 장전하려 했다.

다시 고개를 들었을 때, 괴물은 돌을 잡아당기고 있었다. 돌을 옆으로 밀어내고 있는 것이었다. 나는 소총을 담장에 기대어 놓고 방아쇠를 당겼다.

짐승은 얼굴을 먼저 대고 쓰러졌다. 그리고는 약하게 발버둥을 쳤다.

총성과 거의 동시에, 또 다른 소리가 들렸다. 유리창이 깨지는 소리였다. 나는 잠시 멈춰 총을 재장전하고 나서 지붕에서 내려왔다. 그리고 계단을 두 층이나 내려갔다.

나는 잠시 멈춰 서서 귀를 기울였다.

그때, 또 다른 유리 조각이 떨어지는 소리가 났다. 그 소리는 아래층에서 나는 것 같았다.

흥분한 나는 계단을 뛰어 내려갔다. 창틀이 부딪히는 소리를 따라, 집 뒤쪽에 있는 빈 침실 중 한 곳의 문에 다다랐다.

나는 문을 강하게 밀어 열었다. 방은 달빛으로 희미하게 비춰지고 있었다. 대부분의 빛은 창가에 움직이는 형체들에 의해 가려져 있었다.

내가 서 있는 사이, 그 형체 하나가 창문을 통해 방 안으로 기어들어왔다.

나는 무기를 겨누고 바로 그 형체를 향해 사격했다. 방 안은 귀를 찢을 듯한 굉음으로 가득 찼다.

연기가 걷히자, 방은 비어 있었고 창문도 열려 있었다.

방 안은 훨씬 더 밝아졌다. 차가운 밤공기가 깨진 창문을 통해 들어왔다.

아래층에서는 밤의 어둠 속에서 부드러운 신음 소리와 돼지것들의 혼란스러운 웅성거림이 들려왔다.

창문 옆으로 몸을 피해 총을 재장전했다. 그리고는 그 자리에 서서 기다렸다. 얼마 뒤, 발걸음이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다. 그림자 속에 숨어 있던 나는, 들키지 않으면서도 모든 것을 볼 수 있었다.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다. 그리고 문턱 너머로 무언가가 올라와, 부서진 창틀을 움켜쥐는 것이 보였다. 그것은 목재의 한 조각을 짊어졌다. 그제야 나는 그것이 손과 팔임을 알아챘다. 잠시 후, 스와인크리처 중 하나의 얼굴이 모습을 드러냈다. 내가 소총을 겨누거나 무언가를 하기 전에, 날카로운 갈라짐 소리가 났다. 크-아-악. 창틀은 그 괴물의 무게에 견디지 못하고 무너졌다. 다음 순간, 쿵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큰 비명이 들려왔고, 그것이 바닥에 떨어졌음을 알 수 있었다. 그것이 죽었기를 바라는 야만적인 희망을 품고, 나는 창가로 다가가려 했다. 달은 구름 뒤에 숨어 있어 아무것도 볼 수 없었다. 하지만 내가 서 있던 바로 아래에서 끊이지 않는 수군거림 소리가 들렸으니, 그 짐승들이 가까이 있음을 의미했다.

그곳에 서서 내려다보니, 그 생물들이 어떻게 저렇게 높은 곳까지 올라올 수 있었는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았다. 벽은 비교적 매끄러웠고, 지면까지의 거리는 최소한 80피트는 되어 보였다.

그때였다. 몸을 굽혀 어둠을 헤매던 순간, 희미한 것이 보였다. 집 벽의 회색 그림자를 검은 선이 가르던 것이다. 그것은 창문 왼쪽, 약 2피트 떨어진 곳을 스쳐 지나갔다.

그제야 나는 깨달았다. 그것은 몇 해 전 빗물을 빼기 위해 설치한 낙수관이었다. 나는 그 존재를 완전히 잊고 있었다.

그제야 괴물들이 어떻게 창문에 닿았는지 알 수 있었다. 해법이 머리를 스치던 찰나, 희미한 미끄러짐과 굼히는 소리가 들렸다. 또 다른 짐승이 다가오고 있음을 알았다.

나는 몇 초간 기다렸다. 그러고는 몸을 밖으로 내밀어 파이프를 만져보았다. 다행히 파이프는 완전히 헐거웠다. 소총 총신을 지렛대 삼아 벽에서 들어낼 수 있었다. 나는 재빨리 움직였다. 양손으로 파이프를 짊어지고 힘껏 당겨 통째로 떼어냈다. 그리고 그것—파이프에 여전히 매달려 있던 그 괴물과 함께—을 정원으로 내던졌다.

나는 몇 분 더 그곳에 서서 귀를 기울였다. 처음의 큰 소동이 가라앉은 뒤, 나는 더 이상 아무 소리도 듣지 못했다. 이제 나는 이쪽에서 공격을 받을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알았다. 나는 창문에 도달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를 차단했고, 다른 창가에는 괴물들을 유인할

수 있는 배수관이 하나도 없었다. 나는 그들의 손아귀에서 벗어날 수 있으리라는 확신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했다.

방을 나서서 나는 서재로 내려갔다. 마지막 공격을 견뎌낸 그 문이 어떤 상태인지, 나는 안달이 났다. 서재 안으로 들어와 나는 양초 두 개에 불을 붙인 뒤, 문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큰 받침대 하나가 밀려나 있었고, 그 쪽 문은 약 여섯 인치 안쪽으로 밀려 들어간 상태였다.

드디어 그 짐승들을 쫓아내는 데 성공했다. 정말 신의 은총이었다.

그리고 그 맨 꼭대기 돌! 나는 어렴풋이, 어떻게 그 돌을 떨어뜨렸는지 생각해보았다. 총을 쏠 때는 그 돌이 험거운 줄 몰랐다. 그런데 일어나자마자, 그 돌이 내 밑에서 미끄러져 떨어졌다.

공격해 온 무리들을 물리친 것은 내 소총보다, 그 돌이 제때에 떨어진 덕이 더 크다고 느꼈다.

그런데 문득,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문을 다시 단단히 보강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맨 꼭대기 돌이 떨어진 뒤로, 그 생물들이 다시는 돌아오지 않은 것 같았다. 하지만 그들이 언제 다시 나타날지 누가 알겠는가?

그 자리에서 나는 문 수리에 착수했다. 불안한 마음으로, 그리고 힘껏 일했다.

먼저 지하실로 내려가 구석구석을 뒤졌다. 그리고 무거운 오크 판자 몇 개를 찾아냈다.

그 판자들을 들고 서재로 돌아왔다. 받침대를 치우고 판자를 문에 기대어 세웠다.

그리고 기둥의 머리 부분을 판자에 못으로 고정했다. 바닥쪽도 단단히 박은 뒤, 다시 그곳에 못을 박아 단단히 고정했다.

그래서 나는 문을 그 어느 때보다 튼튼하게 보강했다. 문 안쪽에는 널빤지로 단단히 받쳐졌기 때문이다. 나는 확신했다. 지금까지 겪어온 압력보다 훨씬 더 무거운 힘이 가해져도 문은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그 후, 나는 부엌에서 가져온 등불을 켜고 아래층 창문을 살펴보기 위해 내려갔다.

그것들이 지닌 힘을 눈으로 확인한 뒤로, 나는 1층 창문들이 무척 걱정스러웠다. 창문 창살이 매우 튼튼하게 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나는 방금 전 그곳에서 겪은 생생한 기억 때문에 먼저 반찬 창고로 향했다. 방은 차가웠고, 깨진 유리창 틈으로 불어든 바람은 기이한 소리를 내며 울렸다. 전반적인 음울함 외에도, 그 곳은 내가 전날 밤 떠났을 때와 똑같았다. 나는 창가로 다가가 철창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그 두꺼운 철창이 주는 안도감도 함께 느끼며 말이다. 그러나 더 집중해서 바라보니, 가운데 철창이 약간 휘어진 것 같았다. 하지만 그것은 아주 사소한 일이며, 아마도 수년 동안 그렇게 되어 있었을 것이다. 나는 이전에 그 철창들을 특별히 주목한 적이 없었다.

나는 깨진 창문을 통해 손을 뻗어 철봉을 흔들었다. 그것은 바위처럼 단단했다. 아마도 그 생물들이 철봉을 ‘움직이려’ 했다가, 자신의 힘으로는 불가능함을 깨닫고 시도를 중단한 것 같았다.

그 후 나는 각 창가로 돌아가 하나하나 꼼꼼히 살폈다. 하지만 다른 곳에서는 어떤 간섭의 흔적도 찾을 수 없었다. 조사를 마친 나는 서재로 돌아와 브랜디를 한 잔 따랐다. 그리고 감시를 위해 탑으로 올라갔다.

8

공격 이후

이제 새벽 세 시쯤 되었을 때, 동쪽 하늘이 서서히 밝아지기 시작했다. 해가 뜨고, 그 빛 아래에서 나는 정원을 꼼꼼히 살폈다. 하지만 그 짐승들의 흔적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나는 성벽 너머로 몸을 내밀어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밤새 쏘아 죽인 ‘그것’의 시체가 여전히 그곳에 남아 있는지 확인해 보려는 것이었다. 그러나 시체는 사라져 있었다. 다른 괴물들이 밤사이 그 시체를 치워버린 것으로 보였다.

그때 나는 지붕으로 내려가, 모서리 돌이 떨어진 틈새로 건너갔다. 그곳에 다다라 밖을 내려다보았다. 확실했다. 내가 마지막으로 본 그대로, 그 돌이 그대로 놓여 있었다. 하지만 그 아래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돌이 떨어지며 내가 죽인 생물들 역시 찾을 수 없었다. 분명히 그들은 어디론가 사라진 것이었다.

나는 몸을 돌려 서재로 돌아갔다. 그곳에 털썩 주저앉았다. 온몸이 피곤했다. 지금은 완전히 밝아졌지만, 햇살은 아직 뜨겁지 않았다. 시계가 네 시를 알렸다.

나는 깜짝 놀라 눈을 떴다. 급하게 주변을 둘러보았다. 구석에 있는 시계는 세 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이미 오후였다. 나는 거의 열한 시간이나 잠들었던 것이다.

몸을 꺾으며 의자에서 앞으로 기울었다. 귀를 기울였다. 집은 완전히 고요했다. 천천히 일어섰다. 하품을 했다. 극도로 피곤했다. 다시 의자에 앉았다. 나를 깨운 것이 무엇인지 궁금해하며.

시계가 시각을 알리는 종소리였을 거라고, 나는 곧 결론을 내렸다. 그리고 막 다시 졸기 시작하려던 찰나, 갑작스러운 소리가 나를 다시금 현실로 끌어올렸다. 그것은 복도를 따라 조심스럽게 걸어오는 사람의 발소리였다. 내 서재 쪽으로 향하는 발소리였다.

순식간에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소총을 움켜쥐었다. 나는 소리 없이 기다렸다. 그 생물들이 내가 잠든 사이 집 안으로 들어온 것은 아닌가? 그 의문을 품는 순간, 발소리는 내 문 앞에 다다랐다. 잠시 멈추더니, 다시 복도를 따라 이어졌다.

나는 발끝으로 소리 없이 문 쪽으로 다가가, 밖을 엿보았다. 그리고 나는 사형 집행을 유예받은 죄수가 느낄 법한 안도감을 경험했다. 그것은 바로 내 누나였다. 그녀는 계단 쪽으로 향하고 있었다.

복도로 나서려던 찰나, 그녀를 부르려던 순간이었다. 그런데 문득
의아한 생각이 들었다. 그녀가 저토록 발걸음을 숨기며 내 방 앞을 지
나쳤다는 사실이, 너무 기묘하게 느껴진 것이다.

나는 당황했다. 잠시 동안 머릿속을 스친 생각은, 저것이 그녀가 아
니라 이 집이 또다시 던진 새로운 수수께끼일지도 모른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녀 낡은 치마 자락이 살짝 보이자, 그 의심은 곧 사라졌다. 나
는 반쯤 웃음을 터뜨렸다. 그 고물 같은 의상이라면 누구도 착각할 수
없었다.

그렇다면 그녀는 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 걸까. 전날의 그녀의 정신
상태를 떠올리며, 나는 조용히 따라가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판단했
다. 그녀를 놀라게 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며, 그녀의 행동을 지켜
봐야 했다. 만약 그녀가 정상적으로 행동한다면 좋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그녀를 제지할 조치를 취해야 했다. 현재 우리 앞에 닥친 위험
을 고려할 때, 불필요한 위험을 감수할 여유는 없었기 때문이다.

나는 재빨리 계단 위쪽에 다다랐다. 잠시 발걸음을 멈췄다.

그때, 나를 미친 듯한 속도로 계단 아래로 뛰어 내려가게 만든 소리
가 들렸다. 빗장이 풀리며 덜컥거리는 소리였다.

그 어리석은 누나가 실제로 뒷문의 빗장을 풀고 있었던 것이다.

손이 마지막 빗장에 닿으려던 순간, 내가 그녀에게 다다랐다. 그녀
는 나를 보지 못했다. 내가 그녀의 팔을 붙잡았을 때, 그녀는 비로소 나

의 존재를 의식했다. 그녀는 놀란 짐승처럼 급히 고개를 들어 올리더니, 큰 소리로 비명을 질렀다.

"자, 메리!" 나는 엄하게 말했다. "이게 다 무슨 어리석은 짓이요? 당신이 이 위험을 정말 모른다는 거요? 우리 두 사람의 목숨을 이런 식으로 내던지려 한단 말이요?"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다만 격렬하게 떨며 숨을 헐떡이고 울부짖었다. 마치 공포의 끝자락에 몰린 듯했다.

몇 분 동안 나는 그녀를 설득했다. 조심해야 할 필요성을 일러주며, 그녀에게 용기를 내라고 요청했다. 이제 두려워할 일은 거의 없다고, 나는 설명했다. 내가 진실된 말을 하고 있다고 믿으려 애썼지만, 그녀는 현명하게 행동해야 했다. 며칠 동안은 집을 나가지 말라고 했다.

마침내 나는 절망감에 입을 다물었다. 그녀에게 말해도 소용이 없었다. 그녀가 당분간 제정신이 아닌 것은 분명했기 때문이다. 결국 나는 그녀에게 이성적으로 행동할 수 없다면 방으로 돌아가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그녀는 여전히 아무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지체 없이 그녀를 두 팔로 안아 들고 방으로 향했다. 처음에는 격렬하게 비명을 질렀지만, 내가 계단에 다다랐을 무렵에는 이미 침묵 속에서 떨고만 있을 뿐이었다.

나는 그녀의 방에 도착해 침대에 그녀를 눕혔다. 그녀는 말도 하지 않고 흐느끼지도 않은 채, 그저 두려움에 학질처럼 떨고 있을 뿐이었

다. 나는 근처 의자에서 담요를 가져와 그녀 위에 덮어주었다. 더 이상 해줄 수 있는 일은 없었다.

나는 페퍼가 큰 바구니에 누워 있는 곳으로 걸어갔다. 페퍼는 부상을 입은 이후부터 누나가 돌봐주고 있었다. 상처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했기 때문이다. 누나가 그런 정신 상태임에도 그 늙은 개를 세심하게 보살펴 왔다는 사실에 나는 안도했다.

나는 몸을 굽혀 페퍼에게 말을 걸었다. 페퍼는 대답하듯 내 손을 힘없이 핥았다. 그 이상은 할 수 없을 만큼 너무 아팠던 것이다.

그때 침대로 다가가 내 누나 위로 몸을 굽혔다. 어떻게 느끼는지 물었다. 하지만 그녀는 오히려 더 심하게 떨었다. 내 존재가 그녀를 더 악화시키는 것 같았다. 고통스러웠지만, 나는 이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하여 나는 그녀를 떠났다. 문을 잠그고, 열쇠를 주머니에 넣었다. 그것이 내가 취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처럼 보였다.

그날 나머지 시간은 탐과 내 서재 사이를 오가며 보냈다.

식량은 부엌에서 빵 한 통을 가져왔다. 그 빵과 클라레 포도주로 그날 하루를 연명했다.

어느 길고 지친 하루였다. 만약 내가 평소처럼 정원으로 나갔다면, 나는 충분히 만족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조용한 집에 갇혀, 미친 여자 한 명과 병든 개 한 마리 외에는 아무도 없는 상황에서, 이는 가장 강인

한 신경에도 해를 끼칠 수 있었다. 그리고 집 주변을 둘러싼 엉킨 덩불들 안에는 -- 내가 알 수 있는 바로는 -- 그 저주받은 돼지것들이 그들의 기회를 기다리며 숨어 있었다. 이런 처지에 처한 사람이 있었는가?

한 번은 오후에, 그리고 또 한 번은 좀 더 늦은 시간에, 나는 누나를 찾아갔다. 두 번째로 찾아갔을 때, 나는 그녀가 페퍼를 돌보고 있는 것을 보았다. 하지만 내가 다가가자, 그녀는 슬그머니, 눈에 띄지 않게 먼 구석으로 비켜났다. 그 모습은 나를 믿을 수 없을 만큼 슬프게 했다. 가엾은 사람! 그녀의 공포는 건딜 수 없이 나를 후벼팠고, 나는 불필요하게 그녀를 괴롭히지 않으려 했다. 며칠 안에 그녀가 나아지리라 믿었다. 그동안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었고, 힘들기는 했지만 그녀를 방에 가둬 두는 것이 여전히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한 가지 격려가 되는 것이 있었다. 내가 처음 방문했을 때 가져다준 음식을 그녀가 조금 먹었다는 사실이었다.

그렇게 하루가 흘러갔다.

저녁이 깊어갈수록 공기는 차가워졌다. 나는 탑에서 두 번째 밤을 보내기 위한 준비를 시작했다. 소총 두 자루와 두꺼운 울 코트를 챙긴 것이다.

소총에는 탄을 장전했다. 이미 가지고 있던 소총 옆에 나란히 놓았다. 밤새 모습을 드러낼지 모르는 괴물들에게는 제대로 된 응징을 가할 생각이었다. 탄약은 충분했다. 이 무식한 것들이 문턱을 넘으려는 시도를 얼마나 헛된 짓인지 깨닫게 해주려 했다.

그 후, 나는 집 안을 다시 한 번 돌며 특히 서재 문을 지탱하는 받침대들에 유심히 주목했다. 그리고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했다고 생각한 나는 탑으로 돌아갔다. 가는 길에 누나와 페퍼에게 마지막 인사차 들렀다. 페퍼는 잠들어 있었지만, 내가 들어가자 깨어나 꼬리를 흔들며 나를 알아봤다. 그는 전보다 조금 나은 듯했다. 누나는 침대에 누워 있었다. 잠이 들었는지 아닌지는 알 수 없었지만, 나는 그들을 그렇게 남겨두고 떠났다.

탑에 도착한 나는 주어진 형편에서 최대한 편한 자세를 잡았다. 그리고 밤새도록 경계하며 앉아 있으려 했다.

서서히 어둠이 내렸다. 곧 정원들의 세부적인 모습은 그림자 속으로 녹아들었다.

첫 몇 시간 동안 나는 경계 태세를 갖춘 채 앉아 있었다. 아래쪽에서 무언가 움직이는 기척이 있는지, 그런 단서가 될 만한 소리가 들리는지 귀를 기울였다.

그때는 너무 어두워 내 눈으로는 별 도움이 되지 않았다.

시간은 느리게 흘렀다. 이상한 일은 아무것도 없었다. 달이 떠올랐다. 정원을 비쳤다. 정원은 텅 비어 보였다. 고요했다. 밤새도록 어떤 소동도, 소리도 없었다.

새벽이 다다를 무렵, 나는 긴 감시 때문에 몸이 뻣뻣해지고 차가워지기 시작했다. 동시에, 저 생물들의 지속적인 침묵 때문에 나는 극도로 불안해졌다. 나는 그 침묵을 의심했다. 차라리 그들이 집으로 직접

적으로 공격해 왔다면 나왔을 것이다. 적어도 그들에게서 위협을 명확히 인지하고 대처할 수 있었을 테니까. 하지만 온 밤 내내 이런 침묵을 기다리며 갖가지 알 수 없는 악행을 상상하는 것은 나의 정신을 위태롭게 하는 일이었다. 한두 번, 그들이 이미 떠났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쳤다. 하지만 내 마음속에서는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느꼈다.

아홉

지하실에서

마침내 피로와 추위, 그리고 나를 뒤덮은 불안감이 겹쳐, 나는 집안을 한 바퀴 돌아보기로 했다. 먼저 서재에 들러 몸을 따뜻하게 할 브랜디 한 잔을 마셨다. 그러면서 그곳의 문도 꼼꼼히 살펴보았지만, 전날 밤에 놔둔 그대로였다.

내가 탑을 나서던 시각, 해는 막 뜨기 시작했다. 집안에서는 여전히 어둠이 짙게 깔려 있어 빛 없이는 아무것도 볼 수 없었기에, 나는 서재의 양초 하나를 켜겨 순찰을 나섰다.

1층을 다 돌아볼 무렵, 창살 사이로 희미한 아침빛이 스며들기 시작했다. 내 검색은 새로운 것을 찾아내지 못했다.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보였다. 나는 곧 양초를 끄려던 참이었다. 그러던 중 문득, 지하실을 한 번 더 둘러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만약 기억이 맞다면, 나는 공격이 있었던 그 밤에 급하게 조사한 이후로 지하실에 들어간 적이 없었다.

나는 아마도 반 분가량 망설였다. 이 일을 포기하고 싶었다. 사실 어떤 사람이라도 그렇게 느끼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이 집에는 위엄 있고 두려움을 자아내는 거대한 방들이 많지만, 그중에서도 지하실이 가장 크고 기이했다. 햇빛 한 줄기 들어오지 않는, 어둡고 음울한 동굴 같은 곳이었다.

하지만 나는 그 일을 피하지 않았다. 피한다면 그것은 단순한 겁쟁이 행동이라고 생각했다. 게다가 나를 안심시키며 생각했다. 지하실이 야말로 위험한 것을 마주할 가능성이 가장 적은 곳이라고. 무거운 참나무 문으로만 출입할 수 있고, 그 열쇠는 항상 내 몸에 지니고 다니고 있으니까.

이 작은 공간들 중 가장 작은 곳에 내가 와인을 보관한다. 지하실 계단 발치 근처, 어둡고 음침한 구석이다. 나는 그 너머로 거의 들어간 적이 없다. 사실, 앞서 언급한 뒤죽박죽 뒤적거림 외에는, 내가 지하실 전체를 제대로 돌아본 적이 있었는지조차 의심스럽다.

나는 거대한 문을 열었다. 계단 꼭대기에서였다. 나는 잠시 주저했다. 코를 찌르는 기이하고 황량한 냄새 때문이었다. 그러고는 무기의 배럴을 앞으로 내밀었다. 나는 천천히 어둠 속으로 내려갔다. 지하 지역으로.

계단 끝에 다다라, 나는 잠시 멈춰 서서 귀를 기울였다. 고요함. 오직 왼쪽 어딘가에서 물방울이 떨어지는 소리가 들릴 뿐이었다. 하나, 둘, 떨어지는 물소리가 고요를 깨뜨릴 뿐이었다.

그때, 나는 촛불이 얼마나 조용히 타오르는지 깨달았다. 흔들림도, 타오름도 없었다. 바람 한 점 없는 곳이었다.

나는 조용히 지하실을 하나둘 지나쳤다. 지하실들의 배치는 기억이 희미했다. 처음 수색할 때의 인상은 흐릿하게 남아 있을 뿐이었다. 거대한 지하실들이 연이어 이어졌던 기억은 있지만, 나머지 부분은 안개가 낀 듯 선명하지 않았다. 특히 그중 가장 큰 지하실은 기둥으로 지붕을 받치고 있었는데, 그 너머의 공간은 기억이 흐릿했다. 차가움과 어둠, 그리고 그림자만이 강하게 남아 있을 뿐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비록 긴장되어 있었지만, 나는 충분히 마음을 다잡고 주변을 살필 수 있었다. 내가 들어선 각 지하실의 구조와 크기를 주의 깊게 관찰했다.

물론, 내 양초가 내는 빛으로는 각 구석을 세밀하게 살피는 것이 불가능했다. 하지만 나는 걸어가면서 벽이 놀라운 정밀함과 완성도로 지어졌음을 눈치챌 수 있었다. 그리고 여기저기, 드물게 거대한 기둥이 천장을 받치며 솟아올라 있었다.

그렇게 나는 마침내, 내가 기억하던 그 큰 지하 저장고에 다다랐다. 거대한 아치형 입구를 통해 들어갈 수 있었는데, 그곳에는 기이하고 환상적인 조각들이 새겨져 있었다. 내 촛불 빛 아래에서 그것들은 묘한 그림자를 던졌다.

나는 서서 그 조각들을 생각하며 살피었다. 문득 내 집이 이렇게나 낯설다는 사실이 기이하게 느껴졌다. 하지만 이 고대 건물의 규모를 생

각해보면, 그리고 우리 집에는 늙은 누나와 나 둘만 살고 있으며, 우리의 필요에 따라 몇몇 방만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이 일은 쉽게 이해될 수 있다.

나는 불빛을 높이 든 채 지하실로 들어섰다. 오른쪽 벽을 따라 천천히 걸어가 끝까지 다다랐다. 걸으면서도 조심스럽게 주위를 살폈다. 하지만 불빛이 닿는 곳에는 이상한 것이 보이지 않았다.

나는 윗부분에 다다르자 왼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여전히 벽을 따라 붙어 걸었다. 거대한 방 전체를 다 지나갈 때까지 나는 그렇게 걸었다.

걸어가면서 나는 바닥이 단단한 암반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어떤 곳은 축축한 곰팡이가 덮여 있었고, 다른 곳은 맨바닥이거나 거의 맨바닥이었다. 아주 얇은 회색 먼지 층이 덮여 있을 뿐이었다.

나는 문턱에서 멈춰 섰다. 그러나 곧 몸을 돌려, 그 공간의 중앙을 따라 걸어가기로 했다. 기둥 사이를 지나며 이쪽저쪽을 살폈다. 지하실의 중간쯤 되었을 때, 무언가에 발끝이 부딪혔다. 금속성 소리가 났다. 나는 재빨리 몸을 굽혀 촛불을 비추었다. 내가 발로 찬 것은 커다란 금속 고리였다. 더 깊이 몸을 숙여 주변 먼지를 털어내자, 그것이 세월에 검게 변한 무거운 뚜껑문에 달려 있음을 알게 되었다.

흥분된 마음에, 그것이 어디로 이어질지 궁금해하며, 나는 총을 바닥에 내려놓았다. 그리고 양초를 방아쇠울에 꽂고, 그 고리를 양손으로 잡고 당겼다. 뚜껑문은 요란하게 삐걱거렸다. 그 소리는 거대한 공간 전체에 희미하게 울려 퍼졌다. 그러고는 무겁게 열렸다.

무릎 위에 그 뚜껑의 모서리를 기대고 나는 촛불을 향해 손을 뻗었다. 그리고 그 구멍 안으로 불빛을 비추며 좌우로 흔들었다. 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나는 당황했고 놀랐다. 계단의 흔적은커녕, 한때 계단이 있었던 기색조차 보이지 않았다. 텅 빈 검은 어둠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마치 바닥도 옆벽도 없는 우물 속을 내려다보고 있는 듯했다.

그때, 나는 여전히 의아한 마음에 그 자리에 서 있었는데, 멀리서, 알 수 없는 깊은 곳으로부터 희미한 소리의 속삭임이 들려오는 것 같았다. 나는 재빨리 고개를 숙여 구멍 안으로 더 깊숙이 귀를 기울였다. 귀의 착각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나는 그 부드러운 킬킬거림이 점점 더 음산하고, 비웃듯 키득거리는, 희미하고 먼 곳의 웃음소리로 변해가는 것을 분명히 들었다고 맹세할 수 있었다.

놀란 나는 뒤로 뛰며 뚜껑문을 떨어뜨렸다. 텅 빈 금속음이 울렸고, 그 울림이 공간 전체를 메웠다. 그래도 나는 그 비웃음 섞인, 암시적인 웃음소리가 여전히 들려오는 것 같았다. 하지만 그것이 내 상상일 뿐이라는 것은 알고 있었다. 내가 들었던 그 소리는 너무도 미미해서, 무거운 뚜껑문을 뚫고 들어올 수 있을 리가 없었기 때문이다.

나는 한 분간이나 그곳에 서서 떨었다. 불안한 눈으로 뒤를 돌아보고 앞을 살폈다. 하지만 거대한 지하실은 무덤처럼 고요했다. 점차 그 두려운 감정은 내 몸에서 벗겨졌다.

가라앉은 마음으로, 나는 다시 그 뚜껑문이 어디로 이어지는지 궁금해졌다. 하지만 그때는 더 이상 조사할 용기를 불러일으킬 수 없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뚜껑문은 반드시 고정시켜 두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나는 동쪽 벽을 따라 돌면서 눈여겨본 '다듬은' 돌덩이들을 여러 개 가져와 뚜껑문 위에 올려놓았다. 그렇게 나는 그 일을 마무리했다.

그곳의 나머지 부분을 마지막으로 살핀 뒤, 나는 다시 지하실을 지나 계단으로 올라갔다. 그러다 드디어 빛이 비치는 곳으로 나왔다. 더 이상 그 불편한 임무를 수행할 필요가 없다는 안도감이 밀려왔다.

X

기다림의 시간

해는 이제 따뜻하게 내려앉아, 어둡고 음침한 지하 창고들과는 사뭇 다른 경이로운 대조를 이루고 있었다. 그런 탓인지, 나는 비교적 가벼운 마음으로 탑으로 올라가 정원을 둘러보기로 했다.

정원은 고요했다. 몇 분 후, 나는 메리의 방으로 내려갔다.

이곳에서 나는 문을 두드리고 답을 받은 뒤, 열쇠로 잠금을 풀었다.

내 여동생은 조용히 침대 위에 앉아 있었다. 마치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는 듯한 태도였다.

내가 다가서자, 그녀는 다시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와 있는 듯했다. 피하지도, 움직이려 하지도 않았다.

하지만 나는 그녀가 내 얼굴을 초조하게 훑어보고 있음을 알아차렸다. 그녀는 불안한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며, 내가 해가 될 존재가 아님을 반신반의하는 듯했다.

내 질문에 그녀는 제법 이성적으로 답했다. 배가 고프고, 내가 괜찮다면 부엌으로 내려가 아침을 준비하고 싶다는 것이었다. 잠시 나는 그녀를 내보내는 것이 안전한지 고민했다. 결국 나는 그녀에게 집 밖으로 나가지 않고, 외부의 어떤 문도 만지지 않겠다고 약속한다면 내려가도 된다고 말했다. 문에 대해 언급하자, 그녀의 얼굴에 갑작스러운 공포의 그림자가 스쳤다. 하지만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단지 필요한 약속을 하고는, 조용히 방을 나섰다.

방 안을 가로질러 페퍼에게 다가가자. 그는 내가 들어설 때 이미 깨어 있었다. 하지만 약간의 기쁜 짓음과 꼬리를 살랑이는 부드러운 소리를 내었을 뿐, 그 외에는 조용히 있었다. 이제 내가 그를 쓰다듬자, 그는 일어나려다 시도했지만 결국 옆으로 쓰러지며 작은 고통의 비명을 지르며 다시 누웠다.

그에게 말을 걸고, 가만 누워 있으라고 일렀다. 그의 상태가 눈에 띄게 나아진 데다, 그녀의 흔들린 정신 상태에도 불구하고 페퍼를 이렇게 나 잘 보살펴 준 여동생의 자연스러운 자비로움에 나는 큰 기쁨을 느꼈다. 잠시 후, 나는 그를 남겨두고 계단을 내려가 내 서재로 향했다.

잠시 후 메리가 나타났다. 그 위에 김이 모락모락 나는 따뜻한 아침 식사가 담긴 쟁반을 들고 있었다.

방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나는 그녀의 시선이 공부방 문을 지탱하는 받침대들에 고정되는 것을 보았다. 그녀의 입술이 굳어졌고, 나는 그녀가 약간 창백해졌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 이상은 아니었다.

쟁반을 내 곁에 내려놓은 뒤, 그녀는 조용히 방을 떠나려 했다. 그때 내가 그녀를 불렀다.

그녀는 돌아섰다. 어딘지 조심스러운 걸음이었다. 놀란 듯했다. 그녀의 손이 초조하게 앞치마를 움켜쥐고 있는 것이 눈에 띄었다.

“자, 메리.” 내가 말했다. “힘내요. 상황이 나아지고 있어요. 어제 아침 이후로 그 생물들은 한 마리도 보지 못했어요.”

그녀가 나를 바라보았다. 기이하게도 당황한 눈빛으로,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듯했다.

그러더니 그녀의 눈에 이해의 빛이 떠올랐고, 이어 공포가 드리웠다. 하지만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다만, 이해할 수 없는 중얼거림으로 동의하는 것뿐이었다.

그 후 나는 침묵을 지켰다. 돼지것들에 대해 다시 언급하는 것은, 이미 흔들린 그녀의 신경이 감당할 수 없는 일임이 분명했기 때문이다.

아침 식사를 마친 뒤, 나는 탑으로 올라갔다. 나는 하루 중 대부분의 시간을 이곳에서 보내며 정원을 엄격하게 감시했다.

한두 번은 지하실로 내려가 여동생의 상태가 어떤지 확인했다. 매번 그녀는 조용했고, 기이할 정도로 순종적이었다.

사실 마지막에는, 그녀가 스스로 용기를 내어 처리가 필요한 집안일에 관해 자기 쪽에서 먼저 내게 말을 건네기까지 했다.

그 말은 거의 놀라울 정도로 조심스럽고 두려운 어조로 나왔지만, 나는 그것을 기쁨으로 맞이했다. 그 결정적인 순간, 즉 내가 그녀가 뒷문 빗장을 풀고 밖에서 기다리는 그 짐승들 사이로 나가려던 것을 붙잡은 이후로, 그녀가 자발적으로 내뱉은 첫 마디였기 때문이다.

그녀가 자신의 시도를 인지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그 일이 얼마나 위태로웠는지는 궁금했지만, 나는 그녀에게 질문하지 않았다. 잘 되고 있는 일을 건드리지 않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날 밤, 나는 침대에서 잤다. 이틀 만에 처음으로 잠자리에 든 것이다. 아침이 되자 일찍 일어나 집 안을 거닐었다.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었다. 나는 탑으로 올라가 정원을 내려다보았다. 그곳에서도 다시 완벽한 고요함을 발견했다.

아침 식사 때 메리를 만났다. 그녀가 나를 아주 자연스러운 태도로 맞이하는 것을 보니, 나는 크게 안도했다. 그녀가 스스로를 충분히 되찾았기 때문이다.

메리는 차분하고 이성적으로 말을 건넸다. 다만 지난 이틀간의 일에 대해서는 단 한 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

나도 그녀의 의도에 부응했다. 과거의 일로 대화의 흐름을 이끌지 않기로 했다.

아침 일찍, 나는 페퍼를 만나러 갔다. 그의 상처는 빠르게 아물고 있었다. 하루나 이틀 안에 그는 본격적으로 제 발로 일어설 듯했다.

아침 식탁을 떠나기 전, 나는 그의 호전된 상태를 언급했다. 이어진 짧은 대화 속에서, 나는 놀랐다. 내 여동생이 아직까지도 그 상처가 내가 만들어낸 '야생 고양이'의 소행이라고 믿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그녀를 속인 내가 거의 부끄러웠다.

하지만 그 거짓말은 그녀를 놀라게 하지 않기 위해 한 것이었다. 그리고 나는 확신했다. 나중에 그 짐승들이 집을 습격했을 때, 그녀는 반드시 진실을 알게 되었을 것이라고.

낮 동안 나는 경계를 늦추지 않았다. 지난날과 마찬가지로 시간의 대부분을 탑에서 보냈다. 하지만 돼지것들의 흔적은 커녕 소리조차 들리지 않았다.

몇 차례나 이런 생각이 들었다. ‘이제야 비로소 저것들이 우리를 떠난 게 아닐까?’ 하지만 그제까지 나는 그 생각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제 와서야 나는 희망을 품을 만한 근거가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내가 저것들을 마지막으로 본 지 이제 사흘이 되어간다.

그래도 나는 극도의 경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내가 알 수 있는 바로는, 이 길게 이어진 침묵이 나를 집 밖으로 유인하기 위한 꾀일 수도 있

었다. 어쩌면 그들의 무리 속으로 직접 유인하려는 함정일지도 모른다.

그런 상황이 닥칠지도 모른다는 생각만으로도, 나는 충분히 신중해질 이유가 충분했다.

그렇게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이 조용히 지나갔다. 나는 집을 나서려던 시도를 전혀 하지 않았다.

여섯째 날, 나는 페퍼를 다시 한 번 제자리에서 볼 수 있는 기쁨을 누렸다. 그는 여전히 매우 허약했지만, 하루 종일 내 곁을 지켜주었다.

XI

정원의 수색

시간은 얼마나 더디게 흘러갔는가. 하지만 정원을 여전히 어지럽히는 그 야수들의 흔적은 단 하나도 보이지 않았다.

드디어 아홉째 날이었다. 혹시나 있을 위험을 무릅쓰고, 드디어 밖으로 나가기로 결심한 날이었다.

그 목적을 위해 나는 산탄총 한 자루를 장전했다. 조심히, 신중하게. 총을 고를 때는 근거리에서 더 치명적이라고 생각되는 것을 선택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탑 위에서 주변을 다시 한 번 살핀 뒤, 페퍼에게 나를 따르라고 불렀다. 그리고 나는 지하실로 내려갔다.

문턱에서 나는 잠시 망설였다. 어둠 속 수풀 뒤에 어떤 것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지 생각하니, 결심을 굳히기엔 역부족이었다. 하지만 그건 단 한순간이었다. 곧장 빗장을 풀고, 나는 문 밖의 길 위에 섰다.

페퍼가 뒤따라왔다. 그는 문턱에서 발걸음을 멈추고, 의심스러운 듯 코를 킁킁거렸다. 문틀 위아래로 코를 움직이며 냄새를 쫓는 듯했다.

그런데 갑자기, 그는 날카롭게 방향을 틀었다. 그리고 문 주변을 반원형과 원형으로 빙빙 돌며 여기저기로 달리기 시작했다. 마침내 문턱으로 돌아왔다. 그는 다시 그곳에서 코를 들이대며 주변을 살폈다.

그동안 나는 개를 지켜보며 서 있었다. 하지만 시선의 절반은 줄곧 나를 둘러싼 무성하게 얽힌 정원을 향해 있었다.

그제야 나는 그에게로 다가가, 몸을 굽혀 그가 냄새를 맡고 있는 문 표면의 상태를 살펴보았다. 나는 나무가 서로 겹치고 교차하며 얽힌 굵은 자국들로 뒤덮여 있음을 발견했다. 그 자국들은 서로 뒤섞여 해독할 수 없는 혼란을 이루고 있었다.

게다가 문설주들 역시 군데군데 씹힌 흔적이 보였다.

이상의 것들 외에는 내가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그래서 나는 일어서서 집 벽을 따라 돌기 시작했다.

내가 발걸음을 떼는 순간, 페퍼는 문밖으로 뛰어나갔다. 그는 코를 킁킁거리며 앞장서 나갔다. 때때로 그는 발걸음을 멈추고 무언가를 조사했다. 길바닥의 총알 자국, 혹은 화약 가루가 묻은 탄피 같은 것들이

었다. 혹은 찢어진 잔디 조각, 혹은 어지럽혀진 잡초밭의 흙자국 같은 것도 있었다. 하지만 그런 사소한 것들 외에는 아무것도 찾지 못했다.

나는 그를 날카롭게 관찰했다. 그의 태도에서 어떤 생물들이 가까이 있다는 것을 알리는 불안한 기색은 찾아볼 수 없었다. 이 사실로 나는, 적어도 당분간은 그 정원에 그 혐오스러운 것들이 없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었다. 페퍼는 쉽게 속지 않는 개였다. 만약 위험이 닥친다면, 그는 알아차리고 제때에 나에게 경고해 줄 것이라 생각하니 안심이 되었다.

내가 처음 그 생물을 쏘았던 장소에 다다랐을 때, 나는 멈춰 섰다. 그리고 신중하게 주변을 살폈다. 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곳에서 나는 거대한 덮개돌이 떨어진 곳으로 향했다. 그것은 옆으로 누운 채로 있었다. 그것을 움직이던 그 짐승을 내가 쏘았을 때 그대로 남겨둔 모습 그대로였다. 더 가까운 쪽 끝에서 약 두 발짝 오른쪽에는 땅에 큰 자국이 패여 있었다. 돌이 떨어졌던 자국이었다. 다른 쪽 끝은 여전히 그 자국 안에 있었다. 절반은 들어가고, 절반은 나와 있었다.

나는 더 가까이 다가가 돌을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이 얼마나 거대한 석조물이었던가! 그리고 그 생물은 그 아래에 있는 것에 닿으려고, 혼자서 그것을 움직였던 것이다.

나는 돌덩이 끝까지 돌아갔다. 그곳에서 나는 돌 아래를 들여다볼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거의 두 피트 정도의 거리까지 시야가 들어왔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나는 쓰러진 짐승들의 흔적을 전혀 발견할 수 없었다. 나는 매우 놀랐다.

내가 앞서 말했듯이, 나는 그 시체들이 이미 치워졌을 것이라고 추측한 바 있었다. 하지만 돌 아래에 그들의 운명을 짐작할 만한 흔적조차 남기지 않았을 리가 없다고 생각했다.

나는 여러 마리의 짐승들이 돌 아래로 강타당하는 것을 보았다. 그 충격은 짐승들이 말 그대로 땅속으로 파고들게 할 만큼 강렬했다. 그런데 이제 돌 아래에는 그들의 흔적이 단 하나도 보이지 않았다. 피자국 하나조차 남아 있지 않았다.

머릿속으로 그 일을 다시금 되짚어 보았지만, 이전보다 더 혼란스러울 뿐이었다. 그럴듯한 설명은 떠오르지 않았다. 결국 나는 그것을 설명 불가능한 수많은 현상 중 하나로 치부하고, 더 이상 고민하는 것을 멈췄다.

그곳에서 내 시선은 서재 문으로 옮겨졌다. 이제 나는 그 문이 견뎌야 했던 거대한 압박의 흔적을 더 또렷이 볼 수 있었다. 지주들이 받쳐주고 있었음에도, 그 문이 어떻게 그토록 잘 버틸 수 있었는지 나는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다.

타격의 자국은 없었다. 실제로 내려친 적도 없었다. 하지만 문은 거대하고도 고요한 힘의 작용으로 인해 말 그대로 경첩에서 찢겨져 나와 있었다.

내가 관찰한 한 가지 사실은 나를 깊이 동요시켰다. 지주 하나의 머리 부분이 패널을 완전히 뚫고 들어간 것이었다. 그 사실만으로도, 괴물들이 문을 부수기 위해 얼마나 거대한 노력을 기울였는지, 그리고 얼마나 성공에 근접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었다.

그곳을 떠나 나는 집 주위를 한 바퀴 더 둘러보았다. 별다른 흥미로운 것은 없었다. 다만 뒷편에서만 예외가 있었다. 깨진 창문 아래 긴 풀밭 속에서, 내가 벽에서 뜯어낸 파이프 조각을 발견한 것이다.

그후 나는 집으로 돌아갔다. 뒷문을 다시 단단히 잠그고서는 탑으로 올라갔다.

나는 오후 내내 그 곳에서 책을 읽었다. 가끔씩 아래 정원을 내려다 보기도 했다. 만약 밤이 조용히 지나간다면, 나는 내일 구덩이까지 가기로 마음먹었다. 그때쯤이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조금은 알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하루는 저물어 갔고, 밤이 찾아와 또 다른 밤처럼 조용히 지나갔다.

아침이 밝아 일어났다. 하늘은 맑고 깨끗했다. 나는 곧장 계획한 일을 실행에 옮기로 결심했다. 아침 식사를 하는 동안, 나는 그 일을 신중하게 고민했다. 그 후, 나는 총을 챙기기 위해 서재로 향했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나는 권총 한 자루를 챙겨 들고, 그것을 주머니에 쑤셔 넣었다. 총알도 미리 장전해 두었다. 권총은 작았지만 무게가 나갔다.

나는 분명히 알고 있었다. 만약 위험이 존재한다면, 그것은 구덩이가 있는 방향으로부터 찾아올 것이라는 사실을. 나는 그에 대비하기로 했다.

서재를 나온 나는 뒷문으로 내려갔다. 페퍼가 내 뒤를 따랐다.

밖으로 나서는 순간, 나는 주변 정원을 빠르게 훑어보았다. 그리고 구덩이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가는 내내 날카로운 경계를 늦추지 않았다. 총을 손에 쥐고 언제든지 쏠 수 있도록 준비한 채였다.

페퍼는 앞장서서 달리고 있었다. 그는 주저하는 기색이 전혀 없었다.

이것으로 보아 당장 닥칠 위험은 없어 보였다. 나는 그의 발자취를 더 빠르게 따라갔다.

이제 페퍼는 구덩이 정상에 도달해 있었다. 그는 코를 대며 가장자리를 더듬듯 나아가고 있었다.

1분 뒤, 나는 그의 곁에 서서 구덩이 안을 내려다보았다. 잠시 동안, 그곳이 바로 같은 곳인지 믿기 어려울 정도였다. 그토록 크게 변해 있

었다. 2주 전만 해도 어둡고 수목이 우거진 협곡이었고, 나뭇잎에 가려진 시냇물이 바닥에서 느리게 흐르고 있었다. 그 모습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다. 대신 내 눈에 비친 것은 들쭉날쭉한 깊은 틈이었고, 그 일부가 탁한 물의 음울한 호수로 채워져 있었다. 협곡의 한쪽 전체는 관목이 모두 벗겨져, 맨 바위가 드러나 있었다.

내 왼쪽으로 조금 떨어진 곳, 구덩이 옆면이 완전히 무너져 내린 듯했다. 바위 절벽 면에 깊은 V자 모양의 균열이 생긴 것이다. 이 균열은 협곡 상단 가장자리에서 시작해 물가까지 거의 이어졌고, 구덩이 쪽으로 약 40피트 정도 파고들어 있었다. 입구는 최소 6야드 너비였지만,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약 2야드 정도로 좁아지는 듯했다. 하지만 내 시선을 사로잡은 것은 그 거대한 균열 그 자체보다도 다른 것이었다. 균열을 따라 조금 내려간 곳, 바로 V자 모양의 꼭짓점에 커다란 구멍이 하나 있었기 때문이다. 그 구멍은 윤곽이 또렷했고, 아치형 출입구와 흡사한 모양이었다. 다만 그림자 속에 자리 잡고 있어 선명하게 보이지 않을 뿐이었다.

구덩이 맞은편은 여전히 푸르렀다. 하지만 곳곳이 찢겨 나가고, 사방에 먼지와 쓰레기가 뒤덮여 있어, 그것이 여전히 푸른 땅인지 구분하기 어려울 지경이었다.

처음에는 땅이 무너져 내린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그 생각만으로는 내가 목격한 모든 변화를 설명하기에 부족함을 깨달았다.

그리고 물은?

갑자기 몸을 돌렸다. 오른쪽 어딘가에서 흐르는 물소리가 들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한 번 귀를 기울이자, 그 소리가 구덩이 동쪽 끝에서 나는 것임을 쉽게 알아챌 수 있었다.

나는 그 방향으로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다. 앞서갈수록 소리는 점점 또렷해졌다. 얼마 뒤, 나는 소리의 정점에 서 있었다.

그래도 원인은 알 수 없었다. 나는 무릎을 꿇고 절벽 위로 고개를 내밀었다. 그때서야 소리가 선명하게 들려왔다.

아래쪽을 내려다보니, 작은 물줄기가 보였다. 구덩이 벽의 틈새에서 뿜어져 나온 맑은 물이 바위를 타고 떨어지며 아래 호수로 흘러들고 있었다. 절벽을 조금 더 따라가니 또 다른 물줄기가 있었고, 그 너머로는 두 개의 작은 물줄기가 더 보였다.

이 물들이 구덩이 안의 수량을 설명해 줄 열쇠였다. 만약 바위와 흙의 낙하가 하류의 출구를 막았다면, 이 물줄기들이 물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나는 이곳의 전반적으로 흔들린 듯한 풍경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다. 계곡 위로 흐르는 작은 시냇물들, 그리고 더 위쪽에 있는 거대한 균열까지. 지반 붕괴만으로는 이런 현상을 설명하기엔 부족해 보였다.

지진이나 거대한 폭발이라면 이런 사태를 초래했을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런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았다.

그러자 문득 그 굉음과, 공중으로 치솟던 먼지 구름이 떠올랐다. 나는 재빨리 자리에서 일어났다. 하지만 나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다.

아니, 분명 떨어지는 바위와 흙먼지의 소리였을 것이다. 먼지가 날리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추론은 확신을 주지 못했다. 이 이론은 가능성의 감각을 만족시키지 못했다. 다른 설명을 생각해 보았자, 이만큼 설득력 있는 것은 없을 텐데.

내가 검사를 진행하는 동안 페퍼는 잔디 위에 앉아 있었다. 내가 계곡의 북쪽 면을 따라 올라서자, 그가 일어나 뒤를 따랐다.

나는 조심스럽게 사방을 살피며 구덩이 둘레를 천천히 돌았다. 하지만 이미 본 것 외에는 별다른 것을 발견하지 못했다. 서쪽 끝에서 나는 네 개의 폭포를 끊임 없이 바라볼 수 있었다. 폭포는 호수 표면에서 꽤 떨어진 곳에 있었다. 내 계산으로는 약 50피트쯤 위였다.

나는 잠시 더 그 주변을 배회했다. 눈과 귀를 바짝 세워 경계했지만, 여전히 수상한 것은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았다. 온통 놀라울 정도로 고요했다. 사실, 위쪽 끝에서 끊임없이 들려오는 물소리를 제외하면, 어떤 소음도 이 고요를 깨뜨리지 않았다.

이 모든 시간 동안 페퍼는 불안해하는 기색을 전혀 보이지 않았다. 적어도 당분간은 근처에 돼지것들이 없다는 뜻으로 보였다. 내가 본 바로는, 그의 관심은 주로 구덩이 가장자리 풀밭에서 굶고 냄새를 맡는

데 쫓려 있었다. 때때로 그는 가장자리를 떠나 집 쪽으로 달리기 시작했는데, 보이지 않는 발자국을 따라가는 듯했다. 하지만 항상 몇 분 후면 되돌아왔다.

나는 그가 정말로 돼지것들의 발자국을 쫓고 있다고 의심의 여지 없이 믿었다. 그리고 그 발자국들이 하나같이 그를 다시 구덩이로 돌려보낸다는 사실은, 짐승들이 모두 제자리로 돌아갔다는 분명한 증거로 보였다.

정오가 되자 나는 집으로 돌아갔다. 점심을 먹기 위해서였다. 오후 내내 나는 페퍼와 함께 정원을 조금씩 뒤졌다. 하지만 그 생물들이 있다는 흔적은 어디에서도 발견하지 못했다.

우리가 수풀 사이를 지나가고 있을 때였다. 페퍼가 갑자기 덤불 속으로 돌진하며 거친 짓음을 지른다. 나는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서 총을 쏠 준비를 했다. 하지만 페퍼가 나타나 불쌍한 고양이를 쫓고 있는 모습을 보고는, 긴장한 웃음소리가 새어 나왔다.

저녁 무렵이 되자 나는 수색을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갔다. 그런데 우연히 큰 덤불 무리를 지나고 있을 때였다. 페퍼가 갑자기 사라졌다. 이어 의심스러운 기색으로 그 사이에서 코를 킁킁거리며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총열로 가린 나뭇가지를 헤치고 안을 들여다보았다.

보이는 것은 없었다. 다만 많은 가지가 꺾이고 부러져 있었다. 마치 얼마 전까지 어떤 동물이 그곳에 등지를 틀고 살았던 흔적처럼. 나는

이것이 아마도 공격이 있던 날 밤, 돼지것들 중 하나가 차지했던 장소 중 하나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다음 날, 나는 정원을 다시 뒤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결과는 없었다.

저녁이 되자, 나는 정원을 끝까지 다 뒤졌다. 이제 나는 의심의 여지 없이 알았다. 그 장소에 숨어 있던 ‘것들’은 이미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사실, 그 후로 나는 종종 생각했다. 내가 처음부터 옳았다는 것을. 그들은 공격 직후 곧장 떠났다는 나의 초기 추측이 맞았다는 것을.

XII

지하의 구덩이

또 한 주가 지나갔다. 나는 그 일주일 내내 구덩이 입구 근처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다.

며칠 전, 나는 이미 결론을 내린 바 있었다. 거대한 균열의 모서리에 있는 아치형 구멍이 바로 돼지것들이 빠져나간 곳이라는 사실을 말이다. 그들은 이 세상 깊은 곳 어느 불경한 장소에서 그 구멍을 통해 탈출했던 것이다.

내가 그 추측이 얼마나 근접한 진리에 닿아 있었는지는, 나중이야 알게 되었다.

그 구멍이 지옥 같은 곳으로 이어지는 것인지, 나는 몹시 궁금했다. 두려움에 떨면서도 말이다. 하지만 아직까지 그 구멍을 직접 조사해보겠다는 생각은 제대로 들지 않았다. 돼지것들에 대한 공포가 너무 깊어, 그들과 마주칠지도 모르는 곳에는 자진해서 들어가지 않으려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그 두려움은 서서히 줄어들었다. 며칠 후, 나는 구덩이 안을 들여다보기 위해 내려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때의 나는 상상했던 것만큼 그 생각에 극도로 반대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그때도 나는 정말로 그런 무모한 모험을 시도할 의도는 없었던 것 같다. 그 음울한 입구를 들어가는 것은 곧 죽음일 수도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호기심이 얼마나 끈질긴지. 마침내 나의 유일한 갈망은 그 어두운 입구 너머에 무엇이 있는지 알아내는 것이었다.

날이 갈수록 나는 서서히 돼지것들에 대한 공포를 잃어갔다. 그 공포는 더 이상 나를 짓누르는 감정이 아니었다. 그저 불쾌하고 믿기 힘든 과거의 기억으로 남을 뿐이었다.

그렇게 어느 날, 나는 잡념과 환상을 모두 떨쳐버렸다. 집으로 돌아가 밧줄을 가져왔다. 그 밧줄을 균열의 꼭대기에 있는 튼튼한 나무에 단단히 묶었다. 구덩이 가장자리에서 조금 떨어진 곳이었다. 밧줄의 다른 끝을 균열 속으로 내려보냈다. 어두운 구멍 입구 바로 위에서 밧줄이 늘어지게 되었다.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내가 미친 짓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는 깊은 우려를 안고서, 나는 천천히 내려가기 시작했다. 밧줄을 지지대로 삼아 구멍까지 내려갔다. 그곳에서 나는 여전히 밧줄을 잡고 서서, 구멍 안을 들여다보았다. 안은 완전히 어둠에 잠겨 있었고, 소리 하나 들리지 않았다. 그런데 잠시 후, 나는 무언가를 들을 수 있는 것 같았다.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다. 하지만 무덤처럼 고요하기만 했고, 나는 다시 숨을 깊게 들이쉬었다. 그 순간, 나는 다시 소리를 들었다. 그것은 마치 고통스러운 숨소리와 같았다. 깊고 날카롭게 뿜아내는 숨소리였다. 짧은 순간, 나는 움직일 수 없이 얼어붙어 섰다. 하지만 이제 그 소리는 다시 멈췄고, 나는 아무것도 들을 수 없었다.

그곳에 초조하게 서 있을 때, 내 발이 작은 자갈 하나를 떨어뜨렸다. 자갈은 안쪽으로, 어둠 속으로 굴러 떨어지며 공허한 쟁그랑 소리를 냈다.

순간, 그 소리는 되받아져 수십 번이나 반복되는 메아리가 되었다. 이어지는 메아리는 점점 더 희미해졌고, 마치 먼 곳으로 사라져 가는 듯했다.

다시 고요함이 내려앉았다. 그제야 나는 그 은밀한 숨소리를 들었다. 내가 숨을 한 번 들이쉴 때마다 답하는 숨소리가 따라왔다. 소리는 점점 가까워지는 듯했다. 그리고 몇몇 다른 소리들도 들렸다. 하지만 더 희미하고 더 멀리서 들려오는 것이었다.

왜 나는 밧줄을 꼭 쥐고 위험에서 벗어나 뛰어오르지 않았을까. 나는 알 수 없다. 마치 마비된 듯했다.

나는 식은땀을 흘렸고, 혀로 입술을 적셔 보려 했다. 목이 갑자기 말라버렸고, 나는 쉼 목소리로 기침했다. 그 기침 소리는 십여 가지 끔찍하고 목구멍에서 울리는 음조로 되돌아왔다. 조롱하듯 말이다.

나는 무력하게 어둠을 들여다보았지만, 여전히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이상하고 목이 막힌 듯한 감각이 들었고, 다시 한번 건조한 기침을 했다. 메아리는 그것을 되받아, 기괴하게 오르내리며, 서서히 둔탁한 고요 속으로 사라져 갔다.

그때, 문득 한 생각이 떠올랐다. 나는 숨을 죽였다. 다른 숨소리가 그쳤다. 내가 다시 숨을 들이마시자, 그 소리가 다시 시작되었다. 하지만 이제 나는 더 이상 무서워하지 않았다. 그 기이한 소리가 어떤 숨죽인 돼지것들의 소리가 아님을, 오직 나의 호흡이 되돌아오는 메아리에 불과함을 나는 알았다.

하지만 나는 충분히 놀라 버렸다. 그 균열을 기어 오르고 밧줄을 끌어당긴 것이 다행이었다. 그때는 그 어둠 속 구멍으로 들어갈 생각조차 할 수 없을 만큼 떨리고 긴장되어 있었다. 그래서 집으로 돌아왔다. 다음 날 아침에는 제법 내 모습으로 돌아왔지만, 그래도 그곳을 탐험할 만큼의 용기는 여전히 일어나지 않았다.

구덩이 속의 물은 이토록 긴 시간 동안 서서히 올라오고 있었다. 이제 그 수위는 구멍 바로 아래까지 차올랐다.

오르는 속도를 보면, 일주일도 채 지나지 않아 바닥과 수평이 될 것이다.

나는 깨달았다. 조속히 조사를 끝내지 않으면, 아마도 이 기회를 영원히 놓치게 되리라고. 물은 계속 차오를 것이고, 결국 그 구멍 자체도 물속에 잠겨버릴 테니까.

그 생각이 나를 움직이게 했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어쨌든 이를 뒤, 나는 그 틈새 꼭대기에 서 있었다. 임무에 필요한 모든 장비를 갖춰 차려입은 채로.

이번엔 도망치려는 마음을 이기고, 끝까지 해보기로 마음먹었다. 그 결심을 실행에 옮기기 위해, 나는 밧줄과 함께 양초 한 다발과 쌍열 산탄총을 챙겼다. 양초는 횃불 대용으로 쓰려는 뜻이었다. 허리띠에는 묵직한 기병용 권총을 찼는데, 총알은 사슴 사냥용 산탄으로 가득 채워져 있었다.

이전과 마찬가지로 나는 밧줄을 나무에 단단히 매듭지었다. 그리고 견고한 끈으로 총을 어깨에 메고, 구덩이 가장자리로 몸을 낮추기 시작했다.

이 움직임을 지켜보던 페퍼가 경계하던 자세를 풀지 않은 채 일어서더니, 내 쪽으로 달려왔다. 그의 울음소리는 경고를 담은 짓음이자 애절한 하울처럼 들렸다. 하지만 나는 이미 결심을 굳혔고, 그에게 누워있으라고 명령했다.

그와 함께 내려가고 싶었지만, 현재의 상황에서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다. 내 얼굴이 구덩이 가장자리의 높이와 같아졌을 때, 페퍼는 내

입술을 핥았다. 이어 그의 이가 내 소매를 물고 강하게 당기기 시작했다. 그가 내가 내려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은 명확했다.

하지만 한번 마음먹은 일은 포기할 생각이 없었다. 페퍼에게 놓아줄 것을 단호히 일갈한 뒤, 나는 하강을 계속했다. 위에는 버림받은 새끼 개처럼 짖으며 울부짖는 그 불쌍한 노견이 남아 있었다.

조심스럽게 나는 바위 돌출부에서 돌출부로 옮겨 가며 몸을 낮추었다. 한 번 미끄러지면 물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었다.

입구에 닿자 나는 밧줄을 놓았고, 어깨에 메고 있던 총을 풀었다. 마지막으로 하늘을 바라보았다. 구름이 빠르게 길 것을 눈치챈 것이다. 바람을 가리기 위해 몇 걸음 더 나아가, 촛불 하나를 켜다.

촛불을 머리 위로 높이 들고, 총을 단단히 쥐었다. 천천히 앞으로 나섰다. 시선을 사방으로 던지며 경계했다.

처음 1분 동안은 페퍼의 애절한 울음소리가 아래서부터 들려왔다. 어둠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갈수록 그 소리는 점점 희미해졌다. 이내 나는 아무 소리도 들을 수 없게 되었다. 길은 약간 아래쪽으로, 그리고 왼쪽으로 기울어졌다. 그 길은 계속 왼쪽으로 이어졌고, 결국 그 길이 나를 집 방향으로 이끄는 것임을 깨달았다.

나는 매우 조심스럽게 앞으로 나아갔다. 몇 걸음마다 멈춰 서서 귀를 기울였다. 아마 백 야드쯤 갔을까, 갑자기 뒤쪽 통로 어딘가에서 희미한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심장이 쿵쿵 뛰는 것을 느끼며 나는 귀를 기울였다. 소리는 점점 또렷해졌고, 빠르게 다가오고 있었다. 이제

나는 그 소리를 분명히 들을 수 있었다. 그것은 달리는 발의 부드러운 발소리였다. 첫 공포의 순간, 나는 망설이며 서 있었다. 앞으로 갈지 뒤로 갈지 알 수 없었다. 그런 다음, 가장 좋은 행동을 갑자기 깨달은 나는 오른쪽의 바위 벽으로 물러나, 머리 위에 촛불을 들고 기다렸다. 총을 손에 쥔 채, 바보 같은 호기심으로 인해 이런 곤경에 빠지게 된 자신을 저주했다.

기다릴 시간이 길지 않았다. 몇 초뿐이었다. 어둠 속에서 내 촛불 빛이 두 개의 눈동자에 반사되어 돌아왔다. 나는 오른손으로만 총을 들어 올리고, 재빨리 조준했다. 그 순간, 무언가 어둠 속에서 튀어나왔다. 천둥처럼 메아리치는 기쁨의 짓음과 함께였다.

페퍼였다.

그가 어떻게 그 균열을 타고 내려왔는지, 도무지 감이 잡히지 않았다. 나는 손을 떨며 그의 털을 쓸어주었다. 흠뻑 젖어 있었다. 그는 나를 따라 내려오려다 물에 빠졌을 것이다. 하지만 물에서 올라오는 것은 그에게 그리 어렵지 않은 일일 터였다.

나는 마음을 가라앉히려 잠시 기다렸다. 그리고는 길을 따라 걸었다. 페퍼가 조용히 내 뒤를 따랐다.

나는 그 늙은 녀석이 함께 있어 주어서 묘하게 안도했다. 그는 든든한 동행이었다. 그와 함께 걸으니, 어쩐지 두려움이 덜했다.

또한, 우리 주변을 감싸고 있는 어둠 속에 원치 않는 생물이 있을 경우, 폐퍼의 날카로운 귀가 얼마나 빠르게 그것을 감지할지 나는 잘 알고 있었다.

우리는 몇 분 동안 천천히 걸었다. 길은 여전히 집 쪽으로 곧게 이어져 있었다. 곧 우리는 집 바로 아래에 서게 될 터였다. 길이 그 이상 이어진다면 말이다. 나는 또 약 오십 야드쯤 더 조심스럽게 앞장섰다. 그러다 멈춰 섰고, 등불을 높이 들어 올렸다. 그렇게 해서 고마워할 만한 이유를 나는 충분히 가지고 있었다. 바로 그곳에서, 불과 세 걸음 앞, 길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대신 그곳에는 새까만 구덩이가 있었다. 그 광경은 나에게 갑작스러운 공포를 안겨주었다.

나는 매우 조심스럽게 앞으로 기어가,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때 나는 통로의 왼쪽으로 건너가, 길이 더 이어지는지 살펴보기로 했다. 그곳에서, 벽에 바짝 붙은 채, 너비가 약 3피트쯤 되는 좁은 길이 앞으로 뻗어 있는 것을 발견했다. 나는 조심스럽게 그 길에 발을 디뎠다. 하지만 얼마 가지도 않아, 그곳에 들어선 것을 후회하게 되었다. 몇 걸음 옮기자마자, 이미 좁았던 길은 한낱 좁은 바위 턱으로 변해 버렸다. 한쪽에는 단단하고 굳건한 바위가 보이지 않는 천장까지 거대한 벽처럼 우뚝 솟아 있었고, 다른 한쪽에는 입을 벌린 깊은 심연이 있었다. 만약 그곳에서 공격이라도 받는다면 내가 얼마나 속수무책일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몸을 돌릴 공간조차 없는 그곳에서는, 총의 반동만으로도 나를 저 아래 심연으로 곤두박질치게 하기에 충분할 정도였다.

안도하게도, 조금 더 나아가자 길은 갑자기 다시 원래의 너비로 넓어졌다. 앞으로 걸을수록 길은 꾸준히 오른쪽으로 휘어졌고, 그렇게 몇 분쯤 지나자, 나는 내가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단지 그 거대한 심연 주위를 빙 돌고 있을 뿐임을 깨달았다. 분명, 나는 이 거대한 통로의 끝에 다다른 것이었다.

다섯 분 뒤, 나는 처음 출발했던 자리로 돌아와 섰다. 거대한 구덩이를 완전히 한 바퀴 돈 셈이었다. 내가 짐작하건대, 그 구덩이의 입구는 최소한 백 야드는 될 만큼 넓었다.

잠시 동안 나는 그곳에 서서 복잡한 생각에 잠겨 있었다. '이 모든 것이 대체 무슨 뜻인가?'라는 의문이 내 뇌속에서 반복되기 시작했다.

갑작스레 생각이 떠올랐다. 나는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돌멩이를 찾기 시작했다. 곧 작은 빵 한 덩어리만 한 바위 조각을 발견했다. 촛불을 바닥의 틈새에 똑바로 꽂고, 나는 가장자리에서 조금 뒤로 물러났다. 짧은 달음질로 돌을 구덩이 안으로 던졌다. 벽에 부딪히지 않고 멀리 날아가게 하려는 의도였다.

그리고는 몸을 앞으로 숙여 귀를 기울였다. 하지만 나는 완전히 고요히 숨을 죽이고 한 분 이상 기다렸음에도, 어둠 속에서 아무 소리도 돌아오지 않았다.

그제야 나는 구덩이의 깊이가 상상을 초월할 것임을 직감했다. 돌덩이가 무엇인가에 부딪혔다면, 그 크기로 인해 이 기묘한 공간의 메아리

가 끝없이 맴돌았을 테니까. 실제로도 동굴은 내 발소리를 수없이 되돌려 주었다.

곳곳은 위압감이 감돌았다. 나는 발걸음을 돌려 그 고독의 신비들이 풀리지 않은 채로 남겨두고 싶었다. 다만, 그렇게 하는 것은 곧 패배를 인정하는 것과 같았다.

그때, 구덩이를 내려다보려는 생각이 들었다. 구덩이 가장자리에 촛불을 둘러놓으면, 비록 희미하더라도 그 곳을 볼 수 있을 것 같았다.

촛불을 세어보니, 뭉치 속에 열다섯 개가 들어 있었다. 앞서 말했듯, 처음엔 이들을 모두 모아 햇불로 만들 생각이었다.

나는 그 촛불들을 구덩이 입구 주변에 배치했다. 각 촛불 사이 간격은 약 이십 야드였다.

원을 다 둘러놓고, 나는 통로에 서서 이곳이 어떤 모습인지 가늠해 보려 했다. 하지만 곧 깨달았다. 내 목적에는 그 빛이 전혀 부족하다는 것을. 그 빛은 어둠을 겨우 가시화할 뿐이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효과는 있었다. 바로 그 입구의 크기에 대한 나의 짐작이 옳았음을 확인시켜 준 것이었다. 원하는 것을 보여주지는 못했지만, 무거운 어둠과 대비되는 그 빛은 묘하게도 나를 만족시켰다. 마치 지하의 밤을 뚫고 열다섯 개의 작은 별이 빛나는 듯했다.

그때였다. 나는 그대로 서 있었는데, 페퍼가 갑자기 길게 울부짖었다. 그 소리는 메아리에 의해 되풀이되었고, 기괴하게 변주되며 천천히 사라져 갔다. 나는 재빨리 손에 쥔 한 자루의 촛불을 들어 올리며 동

시에 개를 내려다보았다. 그 순간, 그때까지 고요했던 구덩이의 깊은 곳에서 악마적인 비웃음 같은 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았다. 나는 흠칫 놀랐다. 그리고 나서야 그것이 아마 페퍼의 울부짖음의 메아리일 뿐이라는 것을 떠올렸다.

페퍼는 내 걸을 떠나 복도를 따라 몇 걸음 앞서 나갔다. 그는 바위 바닥을 코로 더듬으며 걸어갔다. 나는 그가 물을 마시는 소리를 듣는 것 같았다. 나는 촛불을 낮게 든 채 그에게 다가가려 했다. 발걸음을 옮기자 내 부츠가 젖은 바닥을 밟아 ‘쑹, 쑹’ 소리를 냈다. 빛이 무언가에서 반사되어 내 발치 옆을 스치듯 지나갔다. 그것은 빠르게 구덩이 쪽으로 기어갔다. 나는 몸을 더 깊이 숙여 내려다보았다. 그러자 놀람을 감추지 못하고 탄성이 터져 나왔다. 길 위, 더 높은 곳에서 물줄기가 거대한 구멍 방향으로 빠르게 흐르고 있었다. 그 물줄기는 매초마다 점점 더 커지고 있었다.

페퍼가 또다시 깊은 숨을 들이쉬며 포효하듯 울부짖었다. 그는 내게 달려와 코트를 낚아채며 입구 쪽 길로 나를 끌어당기려 했다. 신경질적인 동작으로 그를 떨쳐내고, 나는 재빨리 왼쪽 벽 쪽으로 다가갔다. 만약 무언가가 다가오고 있다면, 나는 등 뒤에 벽이 있어야 했다.

그때, 나는 불안한 눈으로 길 위를 응시하고 있었다. 그러자 멀리 통로 위쪽에서 내 촛불에 무언가 번쩍 빛나는 것이 비쳤다. 동시에, 나는 웅웅거리는 굉음을 의식하기 시작했다. 그 소리는 점점 커져, 동굴 전체를 먹먹할 정도로 가득 채웠다. 구덩이에서는 거인의 흐느낌 같은, 깊고 텅 빈 메아리가 울려 퍼졌다. 그 순간, 나는 옆으로 몸을 던져 심

연 주위를 두르고 있는 좁은 바위 턱 위로 올라섰다. 그리고 돌아보니, 거대한 거품의 벽이 내 옆을 스쳐 지나, 입을 벌리고 기다리던 심연 속으로 요란하게 뛰어드는 것이 보였다. 물보라의 구름이 내게 쏟아져 촛불을 꺼뜨렸고, 옷이 살갓까지 흠뻑 젖었다. 나는 여전히 총을 쥐고 있었다. 가장 가까운 세 개의 촛불은 꺼졌지만, 더 멀리 있는 것들은 잠깐 깜빡거렸을 뿐이었다. 첫 물결이 지나간 후, 물줄기는 안정된 흐름으로 누그러져 깊이는 아마 한 피트 정도였을 것이다. 하지만 켜진 촛불 하나를 가져와 정찰을 시작하기 전까지는, 나는 그 사실조차 알 수 없었다. 페퍼는 운 좋게도, 내가 턱 위로 뛰어오를 때 나를 따라왔고, 지금은 매우 풀이 죽은 채 내 뒤를 바짝 따르고 있었다.

잠시 살펴보니, 물이 통로 전체를 가로질러 흐르고 있었다. 흐름은 거세었다. 서 있는 사이에도 이미 수심은 깊어지고 있었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짐작할 뿐이었다. 어쨌든 협곡의 물이 무언가 방법을 내어 통로로 쏟아져 들어온 듯했다. 만약 그렇다면, 물의 양은 계속 불어나 결국 이 곳을 떠나지 못할 지경에 이를 것이었다. 그 생각은 무서웠다. 즉각적으로 빠져나와야 했다.

나는 총의 개머리판 쪽을 쥐고 물의 깊이를 재 보았다. 물은 무릎에 약간 못 미치는 정도였다. 구덩이로 떨어지는 물소리는 귀를 찢을 듯 울려 퍼졌다. 그리고 페퍼를 부르며, 총을 지팡이 삼아 물살 속으로 발을 내디뎠다. 물살이 워낙 빠른 탓에, 물은 순식간에 내 무릎을 넘어 거의 허벅지 위까지 끓어올랐다. 잠시 나는 거의 발을 헛디딜 뻔했다. 하지만 등 뒤에 도사린 그것을 떠올리자 필사적인 힘이 솟구쳤고, 한 걸음, 또 한 걸음, 나는 앞으로 나아갔다.

처음에 나는 페퍼가 어디 있는지 알지 못했다. 두 발로 버티는 것만으로도 벅찼다. 그러던 차에 그가 내 곁에 나타났을 때, 나는 얼마나 다행스러웠는지 모른다. 그는 힘차게 물을 헤치며 나아가고 있었다. 페퍼는 큰 개로, 다리는 길고 가늘었다. 아마도 물이 그의 다리에는 내 다리만큼 단단히 매달리지 못했을 것이다. 어쨌든 그는 나보다 훨씬 잘 움직였다. 마치 안내자처럼 앞서 나갔고, 의도했든 아니든 물의 힘을 어느 정도 막아주는 역할도 해 주었다.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숨을 헐떡이며 몸부림치며 나아갔다. 약 백 야드를 무사히 건넌 즈음이었다. 그때, 내가 더 이상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던 탓이었는지, 바위 바닥에 미끄러운 곳이 있었기 때문이었는지 알 수 없으나, 갑자기 발이 미끄러져 얼굴이 먼저 물에 처박혔다. 순간, 물줄기가 폭포처럼 나를 덮치며, 그 끝없는 구덩이 쪽으로 끔찍한 속도로 나를 휩쓸어 갔다. 나는 필사적으로 몸부림쳤지만 발판을 잡을 수 없었다. 나는 속수무책이었고, 숨이 막혀 익사할 지경이었다. 그때 갑자기 무언가가 내 코트를 꼭 붙잡으며 나를 멈춰 세웠다. 페퍼였다. 나를 잃은 그는 어둠 속 거센 물살을 헤치고 다시 달려와 나를 찾아냈고,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을 때까지 나를 붙들어 주었음이 분명했다.

나는 잠시 동안 여러 개의 빛이 반짝이는 것을 본 것 같은 희미한 기억이 있다. 하지만 이것에 대해서는 내가 확신하지 못한다. 만약 나의 인상이 정확하다면, 페퍼가 나를 간신히 멈추기 전에 나는 그 끔찍한 심연의 가장자리까지 쏠려 내려갔어야 한다. 그리고 그 빛들은 당연히 내가 남겨둔 촛불들의 먼 불꽃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내가 말했듯이,

나는 절대적으로 확신하지 못한다. 내 눈은 물로 가득 찼고, 나는 심하게 흔들렸다.

충도, 빛도 없이 나는 방황했다. 물은 점점 깊어졌고, 나는 혼란스러웠다. 오직 오래된 친구인 페퍼에게만 의지하며, 그 지옥 같은 곳에서 빠져나갈 방법을 찾고 있었다.

나는 급류를 마주 보고 서 있었다. 당연한 일이었다. 그것만이 잠시라도 내가 그 자리를 지킬 수 있었던 유일한 방법이었기 때문이다. 늪은 페퍼라 할지라도, 비록 맹목적이거나 내 쪽에서 거드는 도움이 없었다면, 그 무시무시한 압력에 맞서 나를 오래 붙들고 있을 수는 없었을 것이다.

아마도 1분쯤 지났을까. 그동안 나는 생사의 갈림길에 서 있었다. 그러다가 천천히, 나는 다시 통로를 따라 굽이굽이 위쪽으로 나아가기 시작했다. 그렇게, 내가 일찍이 승자로 빠져나오기를 바라본 그 어떤 싸움보다도 가장 치열한, 죽음과의 싸움이 시작되었다. 나는 천천히, 격렬하게, 거의 희망도 없이 몸부림쳤다. 그리고 충실한 페퍼가 나를 이끌고 끌어당기며 위로, 앞으로 나아가게 했다. 마침내 나는 앞쪽에 축복받은 한 줄기 빛을 보았다. 그것이 입구였다. 단 몇 야드만 더 가서 나는 그 개구부에 도달했고, 물은 내 허리께를 굽주린 듯 굽이치며 끓어오르고 있었다.

이제야 그 참사의 원인을 깨달았다. 비가 거세게, 말 그대로 폭우처럼 쏟아지고 있었던 것이다. 호수 표면은 입구 바닥과 같은 높이에 다다랐다. 아니, 그 이상이었다. 수위는 이미 입구보다 높아져 있었다.

분명 비로 인해 호수가 불어났고, 그로 인해 수위가 예정보다 일찍 치솟은 것이다. 협곡이 채워지던 속도로 보면, 물이 입구에 닿으려면 며칠은 더 걸렸을 것이다.

운이 좋게도, 내가 내려왔던 밧줄이 밀려드는 물결에 실려 구멍 안으로 들어오고 있었다. 나는 밧줄 끝을 붙잡아 페퍼의 몸에 단단히 매듭을 지었다. 그리고 남은 기운을 짜내어 절벽을 오르기 시작했다.

다행히도 나는 구덩이 가장자리에 도달했다. 하지만 나는 이미 피로의 극치에 달해 있었다. 그래도 한 번 더 힘을 내어 페퍼를 안전한 곳으로 끌어올려야 했다.

나는 느리고 지친 몸으로 밧줄을 당겼다. 한두 번은 포기해야 할 것만 같았다. 페퍼는 체중이 꽤 나가는 개였고, 나는 이미 완전히 탈진 상태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밧줄을 놓는 것은 그 늙은 녀석에게 확실한 죽음을 뜻했고, 그 생각만이 나를 더 큰 노력으로 몰아붙였다. 끝부분에 대한 기억은 매우 흐릿하다. 이상하게 더디게 흘러가는 순간들 속에서, 내가 밧줄을 당기고 있었다는 것이 어렴풋이 기억난다. 또한 헤아릴 수 없을 만큼 긴 시간이 지난 후, 페퍼의 주둥이가 구덩이 가장자리 위로 나타나는 것을 본 기억도 어렴풋이 남아 있다. 그리고 갑자기 모든 것이 어둠에 잠겼다.

십삼

대지하실의 함정

나는 아마도 기절했던 모양이다. 다음으로 기억나는 것은, 내가 눈을 떴을 때 주변이 이미 어스름해져 있었다는 것이다. 나는 등을 대고 누워 있었고, 한 다리는 다른 다리 아래로 말려 있었다. 페퍼가 내 귀를 핥고 있었다. 나는 심하게 뻗뻗함을 느꼈고, 무릎부터 아래쪽으로는 다리가 저려왔다. 몇 분 동안 나는 멍한 상태로 그 자세를 유지하다가, 천천히 일어나 앉으려 애썼다. 그리고 주변을 둘러보았다.

비가 그쳤지만, 나무들은 여전히 처참하게 물방울을 떨어뜨리고 있었다. 구덩이에서는 흐르는 물의 끊임없는 웅웅거림이 들려왔다. 나는 축고 오한이 들었다. 옷은 흠뻑 젖었고, 온몸이 쭈셨다. 마비되었던 다리에 천천히 생기가 돌아왔고, 잠시 후 나는 일어나려 시도했다. 두 번째 시도로 간신히 성공했다. 하지만 나는 매우 비틀거리었고, 유난히 힘이 없었다. 내가 곧 병에 걸릴 것 같아, 집 쪽으로 비틀거리며 가는 체력을 겨우 짜냈다. 내 걸음은 불규칙했고, 머리는 혼란스러웠다. 한 걸음을 내딛을 때마다 날카로운 통증이 사지를 뚫고 지나갔다.

나는 아마 서른 걸음쯤 걸어갔을까. 그때 페퍼의 비명이 내 귀에 들어왔다. 나는 굳은 몸으로 그를 향해 돌아섰다.

노견 페퍼가 나를 따라오려 애쓰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나아갈 수 없었다. 내가 그를 끌어올릴 때 사용했던 밧줄이 여전히 그의 몸 둘레에 감겨 있었기 때문이다. 나무에 묶여 있던 다른 쪽 끝은 아직 풀리지 않은 채였다.

잠시 동안 나는 약한 손으로 매듭을 풀려 했다. 하지만 밧줄은 젖어 있고 단단해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그러다 나는 칼을 떠올렸다. 그리고 단숨에 밧줄을 베어냈다.

그 집에 어떻게 도착했는지 나는 거의 기억하지 못한다. 그 이후의 날들은 더더욱 희미하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하다. 누이의 지칠 줄 모르는 사랑과 간호가 없었다면, 지금 이 순간 글을 쓰고 있는 나는 없었을 것이다.

의식을 되찾았을 때, 나는 이미 약 두 주 동안 침대에 누워 있었다. 그로부터 또 일주일이나 지나서야 나는 간신히 힘을 얻어 비틀거리며 정원으로 나갈 수 있었다. 그때조차도 구덩이까지 걸어갈 수 있을 만큼은 아니었다. 물이 얼마나 차올랐는지 누이에게 묻고 싶었지만, 그 얘기를 꺼내지 않는 편이 현명하다고 느꼈다. 사실 그 이후로 나는 이 거대하고 낡은 집에서 일어나는 기이한 일들에 대해 누이에게는 절대로 이야기하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이틀쯤이 더 지나서야 나는 비로소 구덩이까지 건너갈 수 있었다. 그곳에 가 보니, 내가 몇 주 자리를 비운 사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 있었다. 4분의 3쯤 차 있던 협곡 대신, 내 앞에 펼쳐진 것은 거대한 호수였고, 그 잔잔한 수면은 차갑게 빛을 반사하고 있었다. 물은 구덩이가 가장자리에서 약 6피트 이내까지 차올라 있었다. 호수에서 수면이 일렁이는 곳은 오직 한 군데뿐이었다. 그곳은 침묵의 물속 깊이, 거대한 지하 구덩이의 입구가 입을 벌리고 있던 자리 바로 위였다. 그곳에서는 끊임없이 거품이 끓어올랐고, 가끔은 깊은 곳에서 흐느낌 같은 기이한

꿀렁임 소리가 올라오기도 했다. 그 외에는, 물속에 감추어진 것들에 대해 알려줄 단서는 아무것도 없었다. 그곳에 서서 나는 일들이 얼마나 놀랍게 풀려 갔는지 깨달았다. 돼지것들이 나왔던 곳의 입구는 봉쇄되어 있었고, 그 봉쇄의 힘은 이제 그들로부터 더는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확신을 주었다. 그러나 그 확신과 함께, 이제 나는 그 끔찍한 것들이 나왔던 장소에 대해 더 이상 아무것도 알 수 없게 되었다는 느낌이 밀려왔다. 그곳은 인간의 호기심으로부터 영원히 완전히 차단되고 숨겨져 버린 것이다.

기이했다. 그 지옥 같은 구덩이에 대한 지식을 가진 자라면, ‘구덩이(Pit)’라는 이름이 얼마나 절묘하게 붙여졌는지 알 수 있었다.

그 이름이 언제, 어떻게 생겨났는지 궁금해지지 않을 수 없었다. 당연히, 협곡의 모양과 깊이가 ‘구덩이’라는 이름을 떠올리게 했으리라 추측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그것은 오랜 세월 더 깊은 의미를 품어왔던 것은 아닐까? 만약 우리가 그것을 짐작할 수만 있었다면, 이 낮은 집 아래, 땅 깊은 곳에 자리한 훨씬 더 위대하고 경이로운 ‘구덩이’에 대한 암시를 건네주었을 것이다.

이 집 바로 아래에! 지금도 이 생각은 나를 기이하고도 끔찍하게 만든다.

나는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했다. 그 구덩이가 집 바로 아래로 벌어진 있다는 사실을. 이 집은 분명 그 구덩이 중심부 바로 위에 위치해 있으며, 어딘가에서 거대한 암반 아치형 천장 위에 지탱되고 있었다.

그런 일이 있게 된 것은, 지하실로 내려가야 할 일이 있어서였다. 그때 문득, 함정이 있는 큰 지하 저장실을 한번 들여볼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내가 떠날 때와 똑같은 상태인지 확인해 보고 싶었다.

그 장소에 다다랐다. 나는 천천히 중앙을 따라 걸어가, 함정에 도착했다. 그곳에는 돌들이 쌓인 채, 내가 마지막으로 봤을 때와 똑같이 놓여 있었다.

나는 등불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문득, 지금이 그 거대한 참나무 판 아래에 무엇이 있는지 조사해 볼 좋은 기회라는 생각이 들었다. 등불을 바닥에 내려놓고, 나는 함정 위의 돌들을 치웠다. 손잡이를 잡고 문을 열자마자, 지하실은 깊은 아래로부터 들려오는 은은한 천둥소리로 가득 찼다. 동시에, 축축한 바람이 내 얼굴로 불어왔고, 미세한 안개 입자를 함께 실어왔다.

그리고 나는 반쯤 놀란 경외감에 휩싸여, 함정을 급히 닫았다.

잠시 동안 나는 당황해 서 있었다. 특별히 무서웠던 것은 아니다. 돼지것들에 대한 그 기이한 공포는 이미 오래전에 사라져버렸다. 하지만 분명히 신경이 날카로워졌고, 놀라움도 컸다.

그때 문득 한 생각이 나를 사로잡았다. 나는 흥분되는 느낌을 느끼며 무거운 문을 들어 올렸다.

문을 세운 채로 고정해 둔 채, 나는 등불을 집어 들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그 구멍 안으로 등불을 밀어 넣었다.

그 순간, 축축한 바람과 물보라가 내 눈으로 쏟아져 들어와 잠시 동안 아무것도 볼 수 없었다. 눈이 다시 맑아졌을 때도, 어둠과 휘몰아치는 물보라 외에는 아래쪽에 아무것도 식별할 수 없었다.

빛이 너무 높이 있어서 아무것도 분간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에, 나는 등불을 그 구멍 안으로 더 깊이 내려보낼 끈을 찾아 주머니를 더듬었다. 그렇게 더듬는 사이, 등불이 내 손가락에서 미끄러져 어둠 속으로 추락했다. 잠시 동안 나는 그 추락을 지켜보았고, 등불의 빛이 내 발 아래로 80에서 100피트쯤 떨어진 곳에서 일렁이는 하얀 거품들을 비추는 것이 보였다. 그리고 곧 빛은 사라졌다. 내가 갑자기 떠올린 추측은 정확했다. 이제 나는 그 습기와 소리의 정체를 알았다. 거대한 지하실은 함정을 통해 구덩이와 연결되어 있었고, 그 함정은 구덩이 바로 위로 열려 있었다. 그리고 그 습기는 깊은 곳으로 떨어지는 물에서 올라오는 물보라였다.

순간이었다. 지금까지 나를 괴롭혀 왔던 일들의 해답이 번뜩였다.

침공이 시작된 첫날 밤, 발밑에서 울려 퍼지던 소리가 왜 그렇게 들렸는지 이제야 알 수 있었다. 그리고 함정을 처음 열었을 때 들렸던 그 비웃는 듯한 웃음소리. 분명히, 돼지것들 중 일부가 바로 내 밑바닥에 있었을 것이다.

또 다른 생각이 나를 사로잡았다. 그 생물들은 모두 익사한 것일까? 아니, 그들이 익사할 수 있긴 한 것일까? 내가 쏜 총탄이 정말로 그들에게 치명적이었음을 보여주는 흔적을 전혀 찾을 수 없었던 일이 떠올랐다. 그들이 우리가 이해하는 의미의 생명을 가진 존재였을까, 아니면 구울과 같은 존재였을까? 어둠 속에 선 채 성냥을 찾아 주머니를 뒤지는 동안, 이런 생각들이 내 뇌리를 스쳤다. 이제 성냥갑이 손에 잡혔고, 성냥을 켜 뒤 나는 함정 문 앞으로 다가가 그것을 닫았다. 그러고 나서 그 위에 돌들을 다시 쌓아 올린 뒤, 지하실 밖으로 빠져나왔다.

그리고 생각건대, 물은 계속 그 끝없는 지옥의 구렁이로 떨어지고 있을 것이다. 때때로 나는 거대한 지하실로 내려가, 뚜껑문을 열고 그 침투할 수 없는, 분무로 젖은 어둠을 응시하고 싶은 설명할 수 없는 욕망을 느낀다. 그 강도는 때로 거의 압도적이기까지 하다. 나를 부추기는 것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다. 오히려 어떤 설명할 수 없는 영향력이 작용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 그럼에도 나는 결코 내려가지 않는다. 그리고 이 기묘한 갈망을 꺾고, 짓눌러 버리려 한다. 마치 자해라는 불경한 생각을 억누를 때와 마찬가지로.

어떤 보이지 않는 힘이 작용한다는 이 생각은 근거가 없어 보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나의 직감은 그렇지 않다고 경고한다. 이런 일들에서 는 이성을 믿는 것보다 직감을 믿는 편이 낫다.

마무리하며, 점점 더 강하게 나를 압박하는 한 가지 생각이 있다. 나는 매우 기묘한, 아니 끔찍한 집에 살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제 나는 이곳에 머무르는 것이 현명한 선택인지 의문이 들기 시작한다.

하지만 만약 내가 떠난다면, 어디로 가야 할까? 그리고 여전히 고독을 유지할 수 있을까? 그녀가 함께 있는 듯한 그 느낌, 그것만이 나의 과거 삶을 견딜 수 있게 해주는 유일한 요소였다.

XIV

잠의 바다

일기 마지막 사건 이후로, 나는 꽤 오랜 기간 동안 이 집을 떠나야겠다는 진지한 생각을 했다. 실제로 떠날 수도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내가 이제부터 기록하려고 하는, 위대하고 놀라운 일 때문에 결국 떠나지 못했다.

그때 내 마음속에 얼마나 옳은 충고가 있었던가—이 미지의 설명 불가한 환영과 광경들에도 불구하고 이곳에 머물렀으니. 만약 내가 머물지 않았다면, 내가 사랑했던 그녀의 얼굴을 다시는 보지 못했으리라. 그렇다, 비록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고, 이제는 내 누이 메리만이 알고 있을 뿐이지만, 나는 사랑했었고—아, 그리고—있었다.

나는 그 달콤하고 옛적의 시절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려 한다. 하지만 그것은 오래된 상처를 찢어내는 일과 같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내가 겪은 일들을 생각해보면, 내가 무엇을 걱정할 필요가 있겠는가? 그녀는 미지의 세계로부터 나에게 찾아왔다. 이상하게도, 그녀는 이 집에 대해 경고했다. 이 집을 떠나달라고 간청했다. 하지만 내가 그녀에게 물었을 때, 그녀는 내가 다른 곳에 있었다면 결코 나에게 올 수 없었을 것이라고 인정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여전히

간곡하게 나에게 경고했다. 이곳은 오랫동안 악에 넘겨져 있으며, 여기 누구도 알지 못하는 엄격한 법칙들의 지배를 받고 있는 곳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나는—나는 그녀에게 다른 곳에서 나를 만나러 올 수 있겠냐고 다시 물었다. 그녀는 단지 침묵하며 서 있을 뿐이었다.

이렇게 해서 나는 잠의 바다, 즉 그녀가 내게 사랑스럽게 부르던 그 장소에 이르렀다. 나는 서재에서 책을 읽다가 결국 책 위에 고개를 숙인 채 잠이 들었던 것이다.

갑자기 나는 놀라 벌떡 일어났다. 잠시 동안 나는 어딘가 평범하지 않은 기운이 감도는 것을 의아해하며 주위를 둘러보았다. 방 안에는 안개가 낀 듯한 기운이 감돌아, 책상과 의자, 그리고 갖가지 가구들의 윤곽이 기묘하게 부드럽게 물들어 있었다.

안개는 서서히 짙어졌다. 마치 무에서 유가 탄생하듯, 안개는 자라났다. 그러자 천천히, 방 안에 부드러운 흰빛이 스며들기 시작했다. 촛불의 불빛은 그 안을 통과해 흐릿하게 빛났다. 나는 양옆을 두리번거렸다. 여전히 각 가구를 볼 수 있었지만, 그 모습은 기이하게도 비현실적이었다. 마치 각 테이블과 의자의 유령이 실제 가구 자리를 대신하고 있는 듯했다.

천천히, 응시하는 사이, 나는 그들이 서서히 흐려지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은 천천히 무(無) 속으로 녹아 사라졌다.

다시 촛불을 바라보았다. 희미하게 빛나던 촛불은, 내가 지켜보는 사이 더욱 비현실적으로 변해 갔다. 그러다 이내 사라졌다.

방은 이제 부드러운, 그러나 빛나는 흰 황혼으로 가득 찼다. 마치 빛의 부드러운 안개와도 같았다. 그 너머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벽조차도 사라져 버린 것이다.

잠시 후, 나는 나를 감싸고 있던 고요함 속을 미세하지만 끊이지 않는 소리가 스며드는 것을 깨달았다. 귀를 기울여 들었다. 그 소리는 점점 선명해졌고, 이내 나는 거대한 바다의 숨소리를 듣는 것 같았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얼마 후, 안개 낀 시야가 조금씩 맑아지는 것을 느꼈다. 천천히, 내가 거대하고 고요한 바다의 기슭에 서 있다는 것을 의식하게 되었다. 그 해안은 매끄럽고 길게 이어져, 좌우로 극한의 거리까지 사라져 갔다.

앞에는 잠든 대양이 정적 속에 펼쳐져 있었다. 때때로, 그 수면 아래에서 미세한 빛의 자취가 스치는 것 같았으나, 확신할 수는 없었다.

뒤로는 기묘할 정도로 높은, 야위고 검은 절벽들이 우뚝 솟아 있었다.

머리 위 하늘은 균일한 차가운 회색빛이었다. 그곳 전체는 멀리 지평선 위에 살짝 떠 있는 거대한 창백한 불덩이에 의해 밝혀지고 있었다. 그 불덩이는 고요한 물결 위에 거품 같은 빛을 뿌려 놓고 있었다.

바다의 은은한 웅웅거림 너머로, 강렬한 정적이 드리워 있었다. 나는 오랫동안 그곳에 서서, 그 기이한 광경을 바라보았다.

그때, 응시하는 내 눈앞에 하얀 거품 한 방울이 깊은 바다에서 떠오르는 것이 보였다. 그리고 지금도 나는 그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알 수 없다. 나는 그녀—아, 맞다, 그녀의 얼굴을, 아니 그녀의 영혼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는 나를 돌아보았다. 기쁨과 슬픔이 뒤섞인 그 눈빛에, 나는 눈앞이 캄캄해져 그녀를 향해 달려갔다.

기억의 고통, 공포, 그리고 희망이 교차하는 절규 속에서, 나는 이상한 목소리로 그녀를 불렀다. “나에게 오세요.”

하지만 나의 외침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바다 한가운데서 움직이지 않았다. 다만 슬픈 표정으로 고개를 저을 뿐이었다. 그러나 그녀의 눈에는 우리가 헤어지기 전, 그 무엇보다 먼저 내가 익히 알았던, 옛 지구의 온화한 빛이 서려 있었다.

그녀의 고집스러운 태도에 나는 절망에 빠졌다. 그녀에게로 건너가려 발을 내디뎠으나, 원하건만 할 수 없었다. 보이지 않는 어떤 장벽이 나를 붙잡아 댔고, 나는 그 자리에 머물러야 했다. 영혼의 깊은 곳으로부터 그녀를 향해 부르짖었다.

“오, 나의 사랑스러운 이여, 나의 사랑스러운 이여—”

그러나 너무도 강한 감정 때문에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그 순간, 그녀가 재빨리 다가와 나를 만졌다. 마치 천국이 열려버린 것 같았다.

하지만 내가 손을 뻗어 그녀를 끌어당기려 하자, 그녀는 다정하면서도 단호한 손으로 나를 밀어냈다. 나는 당황해져 버렸다.

조각들[2]

(훼손된 낱장들 중 판독 가능한 부분.)

눈물 속에 ... 귀에는 영원의 소음이 울려 퍼졌고, 우리는 헤어졌다
... 내가 사랑하는 그 여자와. 오, 나의 주여 ...!

나는 한참 동안 멍하니 있었다. 그러자 밤의 검은 어둠 속에 홀로 남
았다. 나는 다시 알 수 있는 우주로 돌아오고 있음을 알았다. 끝이여 나
는 그 거대한 어둠을 빠져나왔다. 나는 별들 사이에 도착해 있었다.
…… 긴 시간이 흐른 뒤였다. …… 해는 멀리, 아주 멀리 있었다.

나는 우리 태양계와 바깥 별들 사이에 있는 심연으로 들어섰다.

분리된 어둠을 가로질러 날아가는 동안, 나는 끊임없이 커져만 가는
우리 태양의 빛과 크기를 응시했다.

한 번은 뒤를 돌아보았다. 별들이 내 뒤에서 움직이는 것을 보았다.
마치 밤이라는 거대한 배경 앞에서 별자리가 달라지는 것처럼 보였다.
내 영혼이 지나가는 속도가 얼마나 막강했는지, 그 광경이 말해 주었
다.

나는 우리 태양계 안쪽으로 더 가까이 다가갔다. 이제 나는 목성의
빛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잠시 후, 나는 지구가 반사하는 차갑고 푸
른 빛을 식별해냈다.

순간 나는 당혹감에 휩싸였다. 태양 주변에는 밝은 물체들이 가득했고, 그것들은 빠른 궤도를 돌고 있었다. 태양의 야성적인 영광에 가까운 안쪽에는 쏜살같이 내달리는 두 개의 빛점이 돌고 있었고, 더 멀리서 푸르고 빛나는 한 점이 날아다니고 있었다. 나는 그것이 지구임을 알았다.

그것은 지구의 시간으로 1분에 지나지 않는 듯한 주기로 태양을 한 바퀴씩 돌고 있었다.

더 가까워졌다. 엄청난 속도로. 목성과 토성의 빛나는 광채가 놀라운 속도로 거대한 궤도를 돌고 있는 것이 보였다. 그리고 나는 점점 더 가까이 다가갔으며, 이 이상한 광경—어머니 태양 주위를 눈에 보일 만큼 빠르게 공전하는 행성들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마치 시간이 나에게서는 사라져 버린 듯했다. 그래서 1년은 육체 없는 내 영혼에게, 마치 지상에 묶인 영혼에게 한순간이 느껴지는 것과 다름없었다.

행성들의 속도가 점점 빨라지는 듯했다. 잠시 후, 나는 태양을 지켜보았다. 태양은 여러 색의 불꽃으로 된 머리카락 같은 고리들에 둘러싸여 있었다. 그 고리들은 행성들이 거대한 속도로 중심의 불꽃 주위를 돌며 남긴 자취였다.

"... 해가 거대해졌다. 마치 나를 만나기 위해 뛰어오르는 듯했다. 그리고 이제 나는 외행성들의 궤도 안쪽으로 들어와, 지구가 있는 곳으로 빠르게 날아갔다. 지구는 푸른 궤도의 광채를 뿜으며, 마치 화염 안개처럼 해를 기괴한 속도로 돌고 있었다...." [3]

XV

밤의 소음

이제 나는 이 신비의 집에서 나에게 일어난 기이한 일들 중 가장 기묘한 사건을 이야기하려 한다. 그 일은 아주 최근, 한 달 이내에 일어난 일이다. 내가 본 것이 실로 모든 것의 종말이었음에 나는 거의 의심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제 내 이야기로 돌아가자.

어찌 된 일인지, 나는 일어난 바로 그 순간에 이들을 기록해 내지 못했다. 마치 잠시 시간을 기다려야만 했던 것이다. 평정을 되찾고, 내가 들었거나 보았던 것들을 소화해 내야만 했다.

물론 이것이 마땅한 일인지도 모른다. 기다림으로써 사건들을 더 진실하게 바라볼 수 있고, 더 차분하고 공정한 심정으로 그것들을 쓸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건 어쨌든 말이다.

이제 11월의 끝자락이다. 내가 말하려는 일은 이 달 초순, 정확히 말해 첫 주에 벌어진 일이다.

밤 열한 시쯤이었다. 페퍼와 나는 서재에서 서로의 동무가 되어 시간을 보냈다. 내 서재는 크고 넓은 방이었다. 나는 그곳에서 읽고 일했다. 신기하게도, 나는 이때 성경을 읽고 있었다. 최근 들어 나는 이 위대하고 오래된 책에 점점 더 깊은 관심을 갖게 되었다.

갑자기 집이 뚜렷하게 흔들렸다. 희미하고 먼 곳에서 웅웅거리는 소리가 들렸고, 그것은 순식간에 멀리서 들려오는 먹먹한 비명 소리로 커졌다. 그 소리는 기묘하고 거대한 방식으로, 시계의 걸쇠가 풀려 태엽이 다 풀려 멈출 때 나는 소리를 떠올리게 했다. 소리는 아주 높은 곳에서, 어둠 속 어딘가에서 나는 것 같았다. 흔들림은 한 번뿐이었다. 나는 페퍼 쪽을 바라보았다. 그는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다.

서서히 빙빙 도는 소리가 잦아들었고, 긴 침묵이 찾아왔다.

그 순간, 집 옆으로 길게 튀어나온 끝 창문이 갑자기 빛으로 가득 찼다. 그 창문은 그곳에서 동쪽과 서쪽을 한꺼번에 바라볼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 나는 당황했다. 잠시 망설이다가 방을 가로질러 걸어가, 블라인드를 걷어냈다.

그때 나는 지평선 너머로 해가 뜨는 것을 보았다. 해는 일정하고도 뚜렷한 속도로 떠올랐다. 나는 해가 위로 올라가는 것을 직접 확인할 수 있었다. 불과 일분쯤 만에, 내가 바라보던 나무 꼭대기까지 해가 올라와 있었다.

위로, 위로 — 이제 환한 대낮이 되어 있었다.

내 뒤에서 모기처럼 날카로운 웅웅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돌아보았고, 그 소리가 시계에서 나오는 것임을 알았다. 내가 바라보는 순간, 시계는 한 시간을 지나쳤다. 분침은 일반 초침보다 훨씬 빠르게 시계판을 돌고 있었다. 시침은 한 칸에서 다른 칸으로 빠르게 움직였다. 나는 멍한 놀라움에 사로잡혔다.

잠시 후, 두 개의 양초가 거의 동시에 꺼졌다. 나는 재빨리 창문 쪽으로 돌아섰다. 창틀의 그림자가 바닥을 가로질러 내 쪽으로 이동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다. 마치 거대한 등불이 창문을 지나 위로 운반되는 것 같았다.

해가 이미 하늘 높이 떠올랐고, 여전히 움직이고 있는 것이 보였다. 해는 집 위를 지나갔는데, 그 움직임은 기이할 정도로 유영하듯 미끄러지는 동작이었다. 창문이 그림자 속으로 들어갈 때, 나는 또 다른 기이한 광경을 목격했다.

맑은 날씨의 구름들이 하늘을 쉽게 지나가는 것이 아니었다. 마치 시속 백 마일의 바람이 불어오는 듯, 구름들은 달아나듯 빠르게 움직였다. 구름이 지나갈 때마다 그 모양은 분당 천 번씩이나 변했다. 마치 기이한 생명에 사로잡혀 꿈틀거리듯이. 그렇게 사라져 갔다. 그리고 곧 다른 구름들이 나타나, 같은 방식으로 휙 지나갔다.

서쪽 하늘에서 해가 떨어졌다. 놀라울 정도로 매끄럽고 빠른 동작으로. 동쪽으로는 보이는 모든 사물의 그림자가 다가오는 회색빛 속으로 기어갔다. 그리고 그 그림자들의 움직임이 내 눈에 들어왔다.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 그림자들이 은밀하게, 꿈틀거리며 기어가는 모습. 이상한 풍경이었다.

방 안이 순식간에 어둠에 잠겼다. 해가 수평선 아래로 미끄러져 내려가더니, 마치 강제로 시야에서 사라지듯 툭 하고 모습을 감췄다. 빠르게 흘러가는 저녁의 잿빛을 뚫고, 나는 남쪽 하늘에서 서쪽으로 떨어

지는 은빛 초승달을 보았다. 저녁은 거의 순간적으로 밤으로 변해버린 듯했다.

내 머리 위, 수많은 별자리들이 기이하게도 소리 없이 서쪽으로 돌며 지나갔다. 달은 밤의 심연, 그 마지막 천 길 깊이의 어둠 속으로 떨어졌고, 이제 오직 별빛만이 남아 있었다.

그때쯤, 구석에서 들리던 웅웅거림이 멎었다. 시계가 멈췄다는 뜻이었다. 몇 분의 시간이 흘렀다. 동쪽 하늘이 밝아지는 것이 보였다. 회색빛의 우울한 아침이 모든 어둠을 뒤덮었고, 별들의 행진을 가려버렸다.

머리 위로는 거대하고 이음새 없는 회색 구름의 하늘이 무겁고 영원한 구름의 굴림을 이루며 움직였다. 평범한 지구상의 하루 종일 그 구름 하늘은 정지해 있는 것처럼 보일 만큼 느렸다. 해는 내게서 숨어 있었다. 하지만 순간순간, 미세한 빛과 그림자의 파도 아래에서 세계는 밝아졌다가 어두워졌다, 밝아졌다가 어두워졌다.

빛이 서쪽으로 기울었다. 밤이 대지에 내려앉았다. 그와 함께 거대한 비가 쏟아지는 듯했고, 지극히 특이한 소음을 지닌 바람이 불어닥쳤다. 밤새 몰아친 폭풍의 울부짖음이 단 일 분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가득 차 오르는 듯했다.

소음은 곧 사라졌다. 구름이 갈라지자 다시 하늘이 드러났다. 별들이 놀라울 정도로 빠른 속도로 서쪽으로 날아갔다.

바람 소리는 그쳤지만, 내 귀에는 끊임없이 ‘흐릿한’ 소리가 맴돌고 있었다. 이제야 깨달았다. 그 소리는 처음부터 내 곁에 함께하고 있었다. 그것은 바로 이 세계의 소음이었다.

그때였다. 나는 막대한 이해를 붙잡으려 애썼지만, 동쪽에서 빛이 찾아왔다. 심장이 몇 번 뛰는 사이, 해가 빠르게 떠올랐다. 나무 사이로 그것을 보았고, 이내 그것은 나무 위를 지나갔다. 위로, 위로, 그것은 솟구쳤고 온 세상이 빛으로 가득 찼다. 해는 가장 높은 고도까지 빠르고 안정된 궤도로 올라갔다가, 다시 서쪽으로 떨어졌다. 나는 낮이 내 머리 위에서 보이는 대로 흘러가는 것을 보았다. 몇몇 가벼운 구름이 북쪽으로 흩날리며 사라졌다. 해는 한 번의 빠르고 선명한 추락으로 지고, 몇 초 동안 나는 어스름한 황혼의 짙은 회색에 둘러싸였다.

남쪽과 서쪽으로 달이 급격히 가라앉고 있었다. 밤이 이미 찾아온 것이다. 단 한 분의 시간인 듯했고, 달은 어둠으로 뒤덮인 하늘의 나머지 깊이를 떨어졌다. 또 다른 한 분의 시간이 흐르자 동쪽 하늘은 떠오르는 여명의 빛으로 물들기 시작했다. 해가 놀랄 만큼 갑작스럽게 내 앞에 솟구치더니, 천정을 향해 점점 더 빠르게 솟구쳐 올랐다.

그때 갑자기 내 눈에 낮선 것이 들어왔다. 검은 뇌운이 남쪽에서 치솟아 올랐고, 단 한 순간에 하늘의 모든 호를 가로지르며 뛰어오르는 듯했다. 뇌운이 다가오는 것을 보자, 그 전진하는 가장자리는 하늘의 거대한 검은 천처럼 펄럭이고 있었다. 그것은 공포스러운 암시를 품은 채 빠르게 빙글빙글 돌며 물결쳤다.

순간, 공기는 비로 가득 찼고, 수백 번의 번개가 마치 하나의 거대한 소나기처럼 쏟아져 내리는 듯했다. 같은 순간, 세상의 모든 소리는 바람의 포효 속에 묻혀버렸고, 이어 내 귀는 천둥의 충격적인 타격 아래서 아파왔다.

폭풍우 한가운데서 밤이 닳쳤다. 그리고 불과 일 분도 지나지 않아 폭풍은 그쳤다. 내 귀에는 세계의 소음이 끊임없이 ‘흐릿하게’ 울려올 뿐이었다.

머리 위, 별들이 서쪽으로 빠르게 흘러갔다. 아마도 그들이 이론 특정 속도가 나를 깨우쳤다. 처음으로, 지구가 도는 것이라는 사실을 날카롭게 깨달았다.

순간, 나는 거대한 어둠의 덩어리인 지구가 별들을 배경으로 분명히 회전하는 것을 보는 것 같았다.

해와 새벽이 하나로 합쳐지는 듯했다. 세계의 회전이 그토록 격렬하게 빨라졌기 때문이다. 해는 길고도 일정한 곡선을 그리며 솟구쳤다가, 최고점에 도달하면 곧장 서쪽 하늘로 떨어지며 사라졌다. 저녁은 너무 짧아, 나는 거의 그 존재를 의식하지 못했다.

그다음 나는 날아다니는 별자리들과 서쪽으로 재촉하는 달을 지켜보았다. 몇 초의 시간처럼 느껴지는 짧은 순간, 달은 밤하늘의 짙은 푸름을 가르며 급격히 하강했다. 그리고는 순식간에 자취를 감췄다.

그리고 곧이어 아침이 찾아왔다.

이제 묘한 가속도가 느껴졌다. 해가 하늘을 한 번 깨끗하고 또렷하게 훑고 지나가자, 서쪽 지평선 너머로 사라졌다. 밤도 같은 속도로 찾아와서는 이내 지나갔다.

다음 날이 밝아오고 다시 저물어갈 때, 나는 갑자기 땅 위에 내린 눈의 땀을 느끼고 있었다. 밤이 찾아오자, 거의 즉시 낮이 다시 찾아왔다. 해가 짧은 순간을 내달리는 사이, 나는 눈이 사라진 것을 보았다. 그리고 다시 밤이 찾아왔다.

이렇게 상황은 전개되었다. 내가 겪은 수많은 기이한 일들 이후에도, 나는 늘 깊은 경외감에 사로잡혔다.

태양이 오르고 지는 것을 초 단위로 재는 짧은 시간 안에 목격했다. 조금 지나자 달이 뛰어오르는 것을 보았다. 창백하고 점점 커지는 구체가 밤하늘로 솟아오르더니, 기이한 속도로 푸른 하늘의 거대한 호를 가로질러 미끄러져 갔다. 곧이어 태양이 뒤따랐다. 동쪽 하늘에서 쫓아오듯 솟구쳐 나왔다.

그리고 다시 밤이 찾아왔다. 별자리들이 유령처럼 빠르게 지나갔다. 이 모든 것을 믿고 바라보기에는 너무도 압도적이었다.

그러나 실제로 그랬다. 새벽에서 황혼으로 낮이 흘러갔고, 밤은 빠르게 낮으로 미끄러져 들어갔다. 그 속도는 점점 더 빨라졌다.

해가 지는 마지막 세 차례의 순간, 나는 눈으로 덮인 대지를 목격했다. 밤이 되면, 그 대지는 급격하게 변하는 달빛 아래에서 몇 초 동안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기이해 보였다. 달은 높이 솟았다가 다시 떨어졌

다. 하지만 지금은, 잠시 동안 하늘이 가려졌다. 흔들리는 납빛 흰 구름의 바다에 의해. 구름은 낮과 밤이 지나감에 따라 번갈아 밝아졌다가 어두워졌다.

구름이 일렁이며 사라졌다. 다시 내 앞에 펼쳐진 것은 빠르게 뛰어 오르는 태양의 모습과, 그림자처럼 스쳐 지나가는 밤들이었다.

세상은 점점 더 빠르게, 더 빠르게 회전했다. 이제 낮과 밤은 단 몇 초 만에 끝났다. 그리고 속도는 여전히 증가했다.

조금 뒤에야 나는 해 뒤로 어렴풋이 불꽃 자국 같은 것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알아차렸다. 분명, 해가 하늘을 가로지르는 속도 때문에 생긴 현상이었다. 그리고 하루하루가 점점 더 빠르게 지나갈수록, 해는 짧은 주기마다 하늘을 가로지르며 타오르는 거대한 불꽃 혜성처럼 보이기 시작했다. 밤이 되면 달은 훨씬 더 뚜렷하게 혜성 같은 모습을 띠었다. 차가운 불꽃 자국을 끌며 빠르게 움직이는, 창백하고 유난히 선명한 불의 형체였다. 별들은 이제 어둠을 배경으로 가느다란 불의 머리카락처럼 보일 뿐이었다.

한번은 창문에서 시선을 돌렸다. 페퍼를 힐끗 본 것이다. 짧은 순간, 그가 조용히 잠들어 있는 것을 보았다. 나는 다시 경계 태세로 돌아섰다.

해가 동쪽 지평선에서 솟아오르고 있었다. 거대한 로켓이 폭발하듯, 동에서 서로 휩 던져지는 데 단 일초 이삼 초가 걸릴 뿐이었다. 더 이상 구름이 하늘을 가로지르는 흔적을 볼 수 없었다. 하늘은 어느새 어둠을

띠고 있었다. 짧은 밤은 밤다워야 할 어둠을 잃어버린 듯했다. 날아다니는 별들이 남기는 가느다란 불꽃도 희미하게 빛날 뿐이었다.

속도가 더해지자, 해가 하늘에서 아주 느리게 흔들리기 시작했다. 남쪽에서 북쪽으로, 다시 북쪽에서 남쪽으로.

그래서 이상하게 혼란스러운 마음속에서, 시간이 흘렀다.

그사이 페퍼는 잠들어 있었다.

나중에서야 외로움과 절망이 밀려와, 나는 그를 향해 부드럽게 이름을 불렀다. 하지만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다시 한번, 목소리를 조금 높여 불러보았다. 여전히 그는 움직이지 않았다.

그가 누운 곳으로 다가가, 발끝으로 그를 건드려 깨우려 했다.

그런 가벼운 동작에도 불구하고, 그는 산산조각 났다.

그것이 바로 일어난 일이었다. 그는 말 그대로, 실제로 부패한 뼈더미와 먼지로 무너져 내렸다.

나는 약 일 분 정도, 한때 페퍼였던 형체 없는 더미를 내려다보았다. 멍한 채로 서 있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 나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하지만 그 작은 재 더미가 지닌 음산한 의미를 즉시 깨닫지는 못했다. 그때, 발로 그 더미를 휘젓자 문득 깨달았다. 이런 일이 일어

나려면 엄청난 시간이 흘러야 한다는 사실을. 수년이, 그리고 또 수년이 흘러야만 가능한 일이었다.

밖에는 뻑뻑하게 얹히고설킨, 살랑이는 빛이 온 세상을 감싸고 있었다.

안에서는 내가 서서, 그 빛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려 애썼다. 특히 카펫 위에 놓인, 작은 먼지 더미와 마른 뼈들이 무슨 의미인지 말이다.

하지만 나는 일관되게 생각할 수 없었다.

나는 고개를 돌려 방 안을 둘러보았다. 그리고 처음으로 이곳이 얼마나 먼지투성이에 낡았는지 알아차렸다. 먼지와 더러운 것이 사방에 깔려 있었다. 구석구석 작은 더미로 쌓여 있었고, 가구 위에도 두껍게 퍼져 있었다. 바닥의 카펫조차 그 사방으로 스며든 물질의 층 아래에 완전히 가려져 보이지 않았다. 내가 걸을 때마다 발걸음 아래에서 작은 먼지 구름이 일어 코를 찔렀고, 건조하고 쓴 냄새가 코로 들어와 나는 거친 숨소리를 내며 기침을 했다.

갑자기 페퍼의 잔해에 다시 시선이 닿자, 나는 그 자리에 굳어 버렸다. 혼란스러운 목소리가 입 밖으로 새어 나왔다. 정말로 세월이 흘러가고 있는 것인가? 내가 환상이라 믿었던 것이, 실은 진짜 현실이었는가? 잠시 멈춰 섰다. 새로운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나는 방을 가로질러 거대한 피어 글래스(바닥까지 닿는 큰 거울) 앞으로 빠르게, 그러나 처음으로 비틀거리는 걸음걸이로 걸어갔다. 거울은 먼지로 뒤덮여 있어 아무런 상도 비추지 못했다. 떨리는 손으로 나는 긴 때를 닦아내기

시작했다. 잠시 후, 내 모습이 보였다. 머릿속에 떠오른 생각이 사실로 확인되었다. 오십 살도 채 안 되어 보이던 건장한 큰 남자가 아니라, 굽은 등에 주름진 얼굴의 쇠약한 노인이 거울 속에 서 있었다. 한 세기의 세월이 새겨진 주름이었다. 머리카락은 몇 시간 전만 해도 거의 석탄처럼 까맣건만, 이제는 은빛으로 변해 있었다. 오직 눈빛만은 여전히 빛나고 있었다. 천천히, 나는 그 늙은 노인에게서 옛 시절 내 모습과 비슷한 희미한 흔적을 찾아냈다.

나는 몸을 돌리고, 비틀거리며 창가로 향했다. 이제 나는 자신이 늙었다는 사실을 알았고, 그 사실은 내 떨리는 걸음을 더욱 확실히 증명하는 듯했다. 잠시 동안, 나는 우울한 눈으로 변화무쌍한 풍경이 흐릿하게 이어지는 광경을 응시했다. 그 짧은 시간 동안에도 일 년이 지나갔다. 나는 짜증스러운 몸짓으로 창가에서 물러섰다. 그렇게 하던 중, 내 손이 노년의 마비 증상으로 떨리고 있음을 깨달았다. 짧은 흐느낌이 막힌 채 입술 사이로 새어 나왔다.

잠시 동안, 나는 창문과 책상 사이를 떨리는 발걸음으로 오갔다. 시선은 여기저기 떠돌아다녔다. 불안하기 그지없었다. 이 방은 얼마나 황폐해졌던가. 두꺼운 먼지가 사방에 깔려 있었다. 그 먼지는 짙고, 줄리고, 검었다. 화로받이는 녹슨 덩어리로 변해 있었다. 낫시계의 추를 매달던 사슬은 이미 오래전에 녹슬어 끊어졌고, 이제 추들은 바닥에 놓여 있었다. 그 추들은 녹색 녹슬음으로 뒤덮인 두 개의 원뿔 모양이었다.

주변을 둘러보니, 방 안의 가구들이 눈앞에서 썩어가고 부패하는 것이 보이는 것 같았다. 그것은 내 착각이 아니었다. 책장이 갑자기 무너져 내렸기 때문이다. 벽을 따라 길게 놓인 책장이 썩어 문드러진 나무가 갈라지고 찢어지는 소리를 내며 무너졌다. 책장 속 책들이 바닥으로 쏟아져 나갔고, 먼지 구름이 방 안을 가득 채웠다.

몸이 너무 지쳤다. 걸을 때마다 마른 관절이 삐걱거리며 부러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나는 내 여동생이 걱정되었다. 그녀도 폐퍼처럼 죽었을까? 모든 것이 너무 빠르고 갑작스럽게 일어났다. 이것이 바로 모든 것의 종말의 시작임에 틀림없었다. 나는 그녀를 찾아 나서고 싶었지만, 너무 피곤했다. 게다가 그녀는 최근 이런 일들에 대해 매우 이상하게 행동했다. 최근! 나는 그 단어를 반복하며, 반세기 전의 시간을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 깨달았을 때, 약하게, 그러나 웃음기 없이 웃었다. 반세기! 그것은 두 배나 더 길 수도 있었다!

나는 천천히 창가로 다가가, 다시 한 번 저 세계 너머를 내다보았다. 이 시기의 낮과 밤이 지나가는 모습을 가장 잘 설명하자면, 거대하고 무거운 깜빡임과도 같았다. 순간순간 시간의 가속은 계속되었고, 이제 밤이 되면 나는 달을 희미한 불꽃의 흔들리는 자국으로 보았다. 그것은 빛의 얇은 선에서부터 안개 낀 길처럼 흐릿한 궤적으로 변하다가, 다시 줄어들어 주기적으로 사라지곤 했다.

낮과 밤의 흔들림이 빨라졌다. 낮의 어둠은 눈에 띄게 짙어졌고, 마치 대기 속에 기이한 황혼의 기운이 서려 있는 듯했다. 밤은 너무 밝아

저서 별들을 거의 볼 수 없었다. 달과 함께 살짝 흔들리는, 때때로 보이는 가느다란 불꽃 줄기 몇 개가 유일하게 눈에 띄었을 뿐이다.

낮과 밤의 번쩍임은 점점 더, 그리고 더욱 빠르게 흘러갔다. 그러다 어느 순간 갑자기 그 번쩍임이 잦아들었음을 깨달았다. 대신 온 세상을 비추는 비교적 일정한 빛이 자리 잡았다. 그 빛은 북쪽에서 남쪽으로 위아래를 오가며 거대하고 장엄한 진폭으로 흔들리는, 영원한 불꽃의 강에서 쏟아져 나왔다.

하늘은 점점 더 어두워졌다. 푸른 하늘 깊은 곳에는 무거운 음울함이 깔려 있었다. 마치 거대한 검은 무언가가 하늘을 뚫고 지구를 내려다보는 듯했다.

그러나 그 하늘에는 기이하고도 장엄한 투명함과 공허함이 함께 자리 잡고 있었다.

나는 간헐적으로 유령 같은 불꽃의 자취를 스쳐 보았다. 그 불길은 가늘고 어둡게 태양의 빛줄기를 향해 흔들렸다. 사라졌다가 다시 나타났다.

보이지 않을 듯 말 듯한 달의 빛줄기였다.

풍경을 바라보던 나는 다시 한 번, 무겁게 흔들리는 태양 빛줄기에서 오는 것인지, 아니면 지면의 변화가 너무도 급격해서 생기는 것인지 알 수 없는 흐릿한 '깜빡임'을 의식하게 되었다. 그리고 잠시 잠시마다, 마치 보이지 않는 거인이 지구 위에 흰 천을 덮었다 벗겼다 하는 것처럼, 눈이 갑자기 세상을 뒤덮었다가 또 갑자기 사라졌다.

시간은 달아나듯 흘러갔다. 내게 닥친 피로는 견딜 수 없을 정도로 깊어졌다. 나는 창문에서 시선을 돌리고, 방을 한 차례 가로질러 걸었다. 발걸음 소리는 두꺼운 먼지에 묻혀 죽어버렸다. 한 걸음 내딛을 때마다, 그 전의 걸음보다 더 큰 노력이 필요했다. 지친 발걸음은 불확실하게 이어졌고, 각 관절과 사지마다 참을 수 없는 통증이 파고들었다.

내 모든 것이 흐릿하게 퇴색해 가고 있었다. 모든 것이 너무 기이했고, 상상조차 하지 못한 일이었다. 어젯밤만 해도 나는 비교적 건장한, 비록 나이가 든 남자였건만, 이제 단 몇 시간 뒤—! 나는 한때 페퍼였던 작은 먼지 더미를 바라보았다. 몇 시간! 나는 웃었다. 연약하고 쓴웃음, 날카롭고 거친 웃음소리였다. 그 소리는 흐려져 가는 나의 감각을 놀라게 했다.

잠시 동안 나는 졸았을 것이다. 그러다 갑자기 눈을 떴다. 방 저편에서 무엇인가 떨어지는 둔탁한 소리가 들렸다. 어렴풋이 먼지 구름이 파편 더미 위에 떠 있는 것이 보였다. 문 가까이에선 또 다른 무언가가 요란하게 굴러떨어졌다. 찬장이 하나 무너진 것이었다. 하지만 나는 피곤해서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눈을 감고, 졸음과 반의식 상태에 빠져 앉아 있었다. 한두 번, 짙은 안개 속을 통과하듯 희미한 소리가 들렸다. 그러다 나는 결국 잠들었다.

16

각성

나는 깜짝 놀라 깨어났다.

순간, 내가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었다.

그런데 곧 기억이 떠올랐다.

방은 여전히 그 기이한 빛으로 채워져 있었다. 햇빛과 달빛이 섞인 듯한, 그런 빛이었다. 나는 상쾌함을 느꼈다. 피곤하고 지친 통증은 이미 자취를 감추고 없었다.

나는 천천히 창가로 걸어갔다. 그리고 밖을 내다보았다.

머리 위, 불꽃의 강이 남북으로 오르내리며 춤추는 반원의 불길을 이루고 있었다. 마치 시간의 베틀 속에서 거대한 바디가—갑자기 떠오른 내 상상이지만—세월의 씨실 가닥들을 한 올 한 올 단단히 박아 넣고 있는 듯했다.

시간의 흐름이 이토록 급격히 가속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해가 동에서 서로 옮겨가는 감각은 존재하지 않았다. 오직 눈에 보이는 움직임은 태양 흐름이 남북으로 박동하는 진동뿐이었다. 그 속도는 이미 너무 빨라져, 이제는 진동이라기보다 떨림이라고 부르는 편이 더 어울릴 정도였다.

창밖을 내다보던 나는 문득, 외계 세계들 사이를 지나던 마지막 여정의 기억을 떠올렸다. 태양계에 다가갈 때 본 그 짧은 환상이었다. 태양 주위를 빠르게 돌고 있는 행성들. 시간의 지배력이 잠시 유보된 듯, 우주의 기계가 몇 분, 혹은 몇 시간 동안 영원히 달리는 것을 본 것 같았다. 그 기억은 곧 사라졌다. 나는 아직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더 깊은 시간의 공간들을 엿본 듯한 느낌을 함께 잃었다. 나는 다시 창밖을

응시했다. 태양의 흐름이 진동하는 것을 보며. 속도는 점점 더 빨라지는 듯했다. 내가 바라보는 동안, 여러 생명이 태어나고 사라졌다.

그 순간, 나는 기괴할 정도로 진지하게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다. 내가 아직 살아 있다는 사실이었다.

페퍼가 떠올랐다. 나는 어쩌서 그와 같은 운명을 맞지 않았는지 궁금해졌다. 그는 죽을 때가 되어 있었고, 아마도 그저 세월이 너무 길게 흐른 탓에 세상을 떠났을 것이다.

그런데 나는, 내게 본래 주어진 수명을 한참 지나, 수십만 세기가 흐른 뒤에도 여전히 살아 있었다.

잠시 동안 나는 멍하니 생각에 잠겼다. ‘어제…….’

나는 갑자기 말을 멈췄다. 어제! 어제는 존재하지 않았다. 내가 말했던 그 ‘어제’는 수천 년의 심연, 흘러간 세월에 삼켜져 사라져버렸다. 나는 생각에 생각으로 어지러워졌다.

나는 창문에서 시선을 돌려 방 안을 둘러보았다. 방은 이상하게도 완전히 달라 보였다. 그 이유를 알았다. 방이 텅 비어 있었기 때문이다. 가구가 하나도 없었다. 어떤 장식도 남아 있지 않았다. 놀라움이 가라앉았다. 잠들기 전에 보았던 부패의 과정이 결국에는 이렇게 끝나는 것이 당연했기 때문이다. 수천 년이 지났다. 수백만 년이 지났다.

바닥 전체에 깊은 층의 먼지가 깔려 있었다. 그 먼지는 창가 좌석의 절반 높이까지 차올랐다. 내가 잠든 사이, 그 먼지는 끝없이 불어났다.

그것은 셀 수 없는 세월의 먼지였다. 분명히 오래되고 썩어가는 가구들의 원자들도 그 부피를 불리는 데 일조했을 것이다. 그리고 그 모든 것 어딘가에는, 이미 오래전에 죽은 페퍼의 유해가 썩어가고 있었다.

그 순간, 문득 깨달았다. 나는 그 먼지 속을 무릎까지 파묻으며 헤쳐 나간 기억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물론 창가 근처로 다가간 후로, 상상을 초월하는 세월이 흘렀을 것이다. 하지만 내가 잠들면서 사라졌다고 짐작했던 무수히 긴 시간들에 비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었다.

나는 이제, 의자에서 앉아 있다가 잠들었다는 사실을 기억해냈다. 그 의자는……? 내가 서 있던 자리로 시선을 돌렸다. 물론, 의자는 어디에도 없었다.

의자가 사라진 것이, 내가 깬 뒤의 일인지, 아니면 그 이전의 일인지, 나는 확신할 수 없었다. 만약 의자가 내 몸 아래에서 썩어 무너졌다면, 분명 붕괴 소리에 깨어났을 것이다.

그때, 바닥을 두껍게 덮고 있던 먼지가 내 낙하를 충분히 완충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렇다면, 백만 년 이상을 그 먼지 위에서 잠들었을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었다.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고 있을 때, 나는 다시 한 번, 무심코 의자가 서 있던 자리를 흘끔 바라보았다. 그러자 처음으로 눈치챈 것이 있었다. 먼지 위에, 그 자리에서 창문까지 이어지는 내 발자국이 하나

도 없다는 사실이었다. 하지만 그때는 이미, 내가 깨어난 지 수천 년, 아니 수만 년이 지난 뒤였다!

나는 다시금 한곳을 응시했다. 한때 내 의자가 놓여 있던 자리였다.

갑자기 나는 몽롱한 생각에서 깨어나, 모든 감각을 집중했다. 그곳, 의자가 서 있던 자리에 긴 물결무늬가 보인 것이다. 무거운 먼지로 등글게 마무리된 그 자취였다. 완전히 가려진 것은 아니었다. 그 자취의 정체를 나는 곧 알아챘다.

나는 알았다. 그리고 그 사실을 깨달자 오한이 일었다. 그것은 인간의 시체였다. 수천 년 전에 죽어, 내가 잠자던 자리 바로 아래에 누워 있는 시체였다.

시체는 오른쪽으로 누운 채, 등을 나에게 돌리고 있었다. 나는 검은 먼지 속에 부드럽게 새겨진, 마치 형틀로 찍어낸 듯한 곡선과 윤곽을 하나하나 식별해 낼 수 있었다.

나는 그 시체가 그곳에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어렴풋이 추측해 보려 했다. 천천히, 나는 혼란스러워졌다. 의자가 무너졌을 때, 내가 바로 그 자리 근처로 떨어졌을 것이라는 생각이 머리를 스쳤기 때문이다.

점점, 내 뇌리 안에 하나의 생각이 서서히 자리 잡기 시작했다. 영혼을 뒤흔드는 생각이었다. 끔찍하고 견딜 수 없는 일처럼 보였다. 그러나 그 생각은 꾸준히 내게 파고들었고, 마침내 확신이 되었다. 그 먼지 투성이의 껍질, 그 무덤 같은 천으로 덮인 몸체는 다름 아닌 내가 죽은

후의 빈 껍데기였다. 나는 그것이 사실임을 증명하려 하지 않았다. 나는 이제 그것을 알았고, 왜 그동안 그 사실을 알지 못했는지 놀랐다. 나는 육체가 없는 존재였다.

나는 잠시 동안 그 자리에 서서, 새로운 문제 앞에 내 생각을 정리하려 애썼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수천 년이었는지 나는 알 수 없었다. 그러나 결국 어느 정도 침착함을 되찾았다. 그 정도면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주의를 기울일 수 있을 만큼 충분했다.

나는 길게 늘어진 무덤이 가라앉아, 흩어진 먼지들과 같은 높이가 되어 무너졌음을 보았다. 그리고 새로운 원자들이, 감지할 수 없을 정도로 미세한 채로, 수억 년에 걸쳐 갈려진 무덤의 가루가 섞인 그 먼지 위에 내려앉았다.

오랜 시간 동안, 나는 창문에서 등을 돌린 채 서 있었다.

천천히, 나는 마음을 가다듬어 갔다. 그 사이, 세기는 흘러 미래로 스며들었다.

이윽고 나는 방 안을 둘러보기 시작했다. 이제 보니, 시간이 이 낮설고 오래된 건물에까지 파괴의 손길을 뻗치기 시작하고 있었다.

이 건물이 그 모든 세월을 견뎌냈다는 사실 자체가, 내게는 이것이 어느 집과는 다른 무언가라는 증거처럼 보였다. 어쨌든 나는 이 집이 언젠가 썩어 무너지리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던 것 같다. 왜 그랬는지는 나 자신도 설명할 수 없었다.

한참을 그 문제에 골몰한 뒤에야 비로소 나는 온전히 깨달았다. 이 집이 서 있던 그 엄청난 세월은, 만약 이 건물의 돌이 지상의 어느 채석장에서 가져온 것이었다면 이미 그 돌 자체가 완전히 가루로 부서졌을 만큼 긴 시간이었다는 사실을. 그렇다, 이 집은 이제 분명 허물어져 가고 있었다. 벽에서는 회반죽이 모두 떨어져 나갔고, 방 안의 목조 부분 또한 이미 오래전에 사라져 있었다.

생각에 잠겨 서 있던 내 뒤쪽, 창틀 위의 먼지 속에서 작은 소리가 났다. 마름모꼴로 잘게 나뉜 창문 유리 조각 하나가 떨어져 내렸다. 둔탁한 타격음과 함께 그것은 가루가 되어 작은 무더기가 되었다.

그것을 바라보던 시선을 돌리자, 바깥 벽을 이루는 돌들 틈 사이로 빛이 새어 들어오는 것이 보였다. 모르타르가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 분명했다.

잠시 후, 나는 다시 창가로 돌아갔다. 밖을 내다보았다. 이제야 깨달았다. 시간의 속도가 엄청난 속도로 변해 있었다. 태양의 빛줄기가 좌우로 떨리는 진동이 너무 빨라져, 찰칵듯 흔들리던 반원형의 불꽃이 하나로 합쳐져 사라졌다. 그 불꽃은 동쪽에서 서쪽까지 남쪽 하늘의 절반을 뒤덮는 거대한 불바다로 변해 있었다.

하늘 높이에서 나는 아래로 시선을 내렸다. 정원은 흐릿한 회녹색의 무늬로 보였다. 예전보다 정원이 더 높아져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마치 내 창문 쪽으로 다가온 듯, 온전히 들어 올려진 듯한 인상이었다. 그러나 여전히 나는 정원에서 아주 멀리 떨어져 있었다. 이 집이 서 있는

바위는 구덩이 입구 위에 우뚝 솟아 거대한 높이를 이루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 뒤로 나는 정원의 색이 일정하지 않게 변하는 것을 깨달았다.

창백하고 더러운 초록빛이 점점 열어졌다.

마침내 오랜 시간이 흐른 뒤, 정원은 회백색으로 변해 그 상태를 아주 오랫동안 유지했다.

하지만 결국 회색빛도 초록빛이 그랬던 것처럼 사라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정원은 죽은 듯한 하얀색으로 고정되었다.

이 변화로 인해 나는 마침내 북쪽 땅 전체에 눈이 덮였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하여 수백만 년이 흘러, 시간은 영원 속을 날아오르며 마침내 끝자락으로 다다랐다. 그 끝은, 옛날 지구 시절인 나의 기억 속에서는 멀리 떨어진 어딘가로, 흐릿하고 추측성으로만 여겨지던 것이었다.

하지만 지금, 그 끝은 그 누구도 꿈에도 생각지 못한 방식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그 무렵부터 나는 끝이 올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생생하면서도 병적인 호기심을 품기 시작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나는 아무런 상상이 떠오르지 않았다.

이 모든 시간 동안, 쉼 없는 부패의 과정은 계속되었다. 남아 있던 몇 조각의 유리조차 이미 사라진 지 오래였다. 그러다 가끔씩, 부드럽게 툇 하는 소리와 함께, 살짝 떠오르는 먼지 구름이 무너진 모르타르나 돌조각의 흔적을 알렸다.

나는 다시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았다. 내 머리 위, 그리고 멀리 남쪽 하늘까지 번져 있던 그 불타는 구름이 떨리고 있었다. 바라보고 있자니, 그 빛이 처음보다 다소 흐릿해졌다는 느낌이 들었다. 색도 더 깊고 탁해져 보였다.

한 번 더 고개를 숙여, 흐릿하게 번져 있는 세계의 하얀 빛을 내려다 보았다. 때때로 나의 시선은, 그 자체가 태양이면서도 동시에 태양을 가리고 있는, 점점 흐려져 가는 불꽃의 시트로 다시금 돌아갔다. 가끔은 뒤를 돌아보았다. 거대하고 고요한 방의 짙어가는 황혼 속으로, 잠든 먼지로 덮인 영원한 카펫이 깔린 그 방 안으로.

그때 나는 흐르는 세월을 지켜보았다. 영혼을 갉아먹는 생각들과 의문들에 사로잡혀, 그리고 새로운 피로에 시달리며.

17

회전이 느려지다

수백만 년이 지났을지도 모를 때였다. 나는 의심의 여지 없이 깨달았다. 세상을 밝히던 그 불꽃 같은 천막이, 실제로 어두워지고 있다는 사실을.

또 다른 광활한 공간이 지나갔다. 거대한 불꽃은 짙은 구리빛으로 가라앉았다. 구리빛에서 구리빛의 붉은색으로, 때로는 짙고 무거운 자줏빛으로 어두워졌다. 그 안에는 피와 같은 기이한 무늬가 서려 있었다.

빛이 약해지고 있었지만, 해의 겉보기 속도가 줄어드는 것 같지는 않았다. 해는 여전히 그 눈부신 속도의 베일처럼 퍼져 있었다.

내가 볼 수 있는 전 세계는 끔찍한 어둠에 잠겨 있었다. 마치 세상의 마지막 날이 정말로 다가오고 있는 듯했다.

태양이 죽어가고 있었다. 그 사실에 의문의 여지는 거의 없었다. 그럼에도 지구는 여전히 공허한 우주와 무수한 세월을 가로질러 돌고 있었다.

그때의 나는 기억컨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막연한 혼란에 휩싸였다. 나중에 생각해보니, 나는 정신적으로 단편적인 현대 이론들과 고대 성경의 세계 종말 설이 뒤섞인 기묘한 혼돈 속을 방황하고 있었음을 깨달았다.

그때, 처음으로 내 머릿속에 한 가지 기억이 스쳤다. 해와 그 행성들이 무리 지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빠른 속도로 우주 공간을 가로질러 나아가고 있으며, 또한 지금껏 줄곧 그렇게 이동해 왔다는 사실이었다.

순간, 물음이 떠올랐다. _도대체 어디로?_

나는 그 물음에 대해 아주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다. 하지만 결국, 나의 고민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깨닫고 더 이상 애쓰지 않기로 했다. 대신 생각은 다른 곳으로 흘러갔다.

나는 이 집이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지 궁금해졌다. 또한, 다가올 어둠의 시간 동안 내가 육체 없이 지구 위에 갇혀 있어야 할 운명인지도 의문이었다.

그런 생각들 속에서 다시금, 해가 우주 공간을 가로질러 나아가는 방향에 대한 추측으로 빠져들었다.

그렇게 또 한참의 시간이 흘러갔다.

시간이 흐르자, 나는 거대한 겨울의 서늘함을 느꼈다. 해가 꺼져가고 있으니, 추위는 필연적으로 극도로 강렬할 수밖에 없었다.

세월이 영원 속으로 스며드는 동안, 지구는 더 무겁고 붉은 어둠에 잠겨갔다. 천공에 걸린 흐릿한 불꽃은 더욱 짙은 빛을 띠었다. 매우 침울하고 탁한 색조였다.

드디어, 나는 비로소 변화가 일어났음을 깨달았다. 하늘 위를 떠있으며 남쪽 하늘 끝까지 내려가던, 불꽃으로 이루어진 붉고 어두운 커튼이 얇아지고 수축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리고 그 안에서, 흔들린 하프의 줄이 빠르게 진동하는 모습을 보듯, 나는 다시금 해류가 북쪽과 남쪽으로 어지럽게 떨리는 것을 보았다.

화염의 장막이 천천히 사라졌다. 그제야 나는 해류의 맥박이 느껴지는 것을 또렷이 볼 수 있었다. 그러나 그 속도조차도 상상을 초월할 만큼 빠르다. 그사이, 불꽃 호의 밝기는 점점 흐려져만 갔다. 그 아래쪽 세계는 희미하게 모습을 드러냈고, 형체 없는 유령 같은 공간으로 보였다.

천상에서 불꽃 강은 점점 더 천천히, 그리고 더 느리게 흔들렸다. 그러다 마침내 거대하고 무거운 리듬으로 남북으로 흔들리기 시작했고, 그 흔들림은 몇 초 동안 이어졌다. 긴 시간이 흐른 뒤, 거대한 띠의 흔들림은 거의 일 분에 한 번씩 일어났다. 그래서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나는 그것이 가시적인 움직임인지 아닌지 구분할 수 없게 되었다. 그리고 흐르는 불꽃은 죽음처럼 보이는 하늘을 가로질러 둔탁한 불꽃의 강처럼 일정하게 흐르고 있었다.

어느덧 시간이 흐르고, 불꽃의 호가 점점 선명하지 않게 변해 가는 듯했다. 나는 그 빛이 가늘어지는 것을 느꼈고, 가끔씩 검은 빛의 자국이 스치는 것도 보았다.

그때였다. 시선을 고정하고 지켜보고 있는데, 매끄럽게 흐르던 빛의 흐름이 멈췄다. 그리고 나는 깨달았다. 세상이 순간적으로, 하지만 규칙적으로 어두워지는 순간이 찾아오고 있다는 사실을.

그 어둠은 점점 깊어졌고, 이내 피폐해진 땅 위에 짧고도 주기적인 밤이 다시 내려앉았다.

날은 점점 길어졌다. 밤도 그와 같아졌다. 마침내 낮과 밤은 초 단위 만큼 짧아졌다. 해는 다시금, 거의 보이지 않는 구리빛 붉은 공처럼, 날아오르는 안개 낀 빛속에서 모습을 드러냈다.

그가 남긴 어두운 선들처럼, 해의 반쯤 보이는 표면 위에도, 크고 어두운 띠들이 뚜렷하게 보였다.

해가 해마다 과거로 사라져 갔고, 낮과 밤은 분초 단위로 찢어졌다. 해는 더 이상 꼬리를 달고 있는 형상이 아니었다. 대신 거대한 구슬처럼 떠올라 지곤 했다. 그 구슬은 빛나는 구리 동색을 띠고 있었다. 일부에는 피와 같은 붉은 띠가 둘러져 있었고, 다른 곳에는 내가 이미 언급한 어두운 띠가 있었다. 이 원형 고리들, 붉은 것과 검은 것 모두 두께가 일정하지 않았다.

처음에는 이들이 왜 존재하는지 도무지 알 수 없었다. 그러다 문득 생각났다. 해가 고르게 식지 않을 것이라는 점, 그리고 이 무늬들은 아마도 지역별 온도 차이에서 비롯된 것일 것이라는 점. 붉은 부분은 아직 열기가 맹렬한 곳이고, 검은 부분은 이미 비교적 식은 곳일 것이다.

태양이 고르게 정해진 고리 모양으로 식어가고 있다는 사실이 묘하게 느껴졌다. 그러다 문득 깨달았다. 그 고리들은 아마도 태양의 거대한 자전 속도로 인해 띠처럼 보이는, 고립된 무리들일 뿐일지도 모른다고.

태양 자체는 내가 옛날 세상에 알고 있던 것보다 훨씬 더 컸다. 이 사실로부터, 태양이 훨씬 더 가까이에 있다는 추론을 내릴 수 있었다.

밤이 되면 달[6]은 여전히 모습을 드러냈다. 하지만 그 크기는 작고 멀리 떨어져 있었다. 달이 비추는 빛은 흐릿하고 약해서, 내가 알던 옛 달의 희미하고 어두운 유령처럼 보였다.

시간이 흐르면서 낮과 밤의 길이가 점차 늘어났다. 결국 그 길이는 옛날 지구에서 쓰던 시간 단위, 즉 한 시간보다 약간 짧은 수준에 다다랐다. 해는 거대한 적갈색 청동빛 원반처럼, 진한 먹색 줄무늬가 가로 지른 채로 떠올랐다가 지곤 했다.

이쯤 되자 나는 다시 선명하게 정원을 볼 수 있게 되었다. 세상은 이제 고요해졌고, 변하지 않는 정적에 잠겨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나는 '정원'이라는 말을 쓴 것이 잘못임을 안다. 실제로 정원은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이다. 내가 알고 있거나 인지할 수 있는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았다. 대신 눈앞에는 끝없이 펼쳐진 광활한 평원이 드러났다.

내 왼쪽으로는 낮은 구름 지대가 이어졌다. 사방에는 균일하게 눈이 덮여 있었고, 곳곳에 눈더미와 능선이 솟아올라 있었다.

지금에야 나는 그 눈이 얼마나 거대하게 내렸는지 비로소 깨달았다. 오른쪽 멀리, 파도처럼 솟구친 거대한 언덕이 그 깊이를 증명하고 있었다. 물론 그것이 어느 정도는 지면 자체가 솟아오른 데에 기인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다.

이상하게도 왼쪽에 있던 낮은 구름지대는 완전히 눈으로 뒤덮이지 않았다. 어둡고 맨살 같은 바위 면이 여러 군데 드러나 있었다.

곳곳에, 그리고 언제나, 믿을 수 없는 죽음의 정적과 황폐함이 지배하고 있었다. 죽어가는 세계의 변함없고 무서운 고요함.

이 모든 시간 동안, 낮과 밤은 점차 길어지고 있었다. 이미 낮의 길이는 해뜰 무렵부터 해질 무렵까지 두 시간 정도를 차지하고 있었다. 밤하늘을 올려다보니 별들이 매우 적었고, 그 별들은 작았지만 놀라울 정도로 밝았다. 나는 이 현상을 밤의 독특하지만 선명한 검은색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북쪽 저편에는 희미한 안개 같은 것이 어렴풋이 보였다. 외관상 작은 은하의 일부와도 닮았다. 그것은 극도로 멀리 떨어진 성단일 수도 있고, 아니면 문득 내 머리를 스친 생각처럼, 내가 알고 있던 별자리 우주, 이제 영원히 멀리 뒤로한 그 우주일지도 모른다. 공간의 깊은 곳, 멀리서 희미하게 빛나는 작은 별들의 안개.

하지만 날과 밤은 천천히 길어졌다. 해가 질 때보다 더 흐리게 뜨는 날이 계속됐다. 어둠의 띠는 점점 더 넓어졌다.

이쯤 되어 갑자기 또 한 번의 일이 벌어졌다. 해와 땅, 하늘이 순식간에 어둠에 잠겼고, 잠시 동안은 아예 사라진 듯했다. 나는 눈으로 거의 확인할 수 없었지만, 땅 위에 엄청난 양의 눈이 내리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느꼈다.

그리고 순식간에, 모든 것을 가리던 장막이 걷혔다. 나는 다시 창밖을 내다보았다.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경이로웠다. 집과 정원이 자리한 그 오목한 분지는 눈으로 가득 찼다. 눈은 내 창문의 받침대 위로도 넘쳐흘렀다. 사방팔방에 눈이 두껍게 쌓여, 끝없이 펼쳐진 하얀 평원을 이루었다. 그 눈은 죽어가는 해의 음울한 구리빛 빛을 받아, 침울하게 반사하고 있었다. 지평선 끝에서 끝까지, 그림자 하나 없는 흰 평원이 펼쳐져 있었다.

나는 해를 올려다보았다. 해는 유달리 둔탁하면서도 선명한 빛으로 빛나고 있었다. 나는 이제야 비로소, 그때까지는 시야를 일부 가리는 매개체를 통해서만 그것을 보아왔던 사람처럼 해를 바라보았다.

해 주변 전체의 하늘은 새까맣게 변해 있었다. 그 검은색은 선명하고 깊었다. 가까이에 있어 무서웠고, 가늠할 수 없을 만큼 깊었으며, 완전히 적대적인 느낌이었다.

나는 오랫동안, 새로이, 그리고 떨리며 두려움에 사로잡혀 그 하늘을 바라보았다. 하늘이 너무 가까웠다. 만약 내가 아이였다면, 나는 내 느낌과 괴로움을 이렇게 표현했을 것이다. 하늘이 지붕을 잃어버렸다고.

나중에서야 나는 몸을 돌렸고, 방 안을 살폈다. 사방이 온통 모든 곳에 스며든 그 흰빛의 얇은 수의로 덮여 있었다. 지금 세상을 비추는 어두운 빛 때문에 나는 그것을 희미하게밖에 볼 수 없었다. 그 흰색은 무너진 벽에 달라붙어 있는 듯했다. 오랜 세월 쌓여 무릎 깊이까지 바닥을 덮고 있던 두텁고 부드러운 먼지는 어디에서도 보이지 않았다. 눈이 뚫린 창틀을 통해 들어온 것이 분명했다. 그러나 어느 곳에도 쌓여 있

지 않았고, 다만 그 거대한 옛 방 안 곳곳에 매끄럽고 고르게 깔려 있었다. 게다가 수천 년 동안 바람은 불지 않았다. 그럼에도 눈은 있었다, 내가 말했듯이.

땅 전체가 고요해졌다. 살아있는 인간이 결코 경험해 본 적 없는, 차가움이 엄습했다.

낮의 땅은 설명할 수 없이 처참한 빛으로 비취졌다. 마치 청동빛 바다를 통해 광활한 평원을 바라보는 듯한 착각에 빠졌다.

지구의 자전이 점점 벗어나고 있음이 분명했다.

끝이 왔다. 순식간에.

밤은 지금까지 그 어느 때보다도 길었다. 마침내 지평선 너머로 죽어가는 해가 모습을 드러냈을 때, 나는 어둠에 지쳐 있었다. 그 빛을 친구처럼 반겼다.

태양은 꾸준히 떠올랐다. 지평선 위로 약 20도까지. 그러자 갑자기 멈췄다. 이상한 후진 운동을 한 뒤, 하늘에 고정된 채로 멈춰 섰다. 마치 하늘에 걸린 거대한 방패 같았다.

태양의 둥근 테두리만이 빛나고 있었다. 그것과 적도 근처의 얇은 빛 줄기 하나, 오직 그 두 가지였다.

점점 그 빛의 실마리조차 사라졌다. 이제 우리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태양의 흔적은, 청동빛 붉은 빛의 얇은 고리로 둘러싸인 거대한 죽은 원반 하나만 남았다.

18

녹색 별

세상은 야만적인 어둠에 잠겨 있었다. 차갑고 견딜 수 없는 추위였다. 바깥은 고요했다. 정말로 고요했다.

뒤쪽 어두운 방에서는 가끔씩 부드러운 타닥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썩어가는 돌조각들이 떨어지는 소리였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밤이 세상을 사로잡았다. 세상은 뚫을 수 없는 검은 천으로 감싸였다.

우리가 아는 밤하늘은 존재하지 않았다. 희미하게 남아 있던 몇몇 별들도 이미 완전히 사라져 버렸다. 보이는 것이라곤 아무것도 없어, 나는 불빛 하나 없이 덧창이 닫힌 방 안에 있는 것과 다를 바 없었다. 오직, 그 감촉조차 없는 어둠 속에서, 맞은편에 둔탁한 불빛의 거대한 머리카락 같은 고리가 둘러싸듯 타오르고 있을 뿐이었다. 그 너머로는, 나를 둘러싼 광활한 밤의 모든 공간에 단 하나의 빛도 없었다. 다만 멀리 북쪽에서, 그 부드럽고 안개 같은 빛이 여전히 비치고 있을 뿐이었다.

침묵 속에 세월이 흘렀다. 얼마나 긴 시간이 지났는지, 나는 결코 알 수 없었다. 그곳에서 기다리는 동안, 영원한 세월들이 슬며시 지나가고 또 지나가는 것만 같았다. 나는 여전히 지켜보았다. 때때로 나는 태

양 가장자리의 빛만 볼 수 있었다. 이제 그것은 나타나고 사라지는 것을 반복하고 있었다. 잠시 동안 빛을 비추더니, 다시 꺼지는 것이다.

그런 생명력 넘치던 순간들 중 하나가 지나가던 때였다.

갑자기 밤을 가르는 불꽃이 튀었다.

순간적인 빛이 죽은 땅을 비쳤다. 그 빛은 곧 사라졌지만, 나는 그 땅의 평평하고 외로운 광경을 잠깐이나마 엿볼 수 있었다.

빛은 태양에서 나온 것 같았다. 태양 중심 근처 어딘가에서 대각선으로 뻗어나오는 듯했다.

나는 놀라 그 빛을 응시했다.

잠시 후, 튀어 오르던 불꽃은 가라앉았고, 다시 어둠이 내려앉았다.

하지만 이제 전처럼 완전히 어두워지지는 않았다. 태양은 가느다란 선의 생생한 흰 빛으로 둘러싸여 있었다.

나는 집중해서 그 빛을 바라보았다.

태양에 화산이 분출한 것인가?

그러나 그 생각은 머리에 떠오르자마자 곧 사라졌다.

그 빛은 너무도 강렬하게 하얗고, 너무도 컸다. 화산 폭발 같은 사소한 일로 설명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또 다른 생각이 떠올랐다. 안쪽 궤도를 도는 행성 중 하나가 태양으로 추락해, 충돌의 충격으로 백열상태가 되었다는 주장이었다. 이 이론은 더 설득력 있어 보였다. 그리고 예기치 않게 죽은 세계를 밝힌 그 거대하고 눈부신 불꽃의 크기와 광채를 훨씬 더 만족스럽게 설명해 주었다.

관심과 감정으로 가득 찬 채, 나는 어둠 너머로 그 흰 불꽃의 줄기를 응시했다. 밤을 가르는 그 빛줄기였다. 그것은 나에게 한 가지 사실을 분명히 일러주었다. 해는 여전히 거대한 속도로 회전하고 있었다.[11] 그래서 나는 세월이 여전히 계산 불가능한 속도로 흘러가고 있음을 알았다. 비록 지구에 관해서는, 생명과 빛, 그리고 시간이 이미 오래전에 사라진 시대에 속한 것들이라 할지라도.

그 불꽃이 한 번 타오른 뒤, 빛은 밝은 불꽃의 고리처럼 둘러싸인 채로만 비쳤다. 그러나 내가 지켜보는 사이, 그 빛은 천천히 붉은빛으로 물들기 시작했다. 이어 짙은 구리빛으로 변해갔다. 마치 해가 그랬던 것처럼.

조금 뒤, 빛은 더 짙은 색으로 가라앉았다. 시간이 더 흐르자, 빛은 흔들리기 시작했다. 잠시 타오르다 보면, 이내 사그라드는 식이었다.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나자, 빛은 완전히 사라졌다.

그 훨씬 이전, 태양의 타오르던 가장자리도 이미 검은 어둠으로 식어 있었다.

그렇게 초연한 미래의 시간, 세계는 어둠에 잠긴 채, 무겁게 죽어가는 태양의 질량 주위를 어두운 궤도로 돌고 있었다.

당시의 내 생각은 거의 말로 표현할 수 없었다. 처음에는 혼란스럽고 일관성이 없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내 영혼은 지구를 옥죄던 그 압도적인 고독과 황량함의 본질을 흡수하는 듯했다.

그런 느낌과 함께, 놀라울 만큼 선명한 사고가 찾아왔다. 그리고 나는 절망적으로 깨달았다. 이 거대한 밤 속에서, 세상이 영원히 방황할 지도 모른다는 것을. 잠시 동안, 그 불건전한 생각은 나를 압도하는 황량함의 느낌으로 가득 채웠다. 그래서 나는 마치 아이처럼 울고 싶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이 느낌은 거의 감지할 수 없을 정도로 서서히 약해졌다. 그리고 까닭 모를 희망이 나를 사로잡았다. 나는 인내심 있게 기다렸다.

방 뒤쪽에서 입자가 떨어지는 소리가 가끔씩, 둔탁하게 내 귀에 들렸다. 어느 순간, 큰 부딪히는 소리가 나자 나는 본능적으로 고개를 돌렸다. 지금 이 순간, 모든 디테일이 잠겨 있는 그 침투 불가능한 어둠을 잊은 채로. 잠시 후, 나의 시선은 하늘을 향해 갔다. 무의식적으로 북쪽을 향하여. 그렇다, 안개 같은 빛은 여전히 보였다. 사실, 나는 거의 그것이 조금 더 선명해 보인다고 상상할 수도 있었다. 오랫동안, 나는 그 빛에 시선을 고정시켰다. 외로운 영혼 속에서, 그 부드러운 안개가 어떤 방식으로든 과거와의 연결고리라고 느꼈다. 기이한 일이다, 위안을 얻을 수 있는 사소한 것들이라니! 그러나, 내가 알았더라면—하지만 그것은 제때에 이야기하겠다.

오래도록 나는 눈을 떼지 않고 지켜보았다. 잠이 오지 않았다. 옛날 지구에서는 곧 찾아왔을 그 잠을 말이다. 나는 그 잠을 얼마나 반겼을까. 내가 풀지 못한 의문과 생각들에서 벗어나 시간을 보낼 수만 있다면.

위안이라곤 없는, 거대한 석조물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몇 번이나 나의 명상을 깨뜨렸다. 한번은 내 뒤쪽 방에서 속삭임이 들리는 것 같기도 했다.

그러나 무언가를 보려 애쓰는 것은 전혀 무의미했다. 존재하는 그 어둠은 상상조차 하기 힘들 정도로 검었다. 그것은 촉각으로 느껴질 만큼 또렷했고, 감각을 끔찍하고 야만적으로 짓눌렀다. 마치 죽은 무언가가 내게 밀착해 있는 듯했다. 부드럽고, 차갑게 얼어붙은 무언가가.

그 모든 것 아래에서, 내 마음속에는 거대하고 압도적인 불안이 자라나고 있었다. 그것은 나를 놓아주지 않았고, 나는 불편한 생각에 잠기게 되었다. 나는 이에 맞서 싸워야 한다고 느꼈다. 그리고 잠시 후, 내 생각을 분산시키려 창가로 돌아서 북쪽을 향해 올려다보았다. 우리가 떠난 우주의 먼 안개 낀 빛이 여전히 그곳에 있을 거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눈을 들어 올리자마자, 나는 경외감에 사로잡혔다. 흐릿한 빛이 이제 하나의 거대한 별이 되어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 별은 생생한 녹색을 띠고 있었다.

나는 놀라 그 광경을 응시했다. 그러자 문득 한 생각이 머리를 스쳤다. 지구는 내가 생각했던 것처럼 그 별에서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별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다.

또 다른 깨달음이 이어졌다. 그것은 지구가 떠나온 그 우주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것, 어쩌면 광활한 우주 깊은 곳에 숨겨진 어떤 거대한 성단에 속한 외곽의 별일지도 모른다는 것이었다.

경외감과 호기심이 뒤섞인 느낌으로 나는 그것을 지켜보았다. 이제 또 어떤 새로운 것이 내 앞에 드러날지 궁금했다.

잠시 동안, 모호한 생각과 추측들이 나를 사로잡았다. 그 순간, 나의 시선은 다른 곳에서는 구덩이처럼 어두운 공간 속, 오직 한 곳의 빛나는 점에 갈망처럼 고정되었다.

나 안에서는 희망이 자라났다. 절망의 압박이 나를 질식시키는 듯했지만, 그 희망이 그것을 몰아냈다. 지구가 어디로 향하고 있든, 적어도 다시금 빛의 영역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빛! 소리 없는 밤에 영원히 싸여 있어야 비로소, 그 빛이 없는 상태가 지닌 온전한 공포를 이해할 수 있다.

별은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내 시야 안에서 자라났다. 이내 그 빛은 옛날 지구 시절의 목성처럼 찬란하게 빛났다.

크기가 커질수록 별의 색채는 더욱 압도적이었다. 그것은 마치 거대한 에메랄드 같았다. 세상 전역에 불꽃 같은 광선을 반짝이며 흩뿌리고 있었다.

세월은 침묵 속에 흘러갔다. 그리고 녹색 별은 하늘에서 거대한 불꽃의 자국으로 변해갔다. 얼마 후, 나는 놀라움으로 가득 찬 광경을 보았다. 그것은 밤하늘에 떠 있는 거대한 초승달의 유령 같은 윤곽이었다. 주변 어둠 속에서 자라나는 듯한 거대한 새 달처럼 보였다. 나는 완전히 혼란에 빠져 그것을 응시했다. 그것은 — 상대적으로 — 꽤 가까이 있는 것처럼 보였다. 나는 지구가 어떻게 내가 전에 그것을 보지 못한 채로 그렇게 가까이 다가올 수 있었는지 이해하려고 애썼다.

별빛이 점점 더 강해졌다. 곧이어 나는 다시 지상의 풍경을 볼 수 있음을 깨달았다. 비록 선명하진 않았지만.

잠시 동안 나는 지구의 표면에서 어떤 디테일이라도 식별할 수 있는지 확인하려 애썼다. 하지만 빛이 부족해 실패했다. 잠시 후, 나는 그 시도를 접고 다시 별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주의가 잠시 다른 곳으로 향했을 뿐인데, 별은 눈에 띄게 커져 있었다. 어리둥절해진 내 눈에는, 그 크기가 보름달의 약 사분의 일 정도로 보였다.

별이 뿜어내는 빛은 놀라울 정도로 강력했다. 그러나 그 색은 너무 나도 혐오스러울 정도로 낮설었다. 내가 볼 수 있었던 세상의 모습은

허구처럼 보였다. 다른 무엇보다는, 그림자 같은 풍경 밖을 내다보는 것 같았다.

그동안 거대한 초승달은 점점 밝아졌다. 이제 그것은 눈에 띄게 녹색 빛을 띠며 빛나기 시작했다. 별은 꾸준히 크기와 광채를 더해 갔다. 마침내 그 크기는 보름달의 절반만큼이나 되었다. 별이 커지고 밝아질 수록, 거대한 초승달도 더 많은 빛을 뿜어냈다. 다만 그 빛의 색은 점점 짙은 녹색으로 물들어 갔다.

그 두 빛의 합쳐진 광채 아래, 내 앞에 펼쳐진 황야는 점점 더 선명하게 드러났다. 곧 나는 온 세상을 내려다볼 수 있을 것 같았다. 이상한 빛 아래에서 그 세계는 차갑고 끔찍하며 평평한 황량함으로 인해 두려운 모습으로 보였다.

그때쯤, 나는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다. 거대한 초록빛 불꽃의 별이 북쪽에서 동쪽 방향으로 천천히 가라앉고 있는 것이었다. 처음에는 내가 잘못 본 게 아닐까 싶었다. 하지만 곧 의심의 여지가 사라졌다. 별은 서서히 내려갔고, 내려갈수록 거대한 초승달 모양의 녹색 빛은 점점 작아졌다. 결국 그것은 창백한 하늘을 배경으로 희미한 빛의 호가 되었다. 그리고 이내 그 빛은 사라졌다. 내가 처음 그것이 천천히 떠오르는 모습을 지켜봤던 바로 그 자리에서, 다시 모습을 감춘 것이다.

그 순간, 내가 지켜보는 사이 별의 아랫부분이 사라졌다. 곧고 어두운 선이 별을 베어낸 듯했다. 일본인지, 한 세기인지 모를 시간이 흘렀다. 별은 더 깊이 가라앉았고, 결국 절반이 시야에서 사라졌다.

먼 곳, 광활한 평원 너머로 거대한 그림자가 별을 가리며 빠르게 다가오는 것이 보였다. 이제 별은 삼분의 일만 간신히 보였다. 그러자 문득, 이 기이한 현상의 해답이 번개처럼 내 머리를 스쳤다.

별이 죽은 태양의 거대한 덩어리 뒤로 가라앉고 있는 것이었다.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태양이 — 별의 인력에 이끌려 — 별 쪽으로 떠오르고 있었고, 지구는 그 뒤를 따라가고 있었던 것이다.

이런 생각들이 내 머릿속에서 펼쳐지는 사이, 별은 완전히 사라졌다. 거대한 태양의 덩어리에 완전히 가려진 채였다. 지구 위로 다시 한번, 무거운 밤의 그림자가 내려앉았다.

어둠이 찾아오자, 견딜 수 없는 고독과 공포가 밀려왔다. 처음 그 구덩이를 생각했다. 그리고 구덩이의 거주자들도 떠올랐다. 그 후, 더 끔찍한 존재가 기억을 훑고 지나갔다. 잠의 바다 기슭을 배회하며, 이 낡은 건물의 그림자 속에 숨어 있던 그 존재 말이다. 그들은 어디에 있을까? 나는 생각했다. 그리고 불쌍한 생각들로 몸을 떨었다. 잠시 동안 공포가 나를 사로잡았고, 나는 세상을 감싸고 있는 차갑고 검은 어둠을 몰아낼 빛의 조각을 간절하고 어설프게 기도했다.

얼마나 기다렸는지 알 수 없다. 분명히 아주 긴 시간이 흘렀다. 그러던 어느 순간, 앞쪽에 빛의 기둥이 빛나기 시작했다. 서서히 그 빛은 또렷해졌다. 갑자기 짙은 녹색의 광선이 어둠을 가로질러 스쳤다. 동시에, 먼 밤하늘에 창백한 불꽃의 가느다란 선이 보였다. 잠시 후, 그것은 거대한 불덩이로 자라났다. 그 아래로 세상은 에메랄드빛 녹색 빛으로 가득 찼다. 빛은 꾸준히 커져 갔고, 곧 녹색 별 전체가 다시 모습을

드러났다. 하지만 이제 그것은 별이라고 부르기 어려웠다. 왜냐하면 그 크기는 놀라울 정도로 커져, 옛날의 태양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위대해졌기 때문이다.

그때, 나는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그러자 생명을 잃은 태양의 가장자리가 보이기 시작했다. 그것은 커다란 초승달처럼 빛나고 있었다. 천천히, 그 빛나는 표면이 내 앞에 넓게 드러났다. 마침내 지름의 절반이 시야에 들어왔다. 그리고 그 별은 내 오른쪽으로 서서히 밀려나기 시작했다. 시간이 흘렀다. 지구는 천천히, 죽은 태양의 거대한 얼굴 위를 가로질러 이동하고 있었다.

지구가 앞으로 나아가면서 그 별은 점점 더 오른쪽으로 기울어졌다. 마침내 별빛은 집 뒤쪽을 비추었고, 해골 같은 벽 사이로 부서진 빗줄기가 쏟아져 들어왔다.

고개를 들어 올려다보니 천장 대부분이 사라져 있었다. 덕분에 위층이 더 심하게 찌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지붕은 분명히 완전히 사라진 뒤였다. 별빛의 녹색 광채가 비스듬히 실내로 스며드는 것이 보였다.

XIX

태양계의 끝

한때 창문이 있던 아치형 받침대에서, 나는 그 처음이자 치명적인 새벽을 지켜본 적이 있다. 그곳에서 나는 해가 처음 별이 세상을 밝혔을 때보다 훨씬 더 거대해졌음을 볼 수 있었다. 해가 그렇게 커서, 그

아래쪽 가장자리는 멀리 있는 지평선에 거의 닿아 보였다. 내가 지켜보는 사이, 해가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오는 것 같았다. 얼어붙은 대지를 비추던 녹색 빛은 점점 더 밝아졌다.

그렇게 오랜 시간이 흘렀다. 그러다 갑자기 해의 모양이 변하는 것을 보았다. 해는 작아지고 있었다. 과거의 달이 그랬던 것처럼. 얼마 지나지 않아 빛나는 부분의 3분의 1만 지구 쪽을 향했다. 별은 왼쪽으로 사라져 갔다.

세상이 흘러가는 동안, 별은 다시금 집 정면에 빛을 비추었다. 해는 거대한 녹색 불꽃의 고리처럼 보일 뿐이었다. 순식간에 해는 사라졌다. 별은 여전히 선명하게 보였다. 그러자 지구는 해의 검은 그림자 속으로 들어갔고, 모든 것이 밤이 되었다. 별 하나 없는, 견딜 수 없는 검은 밤이었다.

혼란스러운 생각으로 나는 밤을 가로질러 바라보며 기다렸다. 수년이었을까. 그러다 뒤쪽 어두운 집 안에서, 세상의 응어리진 정적이 깨졌다.

나는 수많은 발소리가 가볍게 부딪히는 소리를 들은 듯했고, 희미하고 명확하지 않은 속삭임이 내 감각을 채워갔다. 나는 어둠 속을 둘러보며 수많은 눈동자를 보았다. 내가 응시하는 사이, 그 눈들은 더 많아졌고, 나에게로 다가오는 듯했다.

순간, 나는 움직일 수 없이 서 있었다.

그때, 끔찍한 돼지 같은 소리가 밤하늘로 치솟았다. 그 소리를 듣고 나는 창문에서 뛰어내려, 얼어붙은 세상 밖으로 뛰쳐나갔다.

나는 잠시 동안 달렸다는 흐릿한 기억이 있다. 그리고 그 후, 나는 그저 기다렸다—기다렸다. 몇 번이나 비명을 들었지만, 그것은 언제나 먼 곳에서 나는 것 같았다.

이 소리들 외에는, 나는 그 집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었다. 시간은 흘러갔다. 나는 추위와 절망, 그리고 공포의 감각 말고는 거의 의식하지 못했다.

세월이 흐른 듯했다. 그러다 빛이 다가올 것을 알리는 어렴풋한 빛이 떠올랐다. 그것은 더디게 자라났다.

그러다 갑자기 — 이 세상의 것이 아닌 영광의 어렴풋한 빛과 함께 — 초록별의 첫 빛줄기가 어둠에 잠긴 태양의 가장자리 너머로 뻗어 나오며 세상을 밝혔다.

그 빛은 약 이백 야드 떨어진 거대한 폐허에 떨어졌다. 그곳은 바로 그 집이었다.

응시하던 나는 끔찍한 광경을 목격했다. 집 벽을 따라 신성하지 않은 것들의 군단이 기어 다니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흔들리는 탑에서부터 토대까지, 노후된 건물 전체를 거의 뒤덮고 있었다.

나는 그들을 또렷이 볼 수 있었다. 그들은 돼지것들이었다.

세상이 별의 빛 속으로 드러났다. 이제 그 별은 하늘의 사분의 일을 가로질러 뻗어 있는 듯했다. 창백하고도 기이한 빛의 영광이 너무도 거대해서, 하늘이 떨리는 불꽃으로 가득 차 보이는 듯했다.

그때 나는 해를 보았다. 해는 너무 가까워서 지름의 절반이 지평선 아래로 가라앉아 있었다. 세상이 해의 표면을 가로지르며 지나갈 때마다, 해는 하늘을 향해 우뚝 솟아오르는 듯했다. 에메랄드빛 불꽃으로 이루어진 거대한 돔이었다.

나는 가끔씩 집 쪽을 돌아보았다. 하지만 돼지것들은 나의 존재를 전혀 눈치채지 못한 듯했다.

세월이 흐르는 듯했다. 천천히, 아주 느리게.

지구는 태양 원반의 중심에 거의 다다랐다. 이제 ‘초록빛 태양’이라 불러야 할 그 빛이 새어 나왔다. 낡은 집의 썩어 무너진 벽 사이로 비치는 빛은, 벽을 초록색 불꽃에 감싸인 듯하게 만들었다.

돼지것들은 여전히 벽을 기어 다녔다.

그 순간, 돼지것들의 거친 포효가 하늘을 찢듯 울려 퍼졌다. 지붕이 없는 집 중앙에서 거대한 적색의 화염 기둥이 치솟았다. 비틀리고 뒤틀린 작은 탑과 첨탑들이 불타오르는 것이 내 눈에 들어왔다. 하지만 그 기이하게 비틀린 형태는 그대로 유지된 채였다.

녹색 태양의 광선이 그 집을 강타했다. 붉고 음울한 불빛과 섞이며, 그 집은 붉은 불꽃과 녹색 불꽃이 뒤섞인 타오르는 용광로처럼 보였다.

나는 매료된 듯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그러다 문득, 다가올 위태로움이 나를 사로잡았다.

머리를 들어 올려 보니, 해가 훨씬 가까워져 있었다. 너무 가까워서, 마치 세상이 해 아래로 웅크리고 있는 듯했다.

그리고는—어떻게 된 것인지 알 수 없었다—나는 낮선 고공으로 끌어올려졌다. 두려운 광휘 속에서, 나는 거품처럼 부유했다.

내 시야 아래, 지구가 보였다. 불타는 집이 점점 더 커지는 불꽃 산으로 치솟고 있었다. 집 주변 땅은 빛나고 있었고, 일부 곳에서는 노란 연기의 무거운 고리가 땅에서 올라오고 있었다. 마치 세계가 그 하나의 재앙 같은 불꽃에서부터 점화되는 것 같았다. 희미하게 돼지것들을 볼 수 있었다. 그들은 전혀 해를 입지 않은 것처럼 보였다. 그러자 갑자기 땅이 꺼져 내렸고, 집은 불결한 생물들의 짐을 싣고 지구의 심연으로 사라졌다. 높게 피어오르는 피빛 안개를 남기며. 나는 집 아래 있는 지옥의 구덩이를 기억했다.

잠시 후, 나는 주위를 둘러보았다. 거대한 태양의 덩어리가 내 머리 위로 높이 떠올랐다. 태양과 지구 사이의 거리가 급격히 좁아졌다.

순간, 지구가 앞쪽으로 쏘아 올랐다. 단숨에 태양과 지구 사이를 가로질렀다. 나는 소리를 듣지 못했다. 하지만 태양 표면에서 눈부신 불꽃의 혀가 분출하듯 솟구쳤다. 그 불꽃은 점점 더 커졌다.

그것은 거의 멀리 있는 녹색 태양까지 도약하는 듯했다. 에메랄드 빛을 가르고 지나가는 것은 마치 눈부신 불의 폭포수 같았다. 불꽃은

한계점에 도달하자 가라앉았다. 그리고 태양 표면에는 거대한 흰색의 화상이 번져 있었다. 그것은 지구의 무덤이었다.

태양이 내 곁으로 매우 가까워졌다. 곧이어 나는 점점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고 있음을 깨달았다. 그러다 마침내 나는 태양을 제치고, 텅 빈 공간 위를 달렸다.

초록빛 태양은 이제 너무도 거대해져, 그 너비가 앞쪽 하늘 전체를 가득 채우는 듯했다. 나는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태양이 정확히 내 발 아래를 지나가고 있는 것이었다.

1년이 지났을까, 아니면 한 세기가 흘렀을까. 나는 혼자, 공중에 매달린 채 남았다.

태양은 멀리 앞쪽에 보였다. 거대한 녹색 구체의 녹아내리는 광채를 배경으로, 검은 원형 덩어리처럼.

그 녹색 구체의 가장자리 근처에서, 나는 어둡고 불길한 빛이 피어 오르는 것을 목격했다. 그곳이 바로 지구가 떨어졌던 자리였다.

그 빛으로 나는 알 수 있었다. 오래전에 죽은 태양이 여전히 공전하고 있다는 것을. 비록 매우 느린 속도로였지만.

오른편 아주 멀리서, 나는 때때로 희미한 흰빛의 광채를 포착하는 것 같았다.

그것이 나의 착각인지 아닌지, 나는 오랫동안 확신을 가지지 못했다. 그래서 잠시 동안 나는 새로운 경이로움으로 그쪽을 응시했다. 그러다가 드디어, 그것이 환상이 아님을, 오직 현실임을 깨달았다.

빛은 점점 더 밝아졌다. 잠시 후, 녹색의 어둠 속에서 가장 부드러운 흰빛의 구형이 미끄러져 나왔다. 그것은 점점 가까워졌고, 나는 그것이 겉으로 보기에 부드럽게 빛나는 구름의 옷으로 둘러싸여 있음을 보았다.

시간이 흘렀다....

나는 서서히 사라지는 해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그것은 녹색 태양의 표면 위에 드리운 어두운 얼룩처럼 보였다. 내가 지켜보는 사이, 그것은 점점 작아졌다. 마치 거대한 속도로 더 큰 천체 쪽으로 돌진하는 것처럼. 나는 집중해서 바라보았다. 무슨 일이 일어날까? 나는 그것이 녹색 태양에 충돌할 것임을 깨닫고, 이상한 감정에 사로잡혔다. 그것은 완두콩만 하게 작아졌고, 나는 온 영혼을 다해 우리 태양계의 마지막 종말을 목격하기를 기다렸다. 그 태양계는 수많은 세기 동안 수많은 슬픔과 기쁨을 안고 이 세계를 지탱해 왔다. 그런데 이제—

갑자기 시야를 가로지르는 것이 나타났다. 내가 그토록 심혈을 기울여 지켜보던 광경의 흔적은 순식간에 사라졌다.

죽은 해가 어떻게 되었는지 나는 보지 못했다. 하지만 이후에 내가 목격한 것들을 고려할 때, 그것이 녹색 태양의 기이한 불길 속으로 떨어져 소멸했다고 믿지 않을 이유는 없다.

그때 갑자기, 내 머릿속에 놀라운 생각이 떠올랐다. 이 거대한 녹색 불덩이가 바로 방대한 중앙 태양, 즉 우리 우주와 무수히 많은 다른 우주들이 돌고 있는 그 거대한 태양이 아닐까?

나는 혼란스러웠다. 죽은 태양의 최후를 생각했다. 그러자 또 다른, 말 없는 제언이 떠올랐다. 죽은 별들이 녹색 태양을 자신의 무덤으로 삼는 것은 아닐까?

그 생각은 기괴함보다는 가능성과 타당성을 느끼게 했다.

XX

천구의

잠시 동안 수많은 생각이 내 머릿속을 가득 채웠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그저 앞을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다. 나는 의심과 경외, 그리고 슬픈 기억의 바다에 잠긴 듯했다.

그제야 나는 어지러움에서 벗어났다. 멍하니 주변을 둘러보았다. 그러자 나는 너무도 기이한 광경을 목격했다. 잠시 동안, 내가 아직 혼자 생각의 환란에 싸여 있는 것은 아닐까 의심할 정도였다.

주위를 지배하던 녹색 빛 속에서, 끝없이 펼쳐진 강이 자라났다. 그것은 부드럽게 빛나는 구슬들의 강이었다. 각각의 구슬은 순수한 구름으로 된 놀라운 털가죽에 싸여 있었다. 이 구슬들은 내 위와 아래로 모두 알 수 없는 거리까지 이어져 있었다.

그들은 빛나는 녹색 태양의 광채를 가렸을 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 부드러운 빛의 은은한 빛을 제공했다. 그 빛은 내 주위를 감쌌다. 그 빛은 과거나 이후에 내가 본 어떤 것과도 달랐다.

잠시 후, 나는 그 구들 주변에 묘한 투명함이 감돌고 있음을 알아차렸다. 마치 흐릿한 수정으로 만들어져 있는 듯했고, 그 안에서는 부드럽고 차분한 빛이 타오르고 있었다.

그들은 내 옆을 지나갔다. 끊임없이, 느린 속도로 앞으로 부유해 갔다. 하지만 그것은 단순한 이동이 아니라, 마치 그들에게 영원한 시간이 주어져 있는 것처럼 보였다.

오랜 시간 동안 나는 그들을 지켜보았지만, 끝이 보이지 않았다. 때때로 안개 낀 틈새에서 얼굴들을 분별해 내기도 했다. 그러나 그 얼굴들은 기묘하게 흐릿했다. 반은 실재하고, 반은 그들이 비쳐 보이는 안개의 결로 이루어진 것처럼 보였다.

오랜 시간 동안 나는 수동적으로 기다렸다. 하지만 그 기다림 속에는 커져만 가는 만족감이 자리 잡고 있었다. 더 이상 말로 다 할 수 없는 외로움은 느껴지지 않았다. 오히려, 나는 수억 년 동안 겪었던 것보다 훨씬 덜 외롭다고 느꼈다. 이 만족감은 점점 더 강해졌고, 나는 영원히 이러한 천체 구슬들과 함께 부유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했다.

세월이 흘러갔다. 나는 유령 같은 얼굴들을 점점 더 자주, 또 더 뚜렷이 보게 되었다. 영혼이 주변 환경에 더 잘 적응했기 때문인지, 아니

면 단순히 그런 것일 뿐인지, 나는 정확히 알 수 없다. 아마도 전자가 맞을 것이다.

어쨌든 확실한 것은, 내 주변에 새로운 신비로움이 서서히 고조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것은 내가 이미 생각조차 하지 못했던 어떤 영역의 경계 안으로 들어왔음을, 즉 실체적이지 않고 미묘한 존재의 형태나 공간에 도달했음을 일깨워주었다.

빛나는 구체들의 거대한 강은 멈추지 않고 나를 지나쳐 흘렀다. 그 속도는 일정했고, 셀 수 없이 많은 수백만 개의 구체들이 지나갔다. 그 래도 그들은 계속 다가왔고, 끝날 기색은커녕 줄어들 기미조차 보이지 않았다.

그때 나는 부력 없는 에테르 위에서 조용히 떠밀려 가고 있었다. 그러자 문득, 거스를 수 없는 전진감이 느껴졌다. 지나가는 구들 중 하나로 향하는 힘이었다.

순간이었다. 나는 그 구들 곁에 서 있었다.

그리고는 저항감 하나 없이, 안으로 미끄러져 들어갔다. 어떤 방해도 없었다. 잠시 동안은 아무것도 볼 수 없었다. 나는 호기심에 차서 기다렸다.

순간, 상상할 수 없던 정적을 깨는 소리가 들렸다. 그것은 잔잔한 바다의 속삭임 같았다. 잠든 바다의 숨소리였다. 점차 내 시야를 가리던 안개가 희미해졌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자, 나의 시선은 다시 잠의 바다의 고요한 표면으로 돌아갔다.

잠시 동안 나는 그 광경을 응시했다. 눈앞의 모습이 맞는지 믿기 어려웠다. 고개를 돌려 사방을 둘러보았다. 희미한 지평선 위로는, 내가 이전에 보았던 것처럼, 창백한 불꽃의 거대한 구체가 떠 있었다. 왼쪽으로, 바다 너머 멀리, 흐릿한 안개 같은 선이 보였다. 나는 그것이 해안선이라고 추측했다. 그곳은 바로 내가 사랑하던 사람과 마주쳤던 곳이었다. 영혼의 방황이 허락되었던 옛 지구 시절의 놀라운 순간들이 그곳에서 펼쳐졌다.

또 다른, 혼란스러운 기억이 나를 찾아왔다. 잠의 바다 해안을 맴돌던 무형의 존재에 대한 기억이었다. 그 고요하고 메아리 없는 곳의 수호자 말이다. 나는 그 디테일들과 다른 여러 가지 세부 사항들을 기억해 냈고, 의심의 여지 없이 내가 바로 그 바다를 바라보고 있음을 알았다.

그 확신과 함께, 나는 압도적인 놀람과 기쁨, 그리고 떨리는 기대감으로 가득 찼다. 나는 내가 곧 나의 사랑을 다시 보게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나는 그녀를 찾기 위해 주변을 집중해서 둘러보았지만, 그녀의 모습은 전혀 포착할 수 없었다.

그 순간, 잠시 동안 나는 절망감을 느꼈다. 나는 간절하게 기도했고, 여전히 불안한 눈빛으로 주변을 살폈다…. 바다는 얼마나 고요한가!

아래, 먼 곳, 그 아래로. 나는 예전부터 시선을 끌었던 수많은 불꽃의 흔적을 볼 수 있었다. 희미하게, 나는 그것들이 무엇 때문에 생기는지 궁금해졌다. 또한, 나는 내 사랑하는 그에게 그것들에 관해서, 그리고 수많은 다른 일들에 관해서 물어볼 의도가 있었다는 것도 기억났다.

하지만 내가 말하고 싶었던 반절도 말하기 전에, 나는 그녀를 떠나야만 했다.

내 생각이 갑자기 되돌아왔다. 무언가가 나를 건드렸다는 의식이 들었다. 나는 급히 고개를 돌렸다. 주님, 참으로 자비로우시도다. 바로 그녀였다.

그녀는 간절한 갈망으로 내 눈을 올려다보았고, 나는 온 영혼을 담아 그대를 내려다보았다. 나는 그녀를 품에 안고 싶었지만, 그녀의 얼굴에 깃든 영광스러운 정결함이 나를 멀리서 머물게 했다. 그러자 구불구불한 안개 너머에서, 그녀는 사랑스러운 팔을 내게 뻗었다. 그녀의 속삭임은 지나가는 구름의 살랑임처럼 부드럽게 내게 다가왔다.

“사랑하는 이여!”

그것뿐이었다. 하지만 나는 그 말을 들었다. 그리고 순식간에, 내가 기도했던 것처럼, 나는 그녀를 영원히 내 품에 안았다.

잠시 후, 그녀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고, 나는 귀 기울여 들었다. 다가올 영원한 세월 동안에도, 나는 기꺼이 그렇게 듣고 있었을 것이다.

때때로 나는 속삭여 답했다. 나의 속삭임은 그녀의 영혼 같은 얼굴에 다시금 말로 표현할 수 없이 섬세한 빛깔—사랑의 꽃—을 돌려놓았다.

나중에는 내가 더 자유롭게 말을 건넸고, 그녀는 나의 모든 말에 귀 기울이며 기쁘게 화답했다. 그리하여 나는 이미 천국에 들어와 있었다.

그녀와 나, 그리고 우리를 바라보는 고요하고 광활한 허공뿐이었다. 우리 목소리를 들어줄 것은 잠의 바다의 잔잔한 물결뿐이었다.

구름에 감싸인 수많은 구체들이 허공 속으로 사라진 것은, 이미 훨씬 이전의 일이었다. 이제 우리는 잠든 심연의 얼굴을 바라보았고, 우리 둘만 남았다.

오직 둘뿐. 하나님, 나는 내세에서도 이렇게 둘뿐이고 싶다. 그러면 서로 결코 외롭지는 않기를. 나는 그녀를 가졌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녀가 나를 가졌다는 사실이었다. 그래, 영겁의 세월을 살아온 이 나를. 이 생각과 몇 가지 다른 생각들을 의지하여, 우리 사이에 아직 남아 있을지 모를 몇 해를 견뎌 내기를 바란다.

21

어두운 태양

우리의 영혼이 기쁨의 품에 안겨 얼마나 머물렀는지, 나는 알 수 없다. 하지만 순식간에 나는 행복에서 깨어났다. 잠의 바다를 비추던 희미하고 온화한 빛이 약해졌기 때문이다. 나는 다가올 불길한 예감을 안고 거대한 하얀 구체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그 한쪽 면이 안쪽으로 휘어 들어가고 있었다. 마치 불룩한 검은 그림자가 그 위를 가로질러 가는 듯했다. 내 기억은 과거로 거슬러 올라갔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헤

어지기 전, 어둠이 찾아왔던 방식이 바로 이러했다. 나는 문듯이 나의 사랑에게로 고개를 돌렸다. 갑작스러운 슬픔의 깨달음과 함께, 나는 그 짧은 동안에도 그녀가 얼마나 창백하고 비현실적으로 변했는지 알아차렸다. 그녀의 목소리는 멀리서 들려오는 듯했다. 그녀의 손길은 여름 바람의 부드러운 압력 정도에 지나지 않았고, 그조차도 점점 더 느껴지지 않게 되어 갔다.

거대한 구의 절반이 이미 어둠에 잠겨 있었다. 절망감이 나를 덮쳤다. 그녀가 나를 떠날 것인가? 그녀가 이전처럼 떠나야만 할 것인가? 나는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그녀에게 물었다. 그녀는 더 가까이 몸을 기댄 채, 낮설고 먼 곳에서 들려오는 듯한 목소리로 설명한다. 어둠의 태양—그녀가 그렇게 부르는—이 빛을 삼키기 전에, 반드시 떠나야만 한다고.

내 두려움이 확인되자, 나는 절망에 사로잡혔다. 말없이, 조용한 침묵의 바다 평원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어둠이 백색 구의 표면을 순식간에 뒤덮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인간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길었다.

마침내, 희미해져 가는 잠의 바다 위에는 연한 불빛의 초승달 하나만 남아 빛났다. 그동안 그녀는 나를 붙잡고 있었지만, 그 포옹이 너무 부드럽고 다정해서 나는 거의 그 사실을 깨닫지 못했다. 우리는 함께 그곳에 서 있었다. 슬픔이 너무 깊어 말을 잃은 채. 빛이 흐려지는 가운데, 그녀의 얼굴은 흐릿하게 비쳤고, 우리를 감싸는 어스름한 안개 속으로 자연스럽게 스며들었다.

그때, 바다 위에 부드럽게 휘어진 빛의 가는 줄기 하나만 남아 있을 때였다. 그녀는 나를 놓아주었다. 부드럽게, 그러나 분명히 나를 자신의 품에서 밀어냈다. 그녀의 목소리가 내 귀에 울렸다.

“더 이상 머물 수 없어요, 사랑하는 이여.”

그 말은 결국 흐느낌으로 끝났다.

그녀는 내게서 서서히 멀어지며 사라져 갔다. 그림자 너머에서 그녀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마치 아주 먼 곳에서부터 전해지는 듯했다.

‘조금만 더……’

그 말은 멀리서 희미하게 사라졌다.

순간, 잠의 바다가 어둠 속으로 잠겼다.

왼쪽 멀리, 짧은 순간 부드럽게 빛나는 것이 보였다.

그 빛은 사라졌다.

그리고 같은 순간, 나는 더 이상 고요한 바다 위에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

다시 무한한 공간에 매달려 있었다.

앞에는 녹색 태양이 있었다.

하지만 그것은 거대한 검은 구체에 가려 일식처럼 가려져 있었다.

나는 완전히 혼란에 빠진 채, 어둠의 가장자리 위로 치솟는 녹색 불꽃의 고리를 거의 보이지 않는 눈으로 응시했다. 머릿속이 엉켜 있는 와중에도, 나는 멍하니 그 불꽃들의 기묘한 형태에 의문을 품었다. 수많은 질문들이 나를 덮쳤다. 나는 눈앞의 광경보다, 방금 전까지 보았던 그녀를 더 많이 생각했다. 슬픔과 미래에 대한 생각이 나를 가득 채웠다. 나는 영원히 그녀와 갈라져 있어야 할 운명인가? 옛 지구 시절에도, 그녀는 잠시 동안만 내 것이었다. 그 후 그녀는—내가 생각하기로—영영 떠나 버렸다. 그 이후로 나는 잠의 바다 위에서 이 몇 번 외에는 그녀를 본 적이 없었다.

거친 원망과 비참한 자문들이 나를 채웠다. 왜 나는 사랑하는 이와 함께 가지 못했을까? 우리를 갈라놓는 이유가 무엇이었나? 그녀는 잠의 바다의 고요한 품 위에서 긴 세월 잠들어 있는데, 나는 왜 홀로 기다려야 했을까?

잠의 바다!

내 생각은 쓰라림의 흐름에서 벗어나, 새롭고 절박한 의문들로 흘러갔다. 그곳은 어디에 있는가? 어디에 있는가? 나는 방금 전까지 그 고요한 표면 위에서 사랑하는 이와 헤어졌던 것만 같은데, 그 바다는 이미 완전히 사라져 버렸다. 그것이 멀리 떨어져 있을 리는 없었다!

그리고 어둠의 태양 그림자 속에 가려져 있던 그 흰 구체!

내 시선은 식(蝕)에 든 녹색 태양에 머물렀다. 무엇이 그것을 가렸는가? 거대한 죽은 별이 그 주위를 돌고 있는 것인가? 내가 ‘중심 태양’이라 여겨 온 것은 쌍성(雙星)인가? 그 생각은 거의 부르지도 않았는데 떠올랐지만, 그렇지 못할 이유가 또 어디 있겠는가?

내 생각은 백색 구슬로 돌아갔다. 이상했다. 그것이 바로—나는 말을 멈췄다. 갑자기 한 생각이 떠올랐다. 백색 구슬과 녹색 태양! 그들은 실은 하나였을까? 내 상상력은 과거로 거슬러 올라갔고, 나는 이유 없이 그렇게 끌렸던 빛나는 구체를 기억해냈다. 내가 그것을 잠시라도 잊었다니 기이한 일이었다. 다른 것들은 어디에 있었을까? 나는 다시 내가 들어갔던 구체로 돌아갔다. 잠시 동안 생각하니 사물이 선명해졌다. 나는 그 보이지 않는 구체를 통과함으로써, 동시에 그전에는 보이지 않던 또 다른 차원으로 들어갔다고 생각했다. 그곳에서 녹색 태양은 여전히 보였지만, 그것은 희미한 백색 빛의 거대한 구체로 보였다. 마치 그 영혼만이 보이고, 물질적 부분은 보이지 않는 듯했다.

그 주제에 대해 나는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다. 그 구체에 들어서던 순간, 나는 곧바로 다른 모든 구체들을 시야에서 잃어버렸다는 사실이 떠올랐다. 그 후로도 한참 동안, 나는 머릿속으로 여러 가지 세부를 거듭 돌이켜 보았다.

잠시 후, 내 생각은 다른 곳으로 향했다. 나는 다시 현재로 돌아와, 주변을 살피기 시작했다. 처음 나는 수없이 많은 빛줄기가 기묘한 반쯤 어둠을 뚫고 사방으로 뚫고 들어오는 것을 깨달았다. 그 빛은 미묘한 보라색을 띠고 있었다.

그 빛들은 녹색 태양의 화염 같은 가장자리에서 뻗어 나오고 있었다. 시야 속에서 점점 더 선명해지더니, 이내 그 수가 셀 수 없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밤하늘은 그 빛들로 가득 찼다. 녹색 태양에서 부채꼴로 사방으로 퍼져 나가는 빛들이었다.

나는 일식 때문에 태양의 광채가 가려졌기 때문에 비로소 그 빛들을 볼 수 있게 되었다고 결론 내렸다. 그 빛들은 우주 공간 끝까지 뻗어 나갔다가, 이내 사라져 버렸다.

천천히, 바라보고 있자니, 나는 깨달았다. 강렬하고 빛나는 작은 점들이 빛의 줄기를 가로지르고 있다는 것을. 그 중 많은 것들은 초록빛 태양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이동하는 것처럼 보였다. 다른 것들은 공허함에서 나와 태양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다. 그러나 하나같이 각자는 자신이 이동하는 빛의 줄기를 엄격하게 따랐다. 그들의 속도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빨랐다. 그리고 그들이 초록빛 태양에 가까워지거나, 태양을 떠날 때만 내가 그들을 개별적인 빛의 점으로 볼 수 있었다. 태양에서 더 멀리 떨어진 곳에서는, 그들은 보라색 안에서 생생한 불꽃의 얇은 선으로 변했다.

이 빛줄기와 움직이는 불꽃들의 발견은 나를 비상하게 흥미롭게 했다. 그토록 무수히 쏟아져 나가는 그것들은 대체 어디로 향하고 있는 것일까? 나는 우주 저편의 세계들을 떠올렸다……. 그리고 그 불꽃들! 사신(使臣)들이었다! 어쩌면 그 생각은 터무니없는 것이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나는 그것이 그러하다는 사실을 의식하지 못했다. 사신들! 중심 태양에서 온 사신들!

느릿느릿하게 하나의 생각이 피어올랐다. 초록빛 해는 거대한 지성의 거처였을까? 그 생각은 나를 혼란에 빠뜨렸다. 이름 붙일 수 없는 것들의 환상이 희미하게 떠올랐다. 나는 정말로 영원의 거처를 찾아낸 걸까? 잠시 동안 나는 그 생각을 묵묵히 물리쳤다. 너무도 위대해서 감당할 수 없었다. 그러나…….

거대하고 흐릿한 생각들이 내 안에서 태동했다. 나는 갑자기, 끔찍할 정도로 맨몸이 된 기분을 느꼈다. 그리고 끔찍한 ‘근접함’이 나를 떨게 했다.

그리고 천국……! 그것은 환상이었을까?

내 생각은 제멋대로 오갔다. 잠의 바다, 그리고 그녀! 천국……. 나는 단숨에 현재로 돌아왔다. 어디선가, 내 뒤의 허공에서 거대하고 어두운 몸체가 밀려왔다—거대하고도 고요한 것이. 그것은 죽은 별이었다. 별들의 매장지를 향해 돌진하는. 그것은 나와 중심 태양들 사이로 들어와 그것들을 내 시야에서 가렸고, 나를 헤아릴 수 없는 어둠 속으로 빠뜨렸다.

한 시대가 흘러, 다시 보라색 빛줄기들이 보였다. 그보다 훨씬 더 오랜 뒤—분명 영겁의 세월이었으리라—앞쪽 하늘에 둥근 빛이 자라났고, 그 빛을 배경으로 멀어져 가던 별의 가장자리가 어두컴컴하게 드러나 보였다. 이로써 나는 그 별이 중심 태양들에 가까워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곧이어 밤하늘에 녹색 태양의 밝은 고리가 또렷이 드러났다. 그 별이 죽은 태양의 그림자 속으로 들어선 것이다. 그 뒤로 나는

그저 기다렸다. 기이한 세월이 천천히 흘렀고, 나는 줄곧 집중해서 지켜보았다.

내가 기다리던 일이 드디어 찾아왔다. 갑자기, 그리고 끔찍하게도.

눈을 부시게 하는 거대한 빛의 폭발이 일어났다. 어둠의 공허를 가로지르며 하얀 화염이 쏟아져 나왔다. 얼마 동안 그 빛은 밖으로 치솟았다. 거대한 불꽃의 버섯구름처럼.

그것은 더 이상 자라지 않았다. 시간이 흐르자, 천천히 뒤로 가라앉기 시작했다.

이제야 나는 그 빛이 다크 선의 중심 근처에 있는 거대한 발광 지점에서 비롯된 것임을 보았다. 강력한 불꽃들은 여전히 그곳에서 밖으로 치솟고 있었다.

하지만 그 크기가 어찌나 거대했는지, 그 별의 무덤은 죽은 별의 상상할 수 없는 질량과 비교했을 때, 바다 표면에 비친 주피터의 빛만큼이나 작아 보였다.

여기서 한 번 더 말하지만, 두 개의 중앙 태양이 지닌 거대한 부피는 그 어떤 말로도 상상 속에 제대로 전달되지 않을 것이다.

제22장

어둠의 성운

수년이 과거로 녹아들었고, 세기가, 영겁의 세월이 흘렀다.

그 작열하는 별의 빛은 격렬한 붉음으로 가라앉았다.

그때서야 나는 어두운 성운을 보았다. 처음에는 내 오른쪽 멀리, 감지할 수 없을 만큼 희미한 안개처럼 보였다. 그것이 밤하늘에서 검은 덩어리로, 점차 단단해지며 자라났다. 얼마나 오랫동안 그걸 응시했는지 알 수 없다. 우리가 세는 시간 따위는 이미 과거의 일이었기 때문이다.

그것은 더 가까워졌다. 형체 없는 어둠의 괴물, 경악할 만큼 거대한 존재였다. 마치 밤하늘을 유명하듯, 나른하게 스쳐 지나갔다. 지옥의 안개 그 자체였다. 천천히, 더 가까이 다가와서는, 나와 중앙 태양들 사이의 공허 속으로 스며들었다. 마치 내 시야 앞에 커튼이 내려진 듯했다.

이상한 공포의 전율이 나를 덮쳤고, 새로운 경외감이 밀려왔다.

수백만 년 동안 지배해 왔던 녹색 황혼은 이제 뚫을 수 없는 어둠으로 자리를 내주었다. 나는 움직이지 않은 채 주변을 두루 살펴보았다. 한 세기가 흘러갔고, 나는 가끔씩 붉은 빛이 내 옆을 스쳐 지나가는 것을 감지한 것 같았다.

나는 진지하게 응시했다. 곧이어 안개 낀 검은 빛깔 속에서, 흐릿하게 붉게 빛나는 원형 덩어리들이 보였다. 그것들은 안개 낀 어둠 속에서 서서히 솟아오르는 듯했다. 잠시 후, 익숙해진 내 시야에는 그것들이 더 또렷하게 드러났다. 이제 나는 꽤 선명하게 볼 수 있었다. 붉은빛

이 감도는 구형들. 오래전에 내가 보았던 빛나는 구체들과 크기가 비슷했다.

그들은 나를 지나쳐 계속 떠다녔다.

점점 묘한 불안감이 나를 사로잡았다.

저 지나가는 구슬들에 대한 혐오와 공포가 자라나고 있었다.

그것은 어떤 실제적인 이유나 근거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직관적인 지식에서 우러나온 듯했다.

지나가는 구슬들 중에는 다른 것들보다 더 빛나는 것도 있었다. 그리고 그중 하나에서 갑자기 한 얼굴이 모습을 드러냈다. 윤곽은 인간과 같았지만, 그 얼굴은 너무도 고통스러운 슬픔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나는 경악하여 그 얼굴을 응시했다. 나는 그곳에 그런 슬픔이 존재할 줄은 생각지 못했다. 그 눈이 너무도 광기 어린 듯이 빛나고 있었지만, 사실은 보이지 않는 눈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나는 추가적인 고통을 느꼈다. 잠시 동안 나는 그 얼굴을 지켜보았다. 그러자 그것은 주변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그 이후로 나는 다른 얼굴들도 보았다. 모두 희망 없는 슬픔의 표정을 짓고 있었고, 모두 눈이 보이지 않았다.

오랜 시간이 흘렀다. 나는 자신이 구들보다 더 가까이 다가갔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 순간, 나는 불안해졌다. 비록 그 기이한 구슬들을 두려워하기는 했지만, 슬픔에 잠긴 그들 주민들을 보기 전보다는 덜했다. 연민이 나의 공포를 조금은 누그러뜨렸기 때문이다.

그 후, 내가 붉은 구슬들 쪽으로 끌려가고 있다는 사실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었다. 곧이어 나는 그들 사이를 부유했다. 얼마 뒤, 내게 다가오는 하나의 구슬을 알아차렸다. 나는 그 경로에서 벗어날 힘이 없었다. 1분쯤 지났을까, 그 구슬이 내 앞에 닿았고, 나는 짙은 붉은 안개에 잠겼다. 안개가 걷히자, 나는 혼란스러운 시선으로 침묵의 평원의 광활한 너머를 응시했다. 그곳은 내가 처음 보았을 때와 똑같아 보였다. 나는 그 표면을 따라 꾸준히 앞으로 이동하고 있었다. 멀리 앞쪽에는, 그 장소를 밝혀주던 거대한 혈홍색 고리가 빛나고 있었다. 사방에는, 내가 이전의 방황 동안 그 황량함에서 깊은 인상을 받았던, 정적의 기이한 황폐함이 펼쳐져 있었다.

곧이어, 붉게 물든 어둠 속으로 우뚝 솟아오른 거대한 산맥 원형 극장의 먼 봉우리들이 보였다. 그곳은 헤아릴 수 없이 오랜 옛날, 내가 수많은 사물 이면에 숨겨진 공포의 실체를 처음 엿보았던 곳이었다. 그리고 그곳에는 천의 침묵하는 신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이 신비의 집의 복제본이 거대하고 고요히 서 있었다. 그 집은 내가 지옥의 불길에 삼켜지는 것을 본 바로 그 집이었다—지구가 태양과 입맞추기 전, 그렇게 영원히 사라져 버린 그 집.

산의 극장을 이루는 절벽의 꼭대기는 보였으나, 그 아래쪽이 모습을 드러내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렸다. 아마도 침묵의 평원 표면에 달라 붙어 있는 붉은 안개 때문이었을 것이다. 어쨌든 나는 드디어 그 절벽들을 확인했다.

시간이 더 흐른 뒤, 나는 산맥에 극도로 가까워졌다. 산들이 나를 짓누르듯 위압적으로 보였다.

곧이어 거대한 균열이 내 앞에 열렸다. 나는 의지와 상관없이 그곳으로 밀려 들어갔다.

나중 나는 거대한 원형 극장의 넓은 공간으로 나섰다.

약 오 마일 떨어진 곳에 그 집이 서 있었다. 거대하고 기괴하며 고요했다. 그 장엄한 원형 극장의 정중앙에 자리 잡고 있었다.

내가 볼 수 있는 한, 집은 조금도 변한 곳이 없었다. 어제 내가 본 것과 똑같아 보였다.

주변은 거칠고 어두운 산들이 높은 고요함 속에서 나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내 오른쪽 멀리, 오를 수 없는 봉우리들 사이로 거대한 짐승 신의 거대한 몸체가 우뚝 솟아 있었다. 더 높은 곳, 붉은 안개 속을 뚫고 올라오는 공포의 여신의 추악한 형상이 보였다. 그것은 내 위로 수천 패덤 높이에 자리하고 있었다. 왼쪽으로는 회색빛에 헤아릴 수 없는 기괴한 눈 없는 것이 보였다. 더 멀리, 높은 바위 턱에 기대어 누워 있는 창백한 구울의 형상이 보였다. 어두운 산들 사이로 불길한 색의 얼룩처럼 보였다.

천천히, 나는 거대한 광장을 가로질러 나갔다. 나는 떠다니고 있었다. 내가 나아가자, 나는 그 최고 높이를 차지하고 있던 다른 많은 숨어 있는 괴물들의 흐릿한 형태들을 알아챘다.

점점 집 가까이에 다가섰다. 수년간의 세월이라는 심연 너머로 내 생각이 되돌아갔다. 나는 그곳의 공포스러운 망령을 기억했다. 잠시 후, 나는 내가 그 고요한 건물의 거대한 덩어리 쪽으로 직접 끌려가고 있음을 보았다.

이쯤 되자 나는 무심한 기분으로, 점점 커지는 저림 증세를 깨달았다. 그 감각은 내가 무서워해야 할 두려움을 앗아갔다. 바로 그 위엄 있는 건물을 향해 다가갈 때 느껴야 할 공포 말이다. 그래서 나는 그 건물을 차분히 바라보았다. 마치 담배 연기의 안개 너머로 재앙을 바라보는 남자처럼.

잠시 후, 나는 그 집에 가까워져서 여러 가지 세부 사항을 구분할 수 있었다. 더 오래 바라볼수록, 오래전에 느꼈던 이 낯선 집과 완전히 닮았다는 내 인상은 더욱 확고해졌다. 거대한 크기만 빼면, 나는 그 어떤 차이점도 찾을 수 없었다.

순간, 응시하던 내 가슴에 놀라움이 일었다. 나는 바로 그 부분, 즉 서재로 통하는 바깥문이 있는 자리와 마주 서 있었다. 문턱을 가로질러 거대한 코핑 스톤 한 줄기가 놓여 있었다. 크기와 색만 다를 뿐, 구덩이 생물들과의 싸움에서 내가 떨어뜨린 돌과 정확히 일치하는 것이었다.

나는 더 가까이 다가갔다. 그리고 문이 경첩 부분에서 반쯤 부러져 있다는 사실을 눈치채자, 놀람은 더욱 커졌다. 그 모습은 정확히 내 서재 문이 돼지것들의 습격으로 안쪽으로 강제로 열렸던 방식과 같았다.

그 광경은 내 생각의 연쇄를 촉발했다. 나는 어렵פות이 깨달기 시작했다. 이 집에 가해진 공격이 내가 지금까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를 지닐지도 모른다는 것을.

오래전, 옛 지구의 시절, 나는 이 집이 그 놀라운 침묵의 평원 한가운데 있는 다른 거대한 구조물과 _en rapport—공인된 용어를 쓰자면—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반쯤 의심했던 기억이 났다.

하지만 이제야 나는 깨달았다. 내가 그 의심의 정체를 얼마나 모호하게만 이해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나는 초인적인 선명함으로 이해하기 시작했다. 내가 막아낸 그 공격이, 이상하게도 그 기이한 건물에 가해진 공격과 어떤 특별한 방식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이상하게도, 내 생각은 갑자기 그 일에서 멀어졌다. 나는 신기하게도 그 집이 어떤 특이한 재료로 만들어졌는지에 대해 생각에 잠겼다. 그 집은 - 앞서 언급했듯이 - 짙은 녹색을 띠고 있었다. 그러나 이제 그 집에 가까이 다가서자, 나는 그것이 때때로 약간씩 변하는 것을 발견했다. 마치 어두운 곳에서 손바닥에 인을 문 후 인광이 나는 것처럼 빛나고 사라지는 현상이었다.

그때쯤, 나는 거대한 입구에 다다랐다. 그곳에서 나는 처음으로 두려움을 느꼈다. 순식간에 거대한 문이 뒤로 열렸고, 나는 그 사이로 무력하게 밀려 들어갔다. 안쪽은 온통 검댕처럼 짙은 어둠으로 가득 차 있었다. 나는 단숨에 문턱을 넘었고, 거대한 문은 소리 없이 닫혔다. 나는 그 빛 한 점 없는 공간 안에 갇힌 채였다.

잠시 동안 나는 움직이지도 않은 채 공중에 매달려 있는 듯했다. 어둠 한가운데서 나는 정지해 있었다.

그때야 비로소 나는 다시 움직이고 있음을 깨달았다. 어디로 움직이는지는 알 수 없었다.

그 순간, 멀리 아래에서 돼지것들의 웃음소리가 은은하게 들려오는 것 같았다. 소리는 이내 사라졌고, 이어지는 침묵은 공포로 가득 차 있는 듯 무겁게 가라앉았다.

그때, 앞쪽 어딘가에서 문이 열렸다. 희미한 빛의 안개가 스며들었고, 나는 천천히 한 방 안으로 떠밀려 들어갔다. 그곳은 왠지 낯익은 분위기였다.

순간, 어지럽고 비명 같은 소리가 터져 나왔다. 귀를 찢을 듯한 굉음에 나는 귀가 멀었다. 시야 앞에서는 불꽃처럼 환한 환상들이 흐릿하게 스쳤다. 영원한 순간만큼의 시간 동안, 나의 오감은 혼미해졌다.

그리고 나서야, 시력이 돌아왔다. 어지럽고 흐릿하던 기운이 걷히자, 나는 또렷하게 볼 수 있었다.

스물셋

페퍼

나는 의자에 앉아 있었다. 다시 이 낡은 서재로 돌아온 것이다. 내 시선은 방 안을 두리번거렸다. 잠시 동안, 방은 기이하고 떨리는 듯한 모습을 띠었다. 현실감이 없고 형체 없는 그런 느낌이었다. 그러자 그 기묘한 현상은 사라졌다. 그리고 나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음을 깨달았다. 나는 끝쪽 창문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커튼은 올라가 있었다.

나는 떨리는 몸으로 자리에서 일어섰다. 몸을 일으키던 찰나, 문 쪽에서 아주 작은 소리가 들려 나의 주의를 끌었다. 나는 그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잠시 동안, 문이 부드럽게 닫히는 것처럼 보였다. 나는 눈을 크게 뜨고 바라보았지만, 내가 착각했음을 알 수 있었다. 문은 여전히 단단히 닫혀 있었다.

나는 여러 차례의 시도를 끝에 창가로 다다랐다. 그리고 밖을 내다 보았다. 해가 막 뜨고 있었다. 엉킨 정글처럼 뒤엉킨 정원을 비추며. 아마도 1분쯤 나는 그 자리에 서서 멍하니 바라보았다. 나는 혼란스러운 손으로 이마를 훔쳤다.

지각의 혼란이 한창일 때, 문득 한 생각이 떠올랐다. 나는 급히 몸을 돌려 페퍼를 불렀다. 대답은 없었다. 공포에 질린 나는 방 안을 더듬거리며 허둥지둥 뛰어갔다.

그런 와중에도 나는 그의 이름을 부르려 애썼다. 하지만 입술은 저
러 말이 나오지 않았다. 식탁에 다다라 나는 숨을 죽이며 그에게 몸을
굽혔다.

식탁 그림자 속에 그가 누워 있었다. 창문에서는 뚜렷이 보이지 않
았던 것이다. 몸을 굽히려는 순간, 나는 숨을 멈췄다.

페퍼는 없었다. 대신 내 손은 회색의, 재와 같은 가느다란 먼지 더미
쪽으로 뻗어 있었다.

나는 그 반쯤 굽은 자세로 몇 분은 있었을 것이다. 나는 망연자실했
다 — 멍하니 충격에 빠져 있었다. 페퍼는 정말로 그림자의 땅으로 건
너가 버린 것이다.

二十四

정원 속의 발자국

페퍼가 죽었다. 지금도 나는 가끔, 이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믿기 어
려울 때가 있다. 그 기묘하고 끔찍한 시공간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지
는 이미 몇 주가 지났다.

때때로 잠들면 나는 그것을 꿈꾸곤 한다. 상상 속에서 그 공포스러
운 일들을 다시 겪는다. 깨어난 후에도 내 생각은 그곳에 머문다.

그 태양들, 정말로 알 수 없는 천공의 전 우주가 공전하는 거대한 중
심 태양들이었던 것인가? 누가 단언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초록빛 태

양의 빛속에서 영원히 떠다니는 밝은 구슬들! 그들이 떠 있는 잠의 바다!

모든 것이 믿기지 않는다. 페퍼가 없었다면, 내가 목격한 그 기이한 일들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것이 단지 거대한 꿈일 뿐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리고 그 끔찍하고 어두운 성운이 있다. 수많은 붉은 구슬들을 품고 있으며, 항상 어둠의 태양 그림자 안에서 움직이며, 장엄한 궤도를 따라 흐른다. 영원히 어둠에 싸인 채로.

그리고 나를 향해 내다보던 얼굴들! 신이시여, 그들은 정말 존재하는가? 그런 것이 실제로 존재하는가?

지금도 내 서재 바닥에는 작은 회색 재더미가 쌓여 있다. 나는 그 재가 만져지는 것을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가끔은 마음이 가라앉은 자리에서, 나는 태양계의 바깥 행성들이 결국 어떻게 되었을까 생각해 보곤 한다. 그들의 중력에서 벗어나 태양의 인력을 뿌리치고, 끝없는 우주 공간으로 흩어졌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문득 든다.

물론 이는 내 추측에 불과하다. 하지만 궁금한 일들이 너무나도 많다.

지금 글을 쓰는 지금, 나는 확실한 한 가지를 기록해 두려 한다. 끔찍한 일이 벌어질 것이라는 사실이다.

어젯밤, 어떤 일이 일어났다. 그것은 나로 하여금 '구덩이'에 대한 공포보다 더 깊은 절망에 빠지게 했다. 나는 이를 지금 기록한다. 만약 더 이상의 일이 발생한다면, 즉시 메모를 남기려 한다. 나는 이번 일이 이전의 모든 사건들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느낌을 받고 있다.

지금 이 순간, 글을 쓰는 내 손조차 떨리고 신경이 날카롭게 예민해져 있다. 어딘가에서 죽음이 코앞까지 다가와 있다는 직감이 든다. 나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이해하는 그 죽음을 말이다. 하지만 공기 중에 서려 있는 것은, 나를 두려워하도록 부추기는 것이다. 형체 없는, 차가운 공포가 그곳에 자리 잡고 있다. 나는 어젯밤 그것을 느꼈다. 그 경위는 다음과 같다.

어젯밤, 나는 서재에 앉아 글을 쓰고 있었다. 정원으로 통하는 문은 반쯤 열려 있었다. 때때로, 개 목줄의 쇠사슬이 부딪히는 금속성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그것은 페퍼가 죽은 이후 내가 사 온 개 것이다. 나는 그 개를 집 안으로 들이지 않았다. 페퍼 이후로는 더더욱 그러했다. 그럼에도 나는 집 주변에 개 한 마리쯤 두는 것이 더 낫다고 느꼈다. 개들은 놀라운 존재들이니까.

나는 작업에 한참 몰두하고 있었고, 시간은 빠르게 흘러갔다.

갑자기 정원 바깥의 길에서, 은밀하고 묘한 소리가 들렸다.

'패드, 패드, 패드.'

그 소리는 다가오는 것 같았다. 나는 몸을 곧추세우고 열린 문 너머로 내다보았다. 다시 그 소리가 들렸다. '패드, 패드, 패드.'

약간의 긴장감이 밀려왔다. 나는 정원을 응시했지만, 밤은 모든 것을 가려버린 채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때 개가 길게 울부짖었다. 나는 깜짝 놀라 몸을 떨었다.

나는 잠시 동안, 아마도 1분쯤은 되었을까, 귀를 기울여 주변을 살폈다. 하지만 들리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잠시 후, 나는 내려놓았던 펜을 다시 집어 들었다. 그리고 작업을 다시 시작했다.

그때 느꼈던 신경질적인 떨림은 이미 사라져 있었다. 내가 들었던 그 소리는, 사슬 길이에 맞춰 개가 자신의 우리 주변을 돌아다니는 소리일 뿐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십오 분쯤 지났을까.

그때였다. 개가 다시 울부짖었다.

그 소리는 지극히 애절하고 비통했다. 나는 벌떡 일어섰다. 펜을 떨어뜨려, 작업 중이던 페이지에 먹물이 번졌다.

“저 개를 저주한다.” 나는 중얼거렸다. 내가 무엇을 했는지 깨닫고 서였다.

그 말을 내뱉는 순간, 또 그 기묘한 소리가 들렸다.

‘팍, 팍, 팍.’

소리는 무척 가까웠다. 거의 문 바로 옆이라고 생각될 정도였다.

이제 나는 그 소리가 개가 아님을 알았다. 개의 사슬이 그 정도로 가까이 올 수 없게 막고 있었기 때문이다.

개에게서 다시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무의식적으로 그 소리에 스민 공포의 기운을 감지했다.

창밖, 창턱 위에 내 누이의 애묘 틱이 보였다. 내가 바라보는 사이, 틱은 벌떡 일어났다. 꼬리가 부풀어 오르는 것이 선명하게 드러났다. 잠시 동안 틱은 그 자세를 유지했다. 마치 문이 있는 방향의 무언가를 뻔히 응시하는 듯했다. 그러더니 틱은 재빨리 창턱을 따라 뒤로 물러났다. 끝까지 물러나 벽에 다다랐을 때, 더 이상 갈 곳이 없었다. 틱은 그 곳에서 굳어 섰다. 마치 극도의 공포에 얼어붙은 듯했다.

두려움과 당혹감에 휩싸인 나는 구석에서 막대기를 집어 들고, 손에 촛불 하나를 든 채 조용히 문 쪽으로 다가갔다. 몇 걸음도 남지 않은 순간이었다. 그런데 갑자기, 어디서 비롯되었는지 모를 생생하고 떨리는 공포가 내 온몸을 관통했다. 그것이 왜 그런지조차 나는 알 수 없었다.

공포감이 너무도 컸기에 나는 망설임 시간이 없었다. 곧장 뒤로 물러났다. 뒤로 걸어가면서도, 두려움에 떨며 문에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 문에 달려가 문을 닫고 빗장을 채울 수만 있다면 무엇이든 바쳤을 것이다. 그 문은 이미 수리하고 보강해 두어,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훨씬 단단해져 있었기 때문이다.

툼처럼, 나는 거의 무의식적으로 뒤로 물러났다. 결국 벽에 부딪혀 더 이상 갈 곳이 없어지자, 나는 긴장한 채 불안한 눈빛으로 주변을 둘러보았다. 그때, 시선이 잠시 총기 선반에 머물렀고, 나는 총을 향해 한 발짝 내딛으려다 멈췄다. 이상하게도, 그 총들은 필요 없을 것 같다는 기분이 들었다.

밖, 정원에서 개가 기이하게 울부짖었다.

갑자기 고양이에게서 날카롭고 길게 비명 같은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다. 나는 경련하듯 시선을 그쪽으로 돌렸다. 무언가 빛나고 유령 같은 것이 고양이를 감싸며 내 시야를 채워갔다. 그것은 빛나는 손으로 구체화되었다. 반투명한 손바닥 위를 초록빛 불꽃이 야무지게 타올랐다. 고양이는 마지막으로 끔찍한 울음을 지르더니, 나는 그것이 연기를 내며 타오르는 것을 보았다. 나는 숨을 헐떡이며 벽에 기대었다. 창문의 그 부분에는 초록빛 기괴한 얼룩이 번졌다. 그것은 나를 향해 있는 그 존재를 가렸지만, 불빛은 흐릿하게 스며나오고 있었다. 타는 냄새가 방 안으로 스며들었다.

발걸음 소리. 패드, 패드, 패드.

정원 길을 무언가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다.

열려 있는 문 너머로, 희미하고 곰팡내 나는 냄새가 스며들어 들어왔다.

그 냄새는 타버린 듯한 냄새와 섞여 있었다.

개가 잠시 동안이나 고요했다. 그때, 나는 그가 고통에 시달리는 듯 날카롭게 짖는 소리를 들었다. 이윽고 그는 다시 조용해졌지만, 가끔씩 두려움에 찬 낮고 약한 울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1분이 흘렀다. 그러자 정원의 서쪽 끝에 있는 대문이 멀리서 쿵 하고 닫혔다. 그 후로는 아무 소리도 없었다. 개의 하소연조차 들리지 않았다.

나는 그곳에 몇 분 동안 서 있었을 것이다. 그러자 한 조각의 용기가 내 마음에 스며들었다. 나는 두려움에 떨며 문 쪽으로 내달렸다. 문을 세게 닫고 빗장을 걸었다. 그 후, 꼬박 반 시간 동안 나는 무력한 채, 정면만 응시하며 굳어 앉아 있었다.

천천히, 내 생명력이 다시 내 몸으로 돌아왔다. 떨리는 다리로, 나는 위층 침실로 올라갔다.

그것이 전부다.

제25장

아레나의 것

아침 일찍 정원을 돌아보았지만, 모든 것은 평소와 다름없었다. 문 근처에서 발자국을 찾기 위해 길을 자세히 살펴보았지만, 역시나 어젯밤이 꿈이었는지 현실이었는지 알려줄 만한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다.

내가 그 개에게 말을 걸었을 때야 비로소, 무언가 실제로 일어났다는 구체적인 증거를 발견했다.

내가 그의 개집으로 다가가자, 개는 안으로 들어가 한 구석에 웅크리고 있었다. 밖으로 나오게 하려면 달래야만 했다.

마침내 개가 나오기로 했을 때, 그 태도는 기이하게도 굴복하고 위축된 모습이었다.

내가 그를 쓰다듬자, 왼쪽 옆구리에 녹색빛이 도는 자국이 눈에 띄었다. 자세히 보니, 털과 피부가 태워져 없어진 듯했다. 살이 드러나 생살이 그을린 상태였다.

그 자국의 모양은 묘했다. 거대한 발톱이나 손의 흔적을 떠올리게 했다.

나는 깊은 생각에 잠겨 자리에서 일어났다. 시선이 서재 창가로 흘렀다. 떠오르는 햇살이 창문 아래쪽 모서리의 연기 낀 자국 위에서 어른거리며, 그 자국이 이상하게도 녹색에서 붉은색으로 흔들거렸다.

아! 이것은 의심할 여지 없는 또 다른 증거였다. 그리고 갑자기, 어젯밤 내가 본 끔찍한 그 ‘것’이 기억 속으로 떠올랐다. 나는 다시 개를 바라보았다. 이제야 비로소, 그 옆구리에 난 혐오스러운 상처가 어디에서 생겼는지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어젯밤 내가 목격한 것이 실제로 일어난 사건임을 깨달았다.

거대한 불편함이 나를 뒤덮었다. 페퍼! 팁! 그리고 이제 이 불쌍한 동물까지……! 나는 다시 개를 흘끗 보았다. 개가 상처를 핥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불쌍한 짐승!’ 나는 중얼거리며 그의 머리를 쓰다듬으려 몸을 숙였다. 그러자 그는 벌떡 일어났다. 손끝을 코로 톡 치고, 간절하게 내 손을 핥았다.

잠시 후, 나는 그를 떠났다. 내가 처리해야 할 다른 일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저녁 식사 후, 나는 다시 그를 보러 갔다. 그는 조용해 보였고, 자신의 우리에서 나가는 것을 꺼리는 듯했다. 내 여동생에게 들은 바로는, 그는 오늘 하루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고 했다. 그녀가 그 사실을 알려줄 때, 약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하지만 그녀 자신은 그 어떤 것에 대해 두려워할 필요를 느끼지 못한 듯했다.

하루는 평온하게 지나갔다. 차를 마신 뒤, 나는 다시 개를 보러 갔다. 개는 기분이 다운되어 있었고, 다소 초조해 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개집 안에 머물러 있었다. 밤에 문을 잠그기 전, 나는 그의 개집을 벽에서 치워 뒀다. 그래야 오늘 밤 작은 창문으로 개집을 감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밤 동안 개를 집 안으로 들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신중하게 고려한 결과, 그는 밖에서 지내도록 했다. 나는 이 집이 정원과 비교해 덜 무섭다고 말할 수 없다. 페퍼도 집에 있었는데, 그런데도....

지금 두 시다. 밤 여덟 시부터 나는 내 서재의 작은 옆창을 통해 켄넬을 지켜봐 왔다.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나는 더 이상 지켜볼 체력도, 정신력도 없다. 이제 잠자리에 들겠다.

밤새 나는 잠들지 못했다. 이는 드문 일이다. 하지만 새벽 무렵, 몇 시간의 잠을 청할 수 있었다.

나는 일찍 일어났다. 아침을 먹고 나서 개를 보러 갔다. 개는 조용했다. 하지만 기분이 안 좋아 보였고, 우리 밖으로 나가는 것을 거부했다.

이 근처에 말 의사가 하나만 있어도 좋겠다. 이 불쌍한 짐승을 좀 봐 주길 바랐다.

하루 종일 개는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 하지만 물을 갈망하는 것이 뚜렷이 드러났다. 개는 물을 갈급하게 마셨다. 그 모습을 보고 안도했다.

저녁이 내렸다. 나는 지금 내 서재에 앉아 있다. 어젯밤 세웠던 계획을 이어가, 개장(犬場)을 지켜보려 한다. 정원으로 통하는 문은 빗장을 걸어 단단히 잠그었다. 나는 의식적으로, 창문에 철창이 달려 있다는 사실에 안도한다.

자정이 지나갔다. 개는 지금까지 고요했다. 왼쪽 옆창으로, 나는 개집의 윤곽을 희미하게 분간할 수 있다. 처음으로 개가 움직이며, 사슬이 딸랑거리는 소리가 들린다. 나는 재빨리 밖을 내다본다. 응시하는 사이, 개가 다시 불안하게 몸을 움직인다. 그리고 나는 개집 내부에서

작은 빛의 반짝임을 본다. 그것은 사라졌다. 그러자 개가 다시 움직이며, 다시금 그 빛이 나타난다. 나는 의아해진다. 개는 조용하고, 나는 그 빛나는 대상을 또렷이 볼 수 있다. 그것은 선명하게 드러난다. 그 형태에 어딘가 익숙한 느낌이 든다. 잠시 동안 나는 생각에 잠기다가, 그것이 손가락 네 개와 엄지손가락처럼 생겼다는 것을 깨닫는다. 손과 같다! 그리고 나는 그 개의 옆구리에 난 끔찍한 상처의 윤곽을 떠올린다. 내가 보는 것은 바로 그 상처일 것이다. 밤에 빛나다니, 왜일까? 분초가 흐른다. 내 마음은 이 새로운 현상으로 가득 차 있다....

갑자기 정원에서 소리가 들렸다. 그 소리가 내 몸을 타고 흐르는 전율.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팍, 팍, 팍.’

등골을 오싹하게 하는 가시 돋친 듯한 감각이 척추를 타고 올라와 두피 전체로 번져나갔다. 개집 안에 있던 개가 몸을 움직이며 겁에 질려 킁킁거렸다. 개가 몸을 돌렸기 때문일 것이다. 이제 나는 그 빛나는 상처의 윤곽을 더 이상 볼 수 없었다.

바깥 정원은 다시 고요해졌다. 나는 두려움에 떨며 귀를 기울였다. 1분이 지나고 또 1분이 흘렀다. 그러자 그 소리가 다시 들렸다.

그 소리는 아주 가까웠다. 자갈길을 따라 내려오는 듯했다. 그 소리는 기이할 정도로 규칙적이고 의도적이었다.

문 밖에서 소리가 멈췄다. 나는 벌떡 일어나 그 자리에 굳어 섰다.

문 너머에서 약한 소리가 들려왔다. 빗장이 천천히 들어 올리는 소리였다.

귀에는 웅하는 소리가 울렸고, 머리 주변이 짓눌리는 듯한 압박감을 느꼈다.

잠금쇠가 떨어지며 날카로운 ‘딸깍’ 소리를 내며 걸쇠에 꽂힌다. 그 소리는 내 긴장된 신경을 거칠게 건드려, 다시 한번 나를 놀라게 한다. 그 후, 나는 점점 깊어지는 고요함 속에 오래 서 있다. 그러다 갑자기 무릎이 떨리기 시작해, 급히 앉지 않을 수 없다.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뒤였다. 서서히 나는 나를 사로잡았던 공포의 감정을 떨쳐내려 했다.

그래도 나는 자리에 앉아 있었다. 움직일 힘을 잃은 듯했다. 이상하게도 피로가 몰려왔고, 잠이 올 것 같았다. 눈이 뜨였다가 감졌다. 그러다 어느새 나는 잠들었다가 깨어났다. 간헐적으로, 불규칙하게.

그때부터 얼마 뒤, 나는 반쯤 잠든 상태에서 촛불이 꺼져가고 있음을 느꼈다. 다시 눈을 떴을 때는 불이 완전히 꺼져 있었고, 방은 남은 한 줄기 불빛 아래 희미하게 어두워져 있었다. 반쯤 어둠은 나를 크게 괴롭히지 않았다. 나는 이미 그 끔찍한 두려움을 잃어버린 뒤였고, 오직 잠들고 싶다는 생각뿐이었다. 잠, 오직 잠뿐이었다.

갑자기, 소리는 없었지만 나는 깨어났다. 완전히, 또렷이 깨어났다. 어떤 신비, 혹은 압도적인 기운이 바로 곁에 있음을 날카롭게 느꼈다. 공기 자체가 공포로 가득 찬 듯했다. 나는 몸을 움크린 채, 경청했다.

여전히 소리는 없었다. 자연 그 자체조차 죽은 듯 고요했다. 그러자, 그 답답한 정적은 바람의 기묘한 비명 하나에 깨졌다. 그 바람은 집 주위를 휘감아 지나가다, 멀리서 사라졌다.

시선을 어두운 방 안으로 흘렸다. 멀리 구석에 있는 큰 시계 옆에, 키 큰 어둠의 그림자가 서 있었다. 잠시 동안 나는 공포에 질려 그 그림자를 응시했다. 그러다 그것이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고, 잠시 안도했다.

그 후의 시간 동안, 한 생각이 내 뇌리를 스쳐 지나간다. 왜 이 집을 떠나지 않는가—이 신비와 공포의 집—라고.

그러자 마치 대답이라도 하듯, 내 시야 너머로 한 가지 광경이 휩쓸고 지나간다. 경이로운 잠의 바다의 모습이다. 수년간의 이별과 슬픔 이후, 그녀와 내가 만나도록 허락된 그 잠의 바다.

그리고 나는 알겠다. 무슨 일이 일어나든, 나는 이곳에 머물러야 한다고.

사이드 창문 너머로, 나는 밤의 엄숙한 어둠을 확인한다. 시선이 방 안을 배회하며, 어둠 속에 흐릿하게 드러난 사물들 하나, 또 하나에 멈춘다.

그때 갑자기 몸을 돌린다. 오른쪽에 있는 창문을 바라본다. 그러자 숨이 가빠지고, 몸을 앞으로 굽힌다. 창문 밖, 철창에 가까이 붙은 무언가를 공포에 찬 시선으로 응시하며.

거대하고 안개 낀 돼지 얼굴이 보인다. 그 위에는 푸르스름한 빛을 띤 격렬한 불꽃이 요동친다. 아레나의 그 존재다. 떨리는 입술에서는 인광성 침이 끊임없이 흘러내리는 듯하다. 눈은 방 안을 똑바로 응시하며, 해독할 수 없는 표정을 짓고 있다.

이렇게 나는 굳어 앉아, 얼어붙은 채 움직일 수 없다.

그것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천천히, 내 쪽으로 몸을 돌리고 있다. 그 얼굴이 내 쪽으로 돌아오고 있다. 그건 나를 보고 있다. 거대하고, 비 인간적이면서도 인간적인 두 눈이 어둠을 뚫고 나를 응시한다. 나는 공포로 몸이 얼어붙었다. 그러나 지금도 나는 날카로운 의식을 유지하고 있다. 그리고 아무 관련 없는 생각으로, 멀리 있는 별들이 그 거대한 얼굴의 그림자에 가려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차렸다.

새로운 공포가 나를 덮쳤다. 나는 의식하지도 않은 채 자리에서 일어났다. 발걸음이 문 쪽으로 향하게끔, 어딘가가 나를 밀어붙이고 있다. 정원으로 통하는 문이다. 멈추고 싶지만, 멈출 수 없다. 나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변하지 않는 어떤 힘이 나를 조종한다. 나는 원치 않는 몸으로, 저항하며 천천히 앞으로 나아간다. 시선은 방 안을 헤매다 창문에서 멈춘다. 거대한 돼지 얼굴은 사라졌고, 다시 그 은밀한 발소리, ‘딸깍, 딸깍, 딸깍’이 들린다. 그 소리는 문 바깥에서 멈췄다. 바로 내가 강제로 끌려가고 있는 저 문에서 말이다.

잠시, 짧고도 강렬한 침묵이 이어졌다. 그 다음, 소리가 들렸다. 문 빗장이 천천히 들려 올리는 딸랑거리는 소리였다. 그 소리에 나는 절망에 사로잡혔다. 나는 더 이상 한 발짝도 나아가지 않기로 했다. 뒤로 물

러서려 거대한 힘을 썼지만, 보이지 않는 벽을 밀어내는 것과 다름없었다. 나는 공포의 고통 속에서 신음했다. 내 목소리는 나를 무서워하게 만들 정도였다. 다시 그 딸랑거리는 소리가 들렸고, 나는 식은땀을 흘리며 떨어졌다. 나는 뒤로, 뒤로 물러서려 애썼다. 싸우고, 분투했다. 하지만 소용없었다.

나는 문 앞에 섰다. 기계적으로, 내 손이 앞으로 나아가 최상단의 빗장을 풀려는 것을 지켜보았다. 손은 내 의지와 전혀 상관없이 움직였다. 빗장을 향해 손을 뻗는 순간, 문이 격렬하게 흔들렸다. 문틈으로 곰팡내 나는 역겨운 공기가 훅 끼쳐 들어왔다. 나는 천천히 빗장을 뒤로 당겼다. 무언으로, 둔하게 저항하면서. 빗장이 고정구에서 '딸깍' 소리와 함께 빠졌고, 나는 학질에 걸린 듯 부들부들 떨기 시작했다. 문에는 빗장이 두 개 더 있었다. 하나는 문 하단에, 다른 하나는 중간쯤에 있는 거대한 것이었다.

잠시, 아마도 1분쯤이었을까. 나는 팔을 축 늘어뜨린 채 그 자리에 섰다. 문의 잠금장치를 만지작거리려는 그 영향력은 사라진 듯했다.

그런데 갑자기, 내 발밑에서 철컹 하는 쇠소리가 났다.

나는 급히 고개를 숙여 내려다보았다. 그리고 형언할 수 없는 공포에 사로잡혔다. 내 발이 아래쪽 빗장을 밀어내고 있었던 것이다.

엄청난 무력감이 나를 덮쳤다…….

빗장이 고정구에서 살짝 울리는 소리와 함께 빠져나왔고, 나는 비틀거리며 몸을 지탱하기 위해 중앙의 거대한 빗장을 움켜잡았다.

1분이 흘렀다. 영원처럼 긴 시간이. 그리고 또 한 번이…… 하나님, 저를 도와주소서!

나는 마지막 잠금장치마저 풀도록 강요당하고 있었다. _나는 하지 않겠어!_ 문 너머에 있는 그 '공포'에게 문을 열어주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정녕 도망칠 길은 없단 말인가……?

하나님, 저를 도와주소서. 나는 빗장을 고정구에서 절반이나 잡아당겨 빼고 말았다! 내 입술에서 쉼 공포의 비명이 새어 나왔다. 빗장은 이제 4분의 3까지 뽑혀 있었고, 그럼에도 내 무의식적인 손은 여전히 파멸을 향해 움직이고 있었다.

내 영혼과 그 '것' 사이에는 오직 강철 한 조각만이 남아 있었다. 나는 극한의 공포 속에서 두 번이나 비명을 질렀다. 그리고는 마지막으로 미친 듯이 힘을 짜내어 손을 떼어냈다.

눈이 멀어지는 것 같았다. 거대한 어둠이 나를 덮쳐오고 있었다. 자연이 나를 구원하러 온 것이다. 무릎이 풀리는 것이 느껴졌다. 문에서 크고 빠른 둔탁한 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리고 나는 쓰러져 갔다. 추락하고 있었다…….

나는 그곳에 적어도 두 시간 이상 누워 있었을 것이다. 의식을 되찾았을 때, 나는 다른 한 개의 양초가 완전히 타버렸고, 방이 거의 완전한 어둠에 잠겨 있음을 깨달았다. 나는 일어나려 하지 못했다. 추웠고, 끔찍한 경련이 온몸을 감싸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의 뇌는 선명했고, 더 이상 그 불경스러운 영향의 압박은 없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무릎을 꿇고, 중앙의 빗장을 더듬어 찾았다. 빗장을 찾자 단단히 고정구에 끼워 넣었다. 이어 문 아래쪽의 빗장도 같은 방식으로 고정했다. 그제야 나는 일어서서, 문 위쪽의 잠금장치를 제대로 걸 수 있었다.

그 후, 다시 무릎을 꿇고 가구 사이를 헤치며 계단 방향으로 기어갔다. 이렇게 함으로써 나는 창문 쪽에서 눈에 띄지 않을 수 있었다.

나는 반대편 문에 닿았다. 서재를 떠날 때, 나는 불안한 눈길로 어깨 너머로 창문을 향해 한 번 훑어보았다. 밤바깥에서, 나는 무엇인가 형체 없는 것의 일면을 잡아낸 것 같았다. 하지만 그것은 단지 환상일지도 모른다. 그러자 나는 복도에 있었고, 계단 위에 있었다.

침실까지 다다랐다. 옷을 그대로 입은 채로 침대에 기어올라 이불을 뒤집어썼다. 잠시 후, 나는 간신히 자신감을 조금씩 되찾기 시작했다. 잠들기는 불가능했지만, 이불이 가져다준 따뜻한 위안은 고마웠다.

곧이어 지난밤의 일을 떠올려 보려 했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고, 연이어 이어지는 사고를 시도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머릿속은 묘하게도 텅 비어 있었다.

새벽이 다다를 무렵, 나는 불안하게 뒤척이기 시작했다. 잠이 오지 않아 잠시 후 침대에서 일어나 방 안을 거닐었다. 겨울 새벽이 창문을 통해 슬며시 스며들고, 낡은 방의 적막하고 불편한 실체가 드러났다. 놀라운 것은, 이토록 오랜 세월을 보냈음에도 내가 이 곳이 얼마나 음

울한 곳인지 결코 깨닫지 못했다는 사실이었다. 시간이 그렇게 흘렀다.

아래층 어딘가에서 소리가 들려온다. 나는 침실 문가로 다가가 귀를 기울인다. 메리다. 넓고 낮은 부엌을 오가며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 그녀의 발걸음 소리다. 나는 별다른 흥미를 느끼지 못한다. 배고픔도 없다.

하지만 생각은 여전히 그녀에게로 향한다. 이 집에서 일어난 기이한 일들이 그녀를 얼마나 조금도 괴롭히지 않는지. 구덩이 생물들의 사건을 제외하면, 그녀는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조차 의식하지 못한 듯했다. 그녀도 나처럼 늙었다. 그런데 우리는 서로 얼마나 무관한지. 공통점이 없어서일까, 아니면 나이 들수록 사교보다 고요함을 더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일까.

이런저런 생각들이 머리를 스친다. 명상하는 동안, 나는 잠시 동안 밤의 무거운 생각들로부터 주의를 돌릴 수 있었다.

잠시 후, 나는 창가로 걸어갔다. 창문을 열자 밖이 보였다. 해는 이미 지평선 위로 떠올랐고, 공기는 차가웠지만 달콤하고 상쾌했다. 점차 뇌리가 맑아지고, 잠시 동안이지만 안도감이 찾아왔다. 조금 더 나아진 기분으로, 나는 계단을 내려가 정원으로 나갔다. 개를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계장 쪽으로 다가가자, 어젯밤 문 앞에서 나를 덮쳤던 바로 그 곰팡내 나는 악취가 다시 코를 찔렀다. 순간적인 공포를 떨쳐내고 나는 개

를 불렀다. 하지만 개는 내 목소리에 아랑곳하지 않았다. 한 번 더 부른 뒤, 나는 작은 돌멩이를 개장에 던졌다.

그제야 개가 불안하게 몸을 움직였다. 나는 다시 그의 이름을 불렀지만, 더 이상 가까이 가지는 않았다. 잠시 후, 여동생이 나와 함께 개를 개장 밖으로 달래내려 애썼다.

잠시 후, 그 불쌍한 짐승이 몸을 일으켜 이상하게 비틀거리며 휘청 휘청 밖으로 기어 나온다. 낮빛 아래서 그는 좌우로 흔들리며 서 있고, 멍하니 눈을 깜빡인다. 나는 자세히 살펴보고는 그 끔찍한 상처가 훨씬 더 커졌으며, 마치 희끄무레한 균류처럼 보인다는 것을 알아차린다. 내 여동생이 그를 쓰다듬으려 다가서지만, 나는 그녀를 말린다. 며칠 동안은 너무 가까이 가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설명한다. 그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것인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조심하는 것이 좋다고 말이다.

잠시 후, 그녀는 나를 떠나 다시 돌아온다. 자투리 음식 조각들이 담긴 대야를 들고 있었다. 그녀는 그것을 개 옆 땅바닥에 내려놓았고, 나는 관목에서 꺾어온 나뭇가지로 대야를 개가 닿을 수 있는 곳까지 밀어 넣었다.

고기가 입맛을 돋울 만한데도, 개는 그 음식에 전혀 관심을 두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집으로 물러갔다.

그의 물그릇에는 아직 물이 남아 있었다. 잠시 이야기를 나눈 뒤, 우리는 집으로 돌아갔다. 나는 여동생이 그 동물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

지 도무지 이해하지 못해 당황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그녀에게 진실을 암시하는 것조차 미친 짓일 터였다.

하루가 조용히 지나가고 밤이 찾아왔다. 나는 어제의 실험을 다시 해보기로 마음먹었다. 현명한 선택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이미 결심한 일이다. 그래도 나는 안전을 위해 준비를 해뒀다. 서재와 정원을 잇는 문을 고정하는 세 개의 자물쇠 뒤에 튼튼한 못을 박아 넣었다. 이 조치만으로도 어제 밤에 겪었던 위험을 다시는 피할 수 있을 것이다.

열 시부터 두 시 삼십 분까지 나는 지켜봤다.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결국 나는 비틀거리며 침대로 향했고, 곧 잠들었다.

스물여섯

빛나는 점

나는 갑자기 깨어났다. 여전히 어둠이 짙게 깔려 있었다. 다시 잠들려 몸을 뒤척였지만, 잠은 오지 않았다. 머리가 살짝 아팠고, 한때는 뜨겁게, 또 한때는 차가운 기운이 몸을 감돌았다. 잠시 후, 나는 다시 시도하는 것을 포기하고 성냥갑을 찾아 손을 뻗었다. 촛불을 켜 잠시 독서라도 하다가, 시간이 지나면 잠들 수 있을지도 모른다. 몇 초 동안 어둠 속에서 더듬거리다, 마침내 손이 상자에 닿았다. 하지만 상자를 열자마자, 나는 깜짝 놀랐다. 어둠 속에서 인광성 작은 불꽃이 빛나고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다른 손을 뻗어 그것을 만졌다. 그것은 내 손목에 있었다. 모호한 경악감에 휩싸인 나는 성냥을 재빨리 켜고 살펴봤지만, 작은 흠집 외에는 아무것도 볼 수 없었다.

‘상상일 뿐이군.’ 안도 섞인 한숨과 함께 중얼거렸다. 하지만 성냥이 손가락을 태우자마자 나는 그것을 떨어뜨렸다. 다시 성냥을 찾으려 허둥대는 사이, 그 형체는 다시금 빛을 발했다. 이제 나는 그것이 단순한 착각이 아님을 알았다. 이번에는 촛불에 불을 붙여, 그 자리를 더 자세히 살펴보았다. 굵은 자국 주변에는 희미한 녹색 얼룩이 도드라져 있었다. 나는 당황하고 불안해졌다. 그러다 문득 한 생각이 떠올랐다. ‘그것’이 나타난 다음 날 아침의 일이 기억났다. 개가 내 손을 핏었다는 사실을 말이다. 바로 이 개, 굵은 자국이 있는 이 개였다. 하지만 나는 그 비참한 사실을 지금이야 비로소 의식하게 된 것이다. 끔찍한 공포가 밀려왔다. 그것은 내 뇌속으로 기어 들어왔다. 개의 상처가 밤마다 빛을 발한다는 사실에. 어리둥절해진 나는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생각해보려 했지만, 도무지 머리가 돌아가지 않았다. 이 새로운 공포의 순수한 위압감에 내 뇌는 마비되어 버린 듯했다.

시간은 나의 무심함 속에 그렇게 흘러간다. 어느 순간 나는 정신을 차리고, 내가 잘못 본 것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하려 애쓴다. 하지만 그것은 헛수고였다. 내 마음속에는 한 점의 의심도 남아 있지 않았다.

시간이 흐를수록, 나는 어둠과 침묵 속에 앉아, 절망적으로 떨고 있다....

하루가 가고 또 밤이 찾아왔다.

아침 일찍, 나는 그 개를 쏘아 죽이고 관목들 사이 어딘가에 묻었다. 내 여동생은 놀라고 무서워하지만, 나는 이미 절박한 상태다. 게다가 그렇게 하는 게 더 낫다. 그 역겨운 생장은 거의 개의 왼쪽 몸을 가려버

렸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손목의 상처가 눈에 띄게 커졌다. 나는 몇 번이나 자신이 중얼거리는 것을 발견했다. 어릴 때 배웠던 작은 기도문들을. 전능하신 하나님, 제발 저를 도와주소서. 나는 미쳐버릴 것이다.

며칠째 나는 아무것도 먹지 못했다. 밤이 깊었다. 나는 의자에 앉아 있다. 하느님,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삶의 공포를 누군가 진정으로 느껴본 적이 있을까? 나는 공포에 싸여 있다. 이 끔찍한 병변의 타는 듯한 고통이 계속 느껴진다. 그것은 내 오른쪽 팔과 옆구리를 모두 뒤덮었고, 이제 목을 타고 올라오기 시작했다. 내일, 그것은 내 얼굴을 감아 먹을 것이다. 나는 살아있는 부패덩어리가 될 것이다. 도망칠 길은 없다. 그러나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다. 방 건너편 총걸이대를 본 것이 계기였다. 나는 다시 그 총걸이대를 바라보았다. 이상한 감정이 밀려왔다. 그 생각은 점점 나를 집어삼키고 있다. 주님, 당신은 아십니다. 당신은 반드시 아셔야 합니다. 죽음은 낫습니다. 아니, 천배만 배 낫습니다. 이것보다는! 예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지만 나는 살 수 없습니다. 살 수 없습니다, 정말로! 감히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더 이상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적어도 이 방법은 마지막 공포를 피하게 해 줄 것입니다.

나는 아마도 잠들어 있었나 보다. 나는 매우 약해졌고, 오! 정말로 비참하다. 너무 비참하고, 너무 지쳤다. 종이가 스치는 소리조차 내 머리를 짓누른다. 내 청각이 유난히 예민해진 것 같다. 잠시 앉아 생각해 보자.

“췌! 무언가 소리가 들려. 지하실 깊은 곳에서. 삐걱거리는 소리야. 주님, 저 거대한 참나무 뚜껑문이 열리고 있어. 대체 무엇이 저렇게 하는 거지? 내 펜이 굵히는 소리가 귀를 먹먹하게 만드네……. 들어야 해……. 계단에서 발소리가 들려. 이상하게 폭신거리는 발소리가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어……. 예수님, 늙은이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무언가 문고리를 더듬고 있어. 오, 하나님, 지금 저를 도와주소서! 예수—문이 열리고 있어—천천히. 무언가—”

그게 다다.

스물일곱

결론

나는 원고를 내려놓고 토니슨을 바라보았다. 그는 앉아 어둠을 응시하고 있었다. 나는 잠시 기다린 뒤 말을 건넸다.

“그래?” 내가 물었다.

그가 천천히 몸을 돌렸다. 그리고 나를 바라보았다. 그의 시선은 이미 먼 곳으로 사라진 듯했다.

“그는 미쳤나?” 내가 물었다. 반쯤 고개를 끄덕이며 원고를 가리켰다.

토니슨은 한동안 시선도 없이 나를 응시했다. 그러다 갑자기 정신이 돌아왔고, 내 질문을 이해했다.

“아니!” 그가 말했다.

나는 반박할 의견을 내뱉으려 입술을 벌렸다. 세상이 정상적이라는 나의 확신이, 이 이야기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입을 다물었다. 어쩐지 토니슨의 목소리에 담긴 확신이 나의 의심을 흔들어 놓았다. 순간 나는 덜 확신에 차 있는 자신을 느꼈다. 비록 아직 완전히 납득한 것은 아니었지만.

잠시 침묵이 흐른 뒤, 토니슨이 굳은 몸짓으로 자리에서 일어나 옷을 벗기 시작했다. 그는 말을 꺼내고 싶지 않은 기색이었으므로, 나도 아무 말 없이 그의 행동을 따랐다. 나는 지쳐 있었지만, 방금 읽은 이야기의 여운이 아직 머릿속에 가득 차 있었다.

담요를 뒤집어쓰고 누웠을 때, 문득 옛 정원의 모습이 기억났다. 우리가 그곳을 처음 보던 날의 모습 그대로였다. 그 장소가 우리 마음속에 불러일으켰던 기이한 공포가 떠올랐다. 그리고 점점 더 확신에 차게 생각했다. 토니슨이 옳았다는 것을.

우리가 눈을 뜬 때는 이미 매우 늦은 시간이었다. 거의 정오에 가까웠다. 밤의 대부분을 원고를 읽는 데 보냈기 때문이다.

토니슨은 짜증이 나 있었다. 나도 기분이 상했다. 날은 다소 음울했고, 공기에는 살짝 기운이 감돌았다. 우리 둘 다 낚시를 나가자는 말은 꺼내지 않았다. 우리는 저녁을 먹고, 그 후엔 그냥 앉아 침묵 속에 담배만 피웠다.

곧장 토니슨이 원고를 달라고 했다. 내가 건네자, 그는 오후 내내 혼자 그 원고를 읽었다.

그가 그렇게 일하고 있을 때, 문득 내게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다.

“저쪽을 다시 한번 살펴보는 건 어때?” 나는 강 하류 쪽으로 고개를 끄덕여 보였다.

토니슨이 고개를 들었다.

“아무것도 없어!”

그가 단호하게 내뱉었다. 그의 대답을 들은 나는, 의외로 짜증보다는 안도감을 느꼈다.

그 후, 나는 그를 혼자 두었다.

차 마실 시간이 조금 못 되었을 무렵, 그가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나를 쳐다보았다.

“방금 좀 통명스럽게 굴어서 미안하네, 친구.” (정말 ‘방금’이라니! 그는 지난 세 시간 동안 한 마디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자네가 무엇을 주겠다 해도, 나는 그곳에 다시는 가지 않겠네.” 그는 고개로 그곳 방향을 가리켰다. “으악!” 그는 한 인간의 공포와 희망, 그리고 절망이 적힌 그 기록을 내려놓았다.

다음 날 아침, 우리는 일찍 일어났다. 평소처럼 수영하러 나갔다. 전 날의 우울함이 조금은 씻겨 나간 듯했다.

아침 식사를 끝내고 낚싯대를 챙겼다. 우리는 좋아하는 낚시터에서 하루 종일 시간을 보냈다.

그 날 이후로 우리는 휴가를 마음껏 즐겼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운전사가 올 날을 손꼽아 기다렸다. 우리는 그에게 무척 궁금한 점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를 통해 아주 작은 마을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었다. 우리는 그 이상한 정원에 대해 알고 싶었다. 그 정원은 거의 알려지지 않은 지역 한가운데 혼자 떨어져 있었다.

드디어 그날이 왔다. 우리는 운전사가 우리를 데리러 올 것이라 기대하고 있었다. 그는 우리가 아직 잠자리에 누워 있을 때 일찍 도착했고, 우리가 가장 먼저 안 것은 그가 텐트 입구에 서서 낚시가 잘 되었느냐고 묻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우리는 그렇다고 대답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거의 동시에, 같은 숨결로, 가장 궁금했던 질문을 던졌다. 강을 따라 몇 마일 떨어진 곳에 있는 오래된 정원과 거대한 구덩이, 그리고 호수에 대해 아는 바가 있는가? 또 그 근처에 거대한 집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는가?

아니, 그는 그런 것을 알지 못했고, 알 수도 없었다. 하지만 잠깐, 그는 예전에 한 번쯤 들은 적이 있었다. 광야 한가운데 홀로 서 있는 거대한 오래된 집에 관한 루머였다. 하지만 그가 기억하기로는, 그 곳은 요정들이 차지한 곳이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는 분명히 그곳에 뭔가 "이상한" 기운이 있다고 들었다. 어쨌든 그는 그 일에 대해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아무것도 듣지 못했다. 그가 아직 어린 소년이었을 때 이후로는. 아니, 그는 그것에 대해 특별히 기억나는 것이 없었다. 사실,

우리가 그에게 질문하기 전까지는, 그가 어떤 것도 "전혀, 전혀" 기억하지 않았다는 사실조차 몰랐다.

"여기 봐." 토니슨이 말했다. 그가 할 수 있는 말은 이 정도가 전부였기 때문이다. "우리가 옷을 갈아입는 동안, 마을 한 바퀴 돌아봐. 만약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뭔가 알아내길 바래."

그 남자는 어정쩡한 거수경례를 하고는 임무를 띠고 떠났다. 그동안 우리는 서둘러 옷을 챙겨 입었고, 그러고 나서 아침 식사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우리가 막 그 자리에 앉으려던 순간, 그가 돌아왔다.

"게으른 놈들이 죄다 침대에 처박혀 있더이다, 나리." 그가 다시 한 번 거수경례를 하며 말했다. 그러면서 식탁 대신 우리가 사용하던 식량 상자 위에 차려진 좋은 음식들을 흐뭇한 눈길로 바라보았다.

"그래, 앉으시게. 우리랑 같이 좀 드시게." 친구가 대답했다. 그 남자는 주저 없이 바로 자리에 앉았다.

아침 식사 후, 토니슨은 그에게 다시 같은 임무를 맡겼다. 우리는 앉아 담배를 피웠다. 그는 약 사십오 분간 자리를 비웠고, 돌아왔을 때 그는 분명 무언가를 알아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그는 마을의 한 노인과 이야기를 나눈 듯했다. 그 노인은 아마도 다른 어떤 살아있는 사람보다도 기묘한 집에 대해 더 잘 알고 있었을 것이다. 비록 그 지식이 아주 미미하더라도 말이다.

이 지식이 전하는 핵심은 이렇다. ‘옛사람’이 젊었을 적, 하느님 아시니 얼마나 먼 옛날인지 알 수 없지만, 지금의 폐허 조각만 남은 그 정원 한가운데에 거대한 집이 서 있었다.

그 집은 이미 오랫동안 비어 있었다. 옛사람이 태어나기 훨씬 전부터 말이다.

마을 사람들은 이 집을 피했다. 그들의 아버지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리고 그 이전 세대들도 그랬던 것처럼.

그곳에 대해서는 수많은 소문이 돌았지만, 모두 악의적인 것이었다. 낮이든 밤이든, 누구도 그 집 근처에 다가가지 않았다. 마을에서 이 집은 불경하고 끔찍한 모든 것의 대명사였다.

그러던 어느 날, 낯선 한 남자가 말을 타고 마을을 가로질러 와서는, 마을 사람들이 늘 ‘그 집’이라 부르던 그곳 방향으로, 강을 따라 길을 꺾어 내려갔다. 몇 시간 뒤, 그는 왔던 길을 되짚어 아드라한 쪽으로 다시 말을 타고 돌아갔다. 그리고 약 석 달 동안은 아무 소식도 들리지 않았다. 그 기간이 끝날 무렵, 그는 다시 모습을 드러냈다. 다만 이번에는 노부인 한 명과, 갖가지 물품을 실은 다수의 당나귀를 데리고 있었다. 그들은 마을에 들르지 않고 곧장 강둑을 따라 ‘그 집’이 있는 방향으로 내려갔다.

그때 이후로, 그들을 본 이는 단 한 명도 없었다. 월말마다 아드라한에서 생필품을 실어 나르도록 고용된 사내 외에는. 그리고 그 사내 역

시, 누구도 말을 끌어내지 못했다. 분명히 그는 그 귀찮은 일을 위해 충분한 대가를 받았던 것이다.

그 작은 마을에서 세월은 별일 없이 흘러갔다. 그 남자는 매달 정해진 날에 여행을 떠났다.

어느 날, 그는 평소처럼 정해진 용무로 나타났다. 그는 마을을 지나쳤지만 주민들과는 무례한 고개 끄덕임 이상으로 나누지 않고 집으로 향했다. 보통은 저녁이 되어야 그는 귀환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몇 시간 후, 마을에 다시 나타났다. 그는 극도로 흥분한 상태였으며, 놀라운 소식을 전했다. 집이 완전히 사라졌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 자리에 거대한 구덩이가 패여 있었다.

이 소식은 마을 사람들의 호기심을 크게 자극한 듯했다. 그들은 두려움을 이겨내고 집단으로 그 장소로 향했다. 그곳에서 그들은 운반인이 묘사한 그대로의 광경을 목격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것뿐이었다. 원고의 저자가 누구였으며, 어디에서 왔는지, 우리는 영원히 알 수 없을 것이다.

그의 정체는 그가 원했던 대로, 영원히 묻혔다.

그날 우리는 외로운 크라이튼 마을을 떠났다. 우리는 그곳에 다시 가본 적이 없다.

꿈속에서 나는 그 거대한 구덩이를 보곤 한다. 거기에는 사방이 야생의 나무들과 덤불로 둘러싸여 있다. 물소리가 위로 치솟으며, —내 잠

속에서— 다른 더 낮은 소리들과 섞인다. 그 모든 것 위에 분무의 영원한 천이 드리워져 있다.

슬픔[17]

가슴 깊은 곳에서 맹렬한 주림이 지배한다. 나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다. 신의 손아귀에 짓눌린 이 온 세상이, 슬픔이 그 끔찍한 마음속에서 풀어내 던져낸 이처럼 쓰디쓴 불안의 정수를, 이처럼 큰 고통을 품고 있을 줄은.

매번 흐느끼는 숨결은 비명일 뿐. 마음의 박동은 고통의 종소리. 내 뇌리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만 가득 차 있다. 영원히 다시는 너와 손을 잡지 못할 것이라는 것. (기억의 아픔 속이 아니라면) 지금 이미 아무 것도 아닌 너와.

나는 밤의 온갖 공허를 뒤지며 너에게 소리 없이 부르짖는다. 그러나 너는 없다. 밤의 거대한 왕좌는 별들이 울리는 거대한 교회로 변해 우주에서 가장 고독한 나에게 종소리를 전한다.

배고픔에 절어, 나는 해안가로 기어간다. 아마도 옛 바다의 영원한 심장으로부터, 나를 위한 위안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보라! 엄숙한 심연으로부터, 신비 속의 먼 목소리들이 들려온다. 우리가 왜 갈라져 있는지, 왜 이리도 멀리 떨어져 있는지, 그들이 묻는 것 같다.

내가 가는 곳마다 나는 혼자인데 한때는 너를 통해 온 세상을 가졌었지. 내 가슴은 온통 격렬한 고통으로 가득 차 있다. 이미 지나간 것, 그리고 이제 사라진 것에 대해. 그것은 생명이 던져지는 공백 속으로 날아갔다. 거기에는 아무것도 없으며, 다시는 아무것도 없다!

각주:

이해할 수 없는 삽입구절이다. 필사본에서 이 사건에 대한 이전의 언급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다. 그러나 이후의 사건들을 통해 그 정체가 조금씩 선명해진다. — 편집자 주

이곳부터 필체는 판독이 불가능해진다. 원고의 이 부분이 손상되었기 때문이다. 아래에는 판독 가능한 단편들만 실었다. --편집자

참고 — 필사본의 손상된 부분은 아무리 면밀히 검토해도 더 이상 읽을 수 없었다. 다시 글자가 선명해지기 시작하는 지점은 ‘밤의 소음’이라는 제목의 장부터이다. — 편집자

은둔자는 이를 혜성의 대중적 관념을 예시로 들어 설명한다. -- 편집자 주

분명히 결손되고 훼손된 페이지들에 명시된 내용을 가리키는 말이다. _Fragments_ 14장을 참조할 것. - 편집자 주

달에 대한 언급은 여기서부터 더 이상 나오지 않는다. 이 대목으로 미루어 보아, 달은 지구로부터 현저히 멀어졌음을 알 수 있다. 어쩌면

더 나중에는 지구의 인력에서 완전히 벗어나버렸을지도 모른다. 이 지점에 대해 더 이상 밝힌 바가 없어 아쉽다. -- 편집자 주

추측건대, 얼어붙은 공기일 것이다. --편집자

[8] 이전 각주를 보라. 이 점이 방 안의 눈(?) 현상을 설명해 줄 것이다. — 편집자

나는 당혹스럽다. 은둔자가 이 대목에서도, 그 이후로도, 하지에서 동지로(물론 겉보기상의) 남북으로 오가는 해의 운동에 대해 더 이상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기 때문이다. — 편집자 주

당시 소리를 전달하는 대기는 극도로 희박했을 것이다. 아니면 더 가능성 있게는, 아예 존재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이러한 사실을 고려할 때, 살아있는 귀로는 이 소리들, 혹은 다른 어떤 소리들조차 들리지 않았을 것이다. 우리가 물질적인 몸으로 이해하는 그 감각, 즉 청각으로는 전혀 감지되지 않았다는 말이다. — 편집자 주

나는 오직 이렇게 추측할 뿐이다. 지구의 연간 공전 주기가 태양의 자전 주기와의 현재 '상대적' 비례 관계를 더 이상 유지하지 못하게 되었을 것이라고. — 편집자 주

원고를 면밀히 읽다 보면,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가능성 중 하나가 떠오른다. 해가 매우 이심률이 큰 궤도를 돌고 있다거나, 아니면 초록별을 향해 점점 좁아지는 궤도로 다가가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나는 해가 거대한 별의 중력 때문에 결국 그 비스듬한 궤도에서 찢겨져 나온 것으로 생각한다. — 편집자

여기서 주목할 점은 지구가 “천천히” 죽은 태양의 거대한 면을 가로질러 지나가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에 대한 설명은 어디에도 없다. 우리는 두 가지 결론 중 하나를 내려야 한다. 시간의 속도가 느려졌거나, 아니면 기존 기준으로는 느린 속도이더라도 지구가 실제로 궤도를 따라 이동하고 있었거나 말이다.

그러나 원고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나는 시간이 아주 오랜 기간 동안 꾸준히 느려져 왔다고 결론 내린다. -- 편집자

18장 첫 번째 각주 참조.

틀림없이, 그것은 다른 차원에서 바라본 죽음의 중앙 태양의 불꽃 가장자리 질량이었다.

주.--미완성된 단어 끝부분에서부터, 원고 위로 열린 잉크 선 한 줄을 따라갈 수 있다. 이는 펜이 종이 위로 미끄러져 나갔음을 시사한다. 아마도 공포와 쇠약함 때문이었을 것이다.--편집자